朝鮮日報
夕刊 二日(木)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拜金思想을 排斥함

一

二十世紀는 物質文明이다。物質文明은 資本主義다。資本主義는 拜金主義를 나엇다。拜金主義는 全世界의 有爲敢能의 靑少年에게 數學的行動을 强制하는 機械로 만들엇다。그리하야 그들은 무엇보다도 압서는것은 돈이라하야 學校를 擇할때에 그學校를 卒業하면 어느職業에 就職할수잇는가를 標準해서 擇하고、職業을 擇할때에 月給이 얼마나를 標準으로하야 擇하고、달리도 이러한 標準에 依하야 收入을 느리는 方法을 講究하는 一方、支出을 적게하기 爲해서는 用費節約이라는 美名의 文字를 써가면서 自己의 吝嗇을 粉飾하고、虛禮廢止라는 口實을 잡어가지고、自己의 隣人及社會에 對한 當然한 義務를 回避하고저 하는것이다。

二

그러나 이것은 迷夢이며、幻滅이니、諸君은 맛당히 이迷夢으로부터 覺醒하며、幻滅로부터 超脫해야 된다。人生의 참다운 意義價値는 그가 隣人社會를 爲하야 무엇을 寄與하는가에 依하야 判定되는것이요、그가 어떠한地位를 가지는가? 又는 그가 얼마나한 富를 蓄積하는가에 잇지아니하다。그뿐아니라、一層、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富와 貴를 無理하게 强求하는것은 害로 제몸을 亡칠뿐만이 아니라、이에隣人社會를 크게害함이 잇는것이다。보라、남달리 百萬長者의 子息이 되엿기때문에 酒肆靑樓에 몸이 빠저가지고 一生을 헤여나지 못하는 例는 누구나 日常、目睹하는바어니와 一個人으로서 幾萬幾億의 富를 獨占的으로 擁有하려면、그擁有途中에 잇서서 발서 幾多의 隣人에게 影響을 미치지 아니할수가 잇을것인가? 故로 自來로 仁者는 不富하고 富者는 不仁이라고 잇는데、仁이란 무엇이냐、하면 그것은、即、隣人社會를 爲하는것이다。

三

또한 富와貴는 强求한다고 반드시 얻는것이 아니다。萬若、收入을 느리고、支出을 주리는 方法에 依하야 富를 어들수가 잇다고하면 世界總人口 十六億 가운데 그만한 理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니까 富者가 못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그러나 그러치 아니한데가 잇기 때문에 孔子도 말한바가 잇지 아니하냐? 即、『富와 貴를 求해서 엇는일 가트면 나도 엇기에 努力해 볼 생각이 잇스나、그러치 못한바가 잇스니까 나는 내가 조와하는 길을 따르고저 한다。』는 고。問題는 여기 잇다。即、『내가 조와하는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恒常、내가 조와하는것이 무엇이냐?를 深思熟考하야 그길을 따를것이오、時流와 가티 생기엇다가 時流와 가티 스러지는 拜金的迷夢에 빠질것이 아니다。

四

그러고、隣人社會를 爲하는 根本要締는 어디잇느냐하면 此를 孔子의 말슴을 비러말하면 施諸己而不願을 亦勿施於人이라는데 잇고、예수의 말슴을 비러말하면 己之所欲을 先施於人이라는데 잇다。故로 隣人社會를 爲해서 내놋는것은 自己의 能力닷는데 까지가 限度요、거기는 節約도 업고、虛禮도 업는法이다。그뿐아니라、節約이니 虛禮니하는말은、節約할 돈과 廢止할 虛禮를 가진者들두고 한말이오、節約할 物件과 廢止할虛禮를 처음부터 가지지 아니한大多數의 民衆에게 對해서는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소리밧게안되는것이다。

五

有爲敢能의 靑少年諸君아 諸君은 미드라、『隣人社會를爲하야 一身을 드려 奉仕하는者에게 對해서는 隣人社會 또한 그를 저버리지안는다。』는 理致를 굿게 미드라。拜金熱者의 失敗한뒤는 窮乏하고、孤獨하나、隣人社會를 爲하야 一身을 바치는者에게는 그러한窮乏도 업을것이며 그러한 孤獨도 업을것이다。拜金熱者의 눈으로보면 씨앗뿌리고 먹을것을 엇는 새는 非科學的으로 보이리라、拜金宗徒의 눈으로 보면 길삼하지 안코 華麗한 옷을 입은 百合은 非科學的으로 보일것이다。그러나 그런것이 萬若、非科學的이라고하면 有爲敢能의 靑少年諸君아 諸君은 일부러 非科學的을 取하야 씨를 뿌리며、길삼하는 現金主義로 가기말고、오직 이 社會를爲하야 무엇을 할까? 이 人類를 爲하야 무엇을 할까?를 目標로하야 예돌아 가되、一路、勇往邁進하라。

世界資源再分割과 平和機構의再建을力說

來議會의外交方針演說에서 廣田外相、中外에言明

【東京電話國通】米國大統領의心腹인 하우스大佐의 資源再分割論提唱은 世界의資源開放에 依한 國際平和維持의 新方策이라하야 各方面에서 論議되여잇는데 廣田外相은 來議會의 外交方針演說에잇서 堂堂히資源開放問題에言及하야 日本政府의 態度를 闡明할豫定이다 即

新興日本의人口는 바야흐로一億에 達하려함에도 不拘하고米國을爲始하야 歐洲 加奈陀等은 勿論 南米諸國까지 門戶를閉鎖하고 南米諸國 關稅印度等도亦是 入國制限을 維持하야 日本의發展은 頑强히 阻止되여잇음으로 工業立國에 依한 貿易振興策에 轉하자 英國을爲始하야 世界各國은 利己的見地에서 盛히 防遏手段을 講究하야 日本品의 締出을 圖하엿다 如斯히 모든發展手段이 封鎖된 日本으로서는 國民的膨脹에서 必然的으로 最後로 自己의 天地를東亞에서 求하게되엿다는것으로 廣田外相은 右主張에 對하야 去十月二十九日 對英軍縮會議 回答中에 各國은 各國의資源的 要求의 不可缺한必要에 基하는것을 充分考慮하는 것이 世界平和維持上 及 그障害除去를爲한 急務이라는所以를言明自白하야 世界資源의公平한分配를 示唆한바이섯는데 今回의外交方針演說中에도 右點에言及하야 世界平和機構의 再檢討를 要望할方針이다 그리고 如斯한現狀打破의機運은 日本뿐이아니라 伊太利의 對에政策、獨逸의 奧、匈破棄運動으로 나타나歐洲의 平和는 恒常 脅威되는實情에 잇다 如斯한 情勢에처 猶한 歐米各國의 識者間에는 英米佛蘇等 膨大한 植民地를 新興國에 分配할것이라는 議論이 權衡하고잇는데 日本의機械의責現은 滿洲事變以來의 日本外交政策을 確認하는 新平和機構의組織을 要求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六大銀行의檢査 結果好成績

新春엔信託會社를檢査

【東京電話國通】金融界에 여러가지로 豫測을 生한大藏省의六大銀行檢査는 漸次 完了되엿음으로 明春은 信託會社의 檢査를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右銀行檢査結果는 意義잇는 結論을齎來하엿는데 大藏省은

一、預金利引下가 아직 一部에서唱道되여잇는데 利益의 減收는經營의 合理化에 依하야 充分補充할수잇음으로 아직그時機는 아니다

一、地方銀行은 投資가 不健全한 部分이만코 現在의 預貸가跛行狀態를 가지고잇는 點도 잇음으로 監督의 抑制는 今後에도 勵行할터로 當局은銀行經營에關하여는 從前대로 內容健全化의要求를 繼續할方針이라고한다 即 當局에서어든結論의主要한것을擧하면 左와如하다

一、六大銀行의檢査에依하야 此等 大銀行의自己財閥關係會社外로의 貸付가 當局의 豫想보다意外로적고 廣範圍에亘하여잇는것은 危險分散上 好結果를齎來할것이다

一、經營은 相當히 各方面에 亘하야 合理的으로 行하여잇는데 아직 經費를 節約할 餘地가잇다

一、投資貸付利潤의 減少는 漸次 注目되고 銀行經營의 困難問題로 預金利下는 近近 必然 論議될것이다 合理的經營의 强化에 依하야 어느程度까지 이困難을 打開할수잇을것이다

一、地方의 小銀行은 今年의 그頃下의 人氣株에 投資하야 그리된結果가 相當한利益을 招來한바 가만ㅎ으로 株式投資는 嚴히 警告할 方針이다

佛國豫算案 上院一讀會通過

【巴里二十九日發聯合】佛國政府提出의 一九三六年度豫算案은二十八日夜上院에上程 徹宵審議한結果 二十九日午前一時에 至하야 賛二百六十八票 反對十七票의壓倒的多數로 第一讀會를 通過하엿다 豫算案內容은 如左하다

歲入 四百四億三千萬프랑
歲出 四百三億八千萬프랑

人事・集會

◀阿部充家氏(元京城日報社長)昨養이든바 二日午前三時東京麻布三軒家自邸에서 逝去

◀小宮三保松氏(元李王職次官)客臘二十九日 逗子自邸에서別世

八面鏡

◇

『謹賀新年』도지나고 今日부터는 新年新事業에 着手하는첫날

◇

『始作이半』이라는 俗談도 잇거니와、始作하기前의 方針이 成敗를 左右하는것은勿論

◇

屠蘇酒가 깨이기도前에 初荷를 실어나르기에 거리가奔走 첫去來니 이去來가 重한去來일것은 더말할것업거니와 새해부터는 좀더 信用잇는 去來가되고지고。

◇

信用은 다함끠직히는데서 共同의幸福도增進을 바랄수 잇는것。

◇

제마다 가난하고서는 信用을 바라기어려운것도事實、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信用蓄積運動이必要。

今日本紙附錄 共二十八面

四方拜와歲旦祭

【東京電話電通】昭和十一年春의 元旦、宮中에서는 大晦日의節折、大祓除夜의 御儀에 繼續하야 一日午前四時半 若水로御淨身、黃櫨染의 御袍를 입으압신 天皇陛下께 압서는 同五時半에 綾綺殿으로부터 賢所神嘉殿에出御、御拂을 正히하압시고 伊勢神宮을 비롯하야 四方의 神祇畝傍、桃山、多摩의 各山陵과 熱田神宮以下의 數社를 御遙拜、國家의 安穩、萬民의多幸을 御祈念하압시엇다 繼續하야 歲旦祭를擧行하압시고 同六時 御終了 陛下 入御하압시다

子年名畫

玄齋 沈師正筆 玄齋 靑松人 肅宗朝人 距今二百年前 (咸錫泰氏所藏)

國際石油戰

生產의極度偏在 大勢支配는英米兩國

(中) 金炯元

◇石油問題의焦點◇

石油問題의焦點은 그生產力의偏在에잇다。아모地域에나 油田이잇고 아모國家나 自由로生產할수만잇스면 아모問題도업을것이다。그러나 實際事情은 그와正反對이까닭에 問題는 갈수록複雜化하고 深刻化하는것이다。現在世界의石油는 全世界生產의七割가량을 英米兩國이支配하고잇다。即米國의 스탠다ー드・오일會社와 英國의로얄・떠취・쉘과 앙글로페시아의 三大獨占組織에依하야 支配되고잇다。그남어지 獨占的支配가 不及하는 自由地域에서는 猛烈한競爭이不絕하야 競爭의激化는 種種軍隊의出動을보는 일도잇서서最近에는 波斯의앙글로石油會社의 利權問題로 國際聯盟에 解決을請求한일도잇다。그뿐아니라、이會社問題는 畢竟英米伊三國의猛烈한 資本戰을展開식힌 일도잇다。

◇新形勢의急展開◇

그런데、最近五六年來로 石油問題에잇서서 新形勢가 急히展開된것을 우리는보고잇다。이現象은 朝鮮안에서도 볼수잇는일이니、石油라하면 스탠다ー드나라이싱석製品을 使用하든 우리가 最近數年以來로 露油라는稱號아래에 蘇聯邦產油를 쓰게되것이다。蘇聯의 新經濟政策에 依한 產業五個年 計畫의結果는다른産業部門에잇서서도 列國을驚威하는일이 만치만은 石油에잇서서도 特異히 英米二大支配國뿐아니라 列國의石油政策에 一大波紋을 던지고말앗다。從來 貧弱하게생각되든 蘇聯의石油資源은 一九三四年에科學的으로調査한結果 埋藏量이 [illegible]億噸으로推定되야 全世界埋藏量의三割二分을 占하게되얏고 世界第一의資源을 가젓다고할수잇게되얏다。生產力도 一九三一年에는 米國에 다음가는 世界第二位에 오르게되얏슴으로 列國은 蘇油의進出에 對하야 눈을크게뜨게된것이다。

◇英米諸國의暗躍◇

이形勢를본 英米資本國은 到底히 가마히잇을수가업섯다。一九三二年六月紐育에서 蘇聯代表參席下에 英米諸國이모히어 會議를 거듭하얏스나 아모協定도하지못하고 그대로散會하얏고、同年七月에 英米와루ー마니아三國이巴里에서 秘密會議를한結果 對蘇油共同戰線을 맷스나 그 効果는 亦是 疑問이다。

또한가지問題는 米國은 世界最大生產國인 反面에 世界最大消費國인까닭에 石油市場을 完全히 統制할힘이 적은것이다。이와反對로 蘇聯、브에네제라、루ー마니아、波斯諸國은 그生產의大部分을 輸出하는나라임으로 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볼수가잇다。이點으로보아서、最近地中海에到達하는 四百哩의送油管을 完成하야 二十五億바ー렐(一바ー렐은四十二까론)를埋藏한 이라크의資源을 開發하라는點에 石油界의視線이 集中하는것도當然한일이라할것이다。

◇世界石油生產量◇

그러면、이러케重要하고 이러케말성이만흔 石油의生產量은얼마나되는가。이제一九三四年統計를 보이면 다음과갓다。

世界原油生產量 (單位一千바ー렐)

國別	生產量	百分比%
米國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부에네제라	[illegible]	[illegible]
루ー마니아	[illegible]	[illegible]
波斯	[illegible]	[illegible]
蘭印	[illegible]	[illegible]
墨西哥	[illegible]	[illegible]
코롬비아	[illegible]	[illegible]
英印	[illegible]	[illegible]
이라크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加奈陀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一〇〇、〇〇

이統計를보면 英國은나타나지아니하엿스나 波斯、英印、이라크等에投資資力을가지고잇고、日本은 世界產額의千分之一에 不過함을 알수가잇다。

謹賀 新年

京城東大門外淸凉里 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敎 時兆社 京城療養病院

京城府昌信洞三一五番地 丸興工作所 電(光)一二六六番

京城府昌信洞三九七 李允天 電話光化門二九四二番 高陽郡纛島面九宜里驛前 瓦工場

京城府外淸凉里 世一醫院 郭仁星

京城市外西纛島里四八八 纛島八曾學務委員 穀物柴炭商 文雲益

正賀 京城府鍾路二丁目 韓靑ビルヂング內 高級綢緞 水鄕商會

京城市外西纛島里 喪中欠禮 李愚玄 電(本)二〇六七番

京城市外西纛島里 東明精米所 喪中欠禮 李愚明 電本五二八七番

京城市外西纛島里 島一精米所 主 李慶夏 電本(取)二〇六七番

京城市外西纛島里三三七 高陽郡學校費評議會員 司法書士 盧載亨

京城市外東纛島里 纛島面會議員 穀物柴炭貿易委託業 金完洙

京城府東大門 京城軌道株式會社營業所 電話(光)二九六七番

高陽郡崇仁面安岩里一六ノ三 金漢泰 電光一九六八番

京城府崇仁洞一九九 兄弟酒店 支店府外安岩里一一四

市外往十里驛前 荷馬車組合

京城東大門外淸凉里 木原芳太郎

京城市外東纛島里七四四 三成精米所 主 文相哲 振替京城五〇八七番

市外京元線往十里驛前 三成運送店 代表 崔鎬成

京城府外下往十里九四〇 漢陽醸造所 崔龍浩 電話本局一四四四

京城東大門外淸凉里 申慈英

京城東大門外淸凉里驛前 金昌精米所

京城東大門外安岩里 安泰榮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趙慶夏

京城市外東纛島里 藥酒 濁酒 纛島醸造場 主任 金雄奎

京城市外東纛島里四四九 材木柴炭委托業 金永俊 振替京城二三〇二六番

京城市外西纛島里 各官廳用達 柴炭商 李奉龍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李奉山

京城市外西纛島里五〇七 精米業 金永濟 電本(取)二〇六七番

京城市外新堂里三三〇 穀物貿易委託販賣商 模信商會 主 徐丙模

市外上往十里三六一 朝鮮硝子製造所 主 李昌根 支店 昌信洞三六八番地 電話本局二五四六番

京城郊外淸凉里 原病院 精神神經科 腦脊髓科 院長 原振緖 電光2646

京城東大門外安岩里 金炳學

京城市外西纛島中央 纛島醫院

京城市外西纛島里 穀物柴炭貿易委託販賣 日昌商會 主 宋炳圭

纛島郵便所長 纛島面會議員 河原田甫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金鍾泰

京城市外西纛島里 區長 李承源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金仁化

纛島遊園地內 喪中欠禮 荒川食堂

京城市外西纛島里四八二 穀物柴炭商 趙東完

高陽郡纛島面纛島里 各官廳學校用達 金敬用

京城市外西纛島里中央 穀物食料雜貨 三五商店 主 李根夏

纛島面長 崔榮淳

京城市外東纛島里 金泉材木店 主 金弼濟

京城市外西纛島里 永興精米所 主 盧興世

京城市外東纛島里四二 穀物柴炭委託販賣 聖德商會 主 李聖五

京城市外西纛島里 益昌精米所 主 金益洙

京城市外西纛島里 纛島面會議員 穀物柴炭商 孫淳興

京城市外西纛島里五一六 穀物柴炭雜貨商 金澤龜

京城市外西纛島里 聖興精米所 主 洪萬興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廉敬完

咸南地下組織檢擧 昨年中에四百餘名

共産青年會 再建等의 各種結社 九件

可驚할非合法戰術로

【咸興】최근오륙년동안 가장중대한사상사건의 첩첩로 마치사상사건근원지를 일우고잇는듯한 함남도내에서 작년일년동안 발생한 사건은구건으로서 검거된자는 사백여명의 다수가 되다 그중중요한사건을 렬거하면 위선함흥 제삼차공산청년회(第三次共靑)사건의 일백오십여명의 대검거로 비롯하여 문천(文川)의 제사차 적색농민조합사건 단천(端川)의 제삼차 농민조합사건 원산(元山)의 좌익로동조합사건등 중대사건이 끄리를물고 발생하엿스며 이외에도 방금검거중인 홍원(洪原)모사건 신흥(新興)의 케회(K會)사건등 거의 각군에 빠짐업시 발생하엿스며 현재경찰서 유치장에서 새해를 마지한 인수만도 일백삼십여명의 다수에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것은 종전의 유일한 전술이든 하든 표현단체 즉합법단체의 간판으로 『칼프라주─』하면서 그리면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운동하든 것을 자연불수업고 처두철미초초부터 비합법운동으로 교묘한 련락을 취하면서 맹활약하는것이 주목되며 도한전부가 이차 삼차등 재건운동으로서 그공고하게 뿌리박혀잇는 조직체에는 당국에서도 늘 놀나지안흘수업섯다고한다

孤島에 幽閉된 두夫婦 飛行機出動投品

定州青年의 熱誠도 効果잇서 奇蹟的으로 救出될듯

◇운무도에 출동햇든 평북경찰부비행기와 두전비행사일행

【新義州】평북정주군남면(定州郡南面)륙지로부터 약칠십리가량상격하여잇는 바다가운데의무인도、운무도(雲霧島)라는섬에류빙에세워 떠나려가든 어민정주군남면보산동(寶山洞)문창학(文昌鶴)과 방금임신중의그의처리씨(李氏)가 상륙하여구조를 부르짓는다는 소식이전해오기는 벌서 한달가량이나 되는데 그두부부는 신긔하게도아직까지 생명이 부터잇서 륙지를 향하야 잇따금 홰ㅅ불을들어 살려달라는 신호를 하나、류빙으로 인하야 갈수가 업서 몃번이나 구조대가 출동 하얏다가 실패를 하얏다 그런데정주읍의 청년들은 지난 삼십일 문규호(文奎浩)씨를 대장으로 결사대를 조직 하야 가지고 이가련한 두 부부를 구조코저 출동하얏는바 역시 갈가히 갈수가업서 축섬(艾島)이란 곳에 상륙하고 말엇다 그리되매 엇지할도리가 업시된 청년들은 평북경찰부에 탄원하야 지난삼십일、동전비행사(藤田飛行士)조종의 비행긔가 출동하얏다

藤田飛行士談

동전비행긔는 지난삼십일 오전열시사십분 흑한을 무릅쓰고신의주비행장을 떠나 일로 전긔운무도로 향하얏는데 비행긔에는 정주청년들로부터 보내는구호품(호떡、쌀、소곰、성냥、보료)등을 담은 다섯등어리를 싣고 운무도에 니르러 저공비행을 하며구호품을 전부떠러처 여정의목적을 달하고 숙섬에서 결사대원에게 통신통을 전하얏스며어업조합에도통신통을 전하고열두시에 무사히 도라왓다 구호비행장에 공용하고 도라오는 즉시로 본사신의주지국을 방문한 등전비행사는다음과 갓치말하얏다 금번비행은 예상이상으로 성공을 하얏습니다 운무도에서는 륙지와 지척의 거리까지 저공비행을 하얏는데 조난한 부부가 양지편 섬、남쪽에안자잇다가 비행긔로 부터떠러치는 구호품을 바다가지고도라가며 고맙다고 손짓을하는 것을 눈아페서 보앗습니다

新年劈頭强盗 大格鬪끄테逮捕

授恩洞의 洋服店襲擊

이일오전 령시이십분 시내종로경찰서리종헌(李鍾憲)순사가수은동(授恩洞)단성(團成)사옥압골목지나다가 길우에 외투한벌이 떠러저잇는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종로삼정목 파출소까지 가지고가려고할때에 뒤에서『강도강도』하는 외마듸목소리가 나무로추격하야 다러나는 강도를얼골에 상처를당하면서 용감히격투끄테 체포하엿다 이는이천부율대리(仁川府栗大里) 한의목(韓義默)으로 수은동 일백칠십일번지 변양수(卞陽洙)양복점에 들어가서 양복점에서쓰는 큰가위 한개와 재봉침한틀을 훔친후 다른물건을 물색하고 잇는때에 전긔주인변양수가 바게서 도라와서 전등불을 켜즉 범인은 가위를가지고 돈을내라고 위협하다가 돈이업다고하매 그는 재봉가위를 가지고 약십정가량 도망하다가 마츰내 전긔와가티 붓잡힌것이다 범인은 곳본서로 데려다가 방금 류치취조중인데 금년에 재수정월벽두의일이라 리종헌순사는 가 조켓다고 여간깁버하는바가 아니려로 리종헌순사는 무슨방법으로든지 표창하리라한다

業連綿西三代 (二)

白紙一枚當五한푼 科擧壯紙를大發賣

◇……都中六廛에 도못들고『在家』로開店……◇

三代四十三年鐵南紙物舖

상대 사십삼년을 맨처음 개점하는 그날부터 오늘 이시간까지 철남지물포(鐵南紙物舖)의 점두에안저 당오전(當五錢)한눈에 백지한장을 팔든 그손으로 삼전짜리 양지를팔고잇는 장홍식(張興植)씨라고 하는 쉰아홉된 영감은 이철남지물포의 경력 그것이요또한『거리의 산 력사』다 미상불 그는 얼골조차 전세기의 유물(?)인듯이 당중당중 열것고 그러나 개화(開化)바람에 까근 중머리에는 날근탕건을 올려노코 담배대를 한가히 빨면서 차저간 긔자에게 이약이를 프러내놋는다

임진년(壬辰)이니깐 해수로 사십사년이되엇나봉 가을이엇지요 그때 이 전ㅅ방을 낸이는 김선호(金善鎬)씨라고 지금주인 정렬(貞烈)이의 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엇지요 나는 그때 열여섯살인데 시방말로 하면 점원으로 일을 보앗습니다 김선호씨가 그러케 전방을 내가지고 그아들되는 상윤(相允)씨와 가치하다가 영감님이 도라가시니까 상윤씨가 물려바더서 햇는데 그이마저 일숙 작고하고 시방정렬이가 열사오세때 대를 물려바덧지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무엇아우? 다 내가 내살림하다십히 해왓지요

그때야 철남지물포라는 일홈도 업섯지요 그저지전(紙廛)이라고햇고『엄』(手形)거래하는데씁소용으로 자리가 천물교(鐵物橋)남쪽이래서『철남』이라고 햇고그래서개명한뒤에『철남지물포』라고 햇지요 그때는 륙전(六廛)이라고 해서시방 대창무역상회(大昌貿易)자리에는『선전』이잇섯고 그건너편 파출소자리가『백목전』이고 동일은행(東銀)자리가『포전』이고 그남쪽으로『지전』이 잇섯지요 그것을도중(都中=組合)에서다 관리하고 시방가치 맘대로 아모데나 전방을 내지못햇지요그러치만『재가』(在家)라고해서 말하자면 도안주전방을 허가햇든데 그『재가』규측으로 생긴것이 이철남지물포 이엇지요 자리도 물론 여기엇지요

그러케해오다가 개명이되여서 계해년에 새로 신식집을 짓고『철남지물포』라고 간판을 걸고 햇는데 그 이듬해 갑자년에 아저 우미관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번저서 조히한장 끄내지못하고 다 살렷지요 거나 재물이낫스니 망정이지 밤에그랫다면 나도 그때타죽엇슬걸요 화재는 맛낫지만 보험을 드럿서요 그래 바로집을 다시짓고 영업도 다시 시작햇지요 그것이 열두해되엇나보우。

파는물건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지물이지요 그러치만 세상이 변하는대로 물건파는것도 만히 변햇지요 녯날에는 과거보는데 쓰는 장지(명지라고도하지요)가 퍽 만히 팔녓지요

그것이 그때는 한장에 한돈너푼(一錢四厘)씩햇는데 시방은 그러케 조흔 종이가 잇지도안치만 잇다면 아마 한장에 오십전은 바들걸요 도대체 그때세상에비하면 시방 종이들이라는 것은아주 말이아니게 낫버젓지요 백지가 잇서도 그때는 그 조흔 종이가 당오전한푼이던 시방은 종이갓지도아니한 그양지한장에 이전삼전식 내손으로 파는구려 시방 파는양지니 마분지니 하는 것은 다개명한 뒤에생긴것이고 그때는 청국서나오는 색지가만히 팔렷지요 지금도 색지야잇기는하지만 그건진품이아니지요

처음자본이요? 글세 한 수삼천량드럿지요 시방 이 철남지물포를 갑스로 따지자면 만원이 다 무어요 수만원을 가지고도 이러케 차려노치 못하지요

밤에야 해만지면 깜깜한데 더구나『거저가저 간돈님』때문에어데 가가문을 여나요 지금이니 다 전등켜고 밤 열한시까지 가가를 열어노코하지요、돈내는것은 도중(都中)에 그저 일이십량씩 매년 내면 도중에서는 그것으로 비용을 써나가군햇지요

◇사진은 종로이정목에잇는 철남지물포 간판

鄕客威脅하고 白晝에强奪

現金三十圓을빼앗기고 本町警察署에哀訴

경북영덕군 창수면삼계동(蒼水面三溪洞) 남동화(南東化)는 상경한길 오후한시경성역에내려서 그근처 작희상에서 방하회한켜레를 사가지고「상점문밧게나가서 어떤사람·두명이 어데서 왓느냐고 물은후잘안내하여주마하고 남대문압 조선 신궁으로 가는길까지 데리고가서 도합마나 가젓느냐고하며 한사람은 그의주머니에서 도사십원을 끄내가지고 어대로 도망하고 남어지 한사람도 비호가티 어데로 자취를 감췃슴으로 그는 비로소 도적마진줄알고 소관본정경찰서에 보고하여왓다 본정서에서는 곳시내각서에 수배하는한편 범인을 엄탐중이다

氷上千五百米에 崔龍振君優勝

全日本學生選手權大會에서 新春●勝利의첫消息

【日光電話】신년벽두빙상제파의 첫소식으로 전일본대학급전문학교빙상선수권대회(全日本大學及專門學校氷上選手權大會)제일일은 이일오전팔시반부터 일광세미(日光細尾)링크에서 열린바 이날최룡진(崔龍振)(明大)군은일천오백미(千五百米)레─스에일본학생신긔록인 이분삼십이초이(二分三二秒二)의 우승하엿다 그외종목은 빙질관게로 부득이 명삼일정오부터 계속키로되엿다 (寫眞은 崔龍振君)

【千五百米決勝】▲1崔龍振(明大)二分三二秒八(日本學生新記錄)
▲2杉浦(早大)二分四四秒八
▲3張日斗(明大)二分四五秒
▲4朱鳳德(明大)二分四七秒九

運動競技

延專籠球部 昨夜戰地東京에

來六日부터 九日까지 東京에서열리는 世界올림픽豫選을兼한 綜合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는 延專籠球部一行은 監督李東奎氏引率下에 一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京城을떠나 戰地東京으로 出征하엿는데 驛頭에는 必勝을비는 同校職員을 비롯하야 體育關係者들의盛大한餞送이 잇서勇氣冲天한가운데出發하엿다

京城大帝大하키優勝

京城帝大아이스·하키팀一行은昨一日 日光細尾링크에서 열린第一回五帝大아이스·하키大會決勝戰에서 京城帝大軍과 對戰하야五對零으로 壓勝하야優勝하엿다

東洋拳鬪會猛練習

市內 東洋拳鬪會에서는 來十六日부터 十八日까지(三日間)에 열릴 世界올림픽拳鬪豫選大會를 압두고 今三日부터 二週間 午前七時부터 猛烈한 冒寒練習을 行할터이라한다

普專遠征軍大阪着

【大阪支局三十一日發電】明春一月三日부터 大阪花園球場에서열리는 第十一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及一月六日부터 東京에서열릴 世界올림픽蹴球豫選을兼한 全日本綜合蹴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는 普專軍一行은 元氣旺盛한가운데 三十一日午前六時二十分 大阪에到着한後 宿所인日本橋北詰道頓堀三國旅館에서 旅裝을풀엇는데 蹴球部一行은 이날午後十一時卄로大阪을떠나 東京으로向發하엿다

天氣豫報

高氣壓은 中國內陸과 國境中部에 잇서가지고 七七二미리를 보이며 日本方面은 氣壓이 낫고 日本海中部其他에도 微弱한 低氣壓이 잇다 滿洲와 朝鮮의 西海岸은 晴、東海岸과 南部와 日本은 흐리나 따뜻하다

豫報 今夜 京仁地方은 맑으나 잠시 흐리고 따뜻하다 明日 오늘밤과갓다

全鮮 同上

昨日最高	零下一度六
最低	零下一一度一
今朝最低	零下九度四
今日正午	零下二度四

라디오

一月二日(水曜)

◇午後六時 하─모니카二重奏와 獨奏 金坡圖 宋一九

◇同六時二五分 新年講話(政務總監、今井田淸德)

◇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二三日의새본」 라듸오、푸로이미─링 演出 朴珍 效果 西村眞太郞 班

◇同八時一〇分 洋樂 崔順山 效果 吳飛外

◇同八時四〇分 流行歌 崔貞子 伴奏 JODK管絃團 喜劇

◇同九時一〇分 猶太의大戰 黃材景

一月三日(金曜)

◇午後〇時五〇分 맨돌린合奏 一、今日의깃븜─武井守成作曲 二、(가)凱旋行進曲─(나)土耳其行進曲모차르트作曲(다)베토벤作曲 三、(가)거리에들리는行列과노래(朝鮮民謠)(나)新春에게 高橋功作曲 四、(다)新春의노래…라코로作曲 歡喜의舞曲…마스테리作曲 指揮 高橋功 맨돌린·양상룡

◇同一時二〇分 唱劇調 一、唱劇調 沈淸歌中 竹枝芒鞋 沈彰士눈뜨는대 鼓手 韓成俊

◇同一時四〇分 童話劇 레코─드 設樂

◇同六時 童話劇 全二景 配役

◇同六時二五分 新年의展望(二) 總督府事務官 金大羽

로빈(靑年가람되서 내아이)……사니코라스(로빈의男동생)……타(乳母)……老紳士……下女 京城 어린이 放送 效果 金洛 作奏 李 指揮 金虎

◇七時三〇分 라듸오·스켓취 申不出

◇同八時 俗曲 一、山念佛 二、青春歌 三、방아打령 四、도라지打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洋琴 高潤 笑琴 崔讚 細笛 高德九

◇同八時二五分 農夫歌外 一、花草四百里 二、六字백이 三、農夫歌 吳太石 丁貞蘭 申海香 朴濬

◇同八時五五分 管絃樂 빼이올린協奏曲 第七番 D長調 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모레라─토 第二樂章、안단테 第三樂章、론도·알레그로 바이올린 諏訪根自子 新交響樂團 指揮 기알레키·산다·모레프스기

曆

一月三日(金) 十二月健己丑(小)初九日 甲申·水·鬼·成

●祭祀移徒上樑辰時安葬에宜吉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異次頓의死 【72】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인제 다 왓소』

하고 늙은 중은 내려 달라고 다리를 버둥 거렷다。이차돈은 늙은 중을 퇴에 나려노앗다。

밤새도록 한잠도 못자고 치홈을 하고 이십리나 넘는 눈ㅅ길에 늙은 중을 업고온 이차돈은 몸이 노곤하고 배가 고팟다。

이차돈이 한숨을 쉬고이마에 땀을 씻는것을보고 늙은 중은、

『젊은 사람이 무얼그러노?』

하고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이늙은 몸은 방에 들어가누어잇슬테니 방에 불도때고 시장하거든 밥도 지어먹으라구』

하고 방으로 들어가버리고만다。

암자에는 사람 하나업고 눈은 뜰에 싸힐대로 싸혓다。

『흥、인제는 불까지 때어라、밥까지 지어라?』

하고 이차돈은 평생에 처음당하는 일에 분하고 괘씸하기는 하엿지마는 그래도 별수가업섯다。늙은것을 칼질을 할수도업고──。

이차돈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을 차저서 물을 길어다가 솟헤 쌀과 물을 두고 끌혓다。죽도 아니오 밥도 아닌것이 되엇다。

이차돈은 그것을 밥ㅅ대에 퍼가지고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는 늙은 중을 깨웟다。

늙은 중은 눈을 번쩍 뜨며、

『으흥 등이 뜻뜻해와서 한참단 잠이 드는것을 깨운담』

하고 이차돈을 보고 소리를 진렷다。

이차돈이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섯는 차에 늙은 중은 더러는 타고 더러는 설고 죽도 아니오 밥도 아닌것을 한 입떠넛터니 퉤하고 이차돈의 면상을 향하고 뱉으며、

『이게 밥이야? 나ㅅ살을 그만큼 처 먹은 놈이 이따위로 밥을 지어?』

하고 또 소리를 짜른다。

이차돈은 분을 참지못하야 허리에 찬 칼을 쭉 빼어들엇다。

『아모리 참으랴도 참을수업는 괘씸한 늙은것!다얼어죽은것을 수십리를 업어다 주엇드니 고마운줄을 알엇든、사람을 몰라보고 가초가초 버릇업는 소리! 그 늙은 목아지에는 칼이 들어갈줄을 모르는가』

하고 칼을 들어 늙은 중을 치려하엿다。

그때에 늙은 중은、벌덕 일어나며、

『어린것이 버릇업이 늙은이를 보고、불공한 말을 할도 용서치못하려든、하물며 피ㅅ비린내나는 칼을 들어 어른을 겨누어?』

하고 벽에 기대어 세웟던 주장을 들어 이차돈의 머리를따린다。

이차돈은 아피 아뜩함을 깨달앗다。이차돈의 손에 들엇던 칼은 힘업시 뗑그렁하고 방ㅅ바닥에 떨어젓다。칼은 싸욱아비 백명이 한꺼번에 대드러도 깟닥 업슬 이차돈이 칼한번 써보지못하고 늙은 중의 주장으로 정백이를 어더마젓다는것은 아모리 생각하여도 밋기우지안는 일이엇다。

이차돈은 가까수로 눈을 떠서 늙은 중을 보앗다。중은 어느새에 손에 염주를 들고 눈을 감고 입을 ㅅ물우물하고 염불을 하고 잇섯다。

『그러면 이것은 꿈이던가。내가 늙은 중에게 주장으로 어더맛고 손에 들엇던 칼─저본일업는 칼을 땅에 떨어터린것은 꿈인가』

하고 이차돈은 저를 의심하엿다。그러나 눈압페는 뗑그렁하고 떨어진채로 힘업시 누어잇는칼이 잇지아니하냐。

『아마 이 늙은 중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로다。겻흘만으로보더라도 이몸보다는 큰선생님』

이차돈은 이러케 생각하엿다

이때에 늙은 중은 염불을그치고 소리를 놉혀、느리게 엄숙하게、

『자비중생(慈悲衆生)』

『유화인욕(柔和忍辱)』

『관일체법공(觀一切法空)』

을 노래 모양으로 세번 불럿다。처번에는 무슨 소린줄 몰랏스나 두번째、세번째에는 이차돈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앗다。

늙은 중은 이것을 볼기를 그치고 눈을 번쩍 뜨며、

『이차돈아!』

하고 불렷다。

旅行中欠禮
申錫雨

恭賀新年

有賀光豊

京城府貫鐵洞六五番地
金顯濟

伊達四雄

京城
中華料理組合所

朝鮮信託株式會社
谷多喜磨

京城府仁寺洞二〇七番地
オフセット印刷
プロセス印刷
石版印刷
安田商會
電話光化門一一五二番
振替京城一四八二九番

朝鮮金融組合聯合會
京畿道支部
京畿道內各金融組合

朝鮮火災保險株式會社
社長 石川登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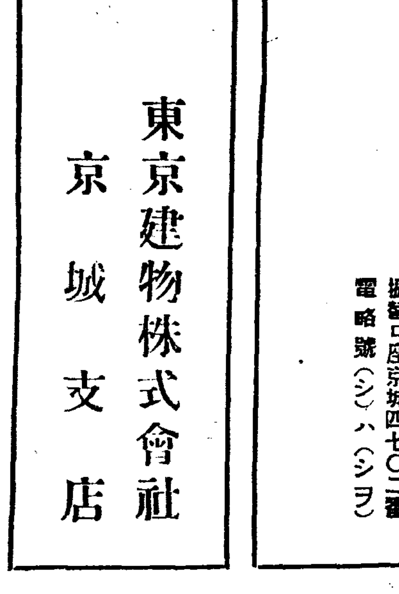
キリンビール株式會社京城支店

新田ベニヤ板代理店
京城府西大門二丁目九拾壹番地
北滿材 內地材 鴨綠江材 ベニヤ板 各種材木
鹽津材木店
電話光化門二〇六一番
振替口座京城四七〇二番
電略號(シ)ハ(シヲ)

朝鮮麥酒株式會社
支配人

東京建物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鍾路二丁目二四
電光一八五七番



喪中欠禮
閔大植

敎育施設篇

工業都市咸興에는 工業校設置가急務

工業都市化에따라工業智識은 日常生活上必需條件

咸興 外的으로 長津赴戰兩江水電의豊富한 電力을가장 有利하게 供給바더 興南本宮等에 巨大한工場이 簇出하고잇스며 內的으로는 人口의大激增(年二割五分)으로 區域擴張市區大改正等을 必要로하는 必然的情勢에 노여잇는 所謂新興都市로서 第一指를 곱게되는 咸興이며 新興都市라면 반듯이 따르게되는 施設不備의 議論도 同時에 第一만히밧고잇는것이咸興이다 엇지府民들이 한時間만 施設을 要望하는 問題가한두가지라! 그러나 새삼스러히 丙子年頭에서서 이數만흔 施設을 단숨에모다 부르짓는것도無理라고 생각지안흘수 업스니 爲先 諸懸案가운데서도 가장 緊急하고 六萬府民의 熱望의소리가 第一놉흔 問題만 記하려한다

上述한바와가튼 現勢로서 咸興은 漸次 工業都市로서의 形態를 가추고잇는 一方 從來단지 商業都市로서의 面目을 漸漸變하고잇다 比較的 低廉히 供給바들수잇는電力은 市內外에 小規模의 工場의 産出을 必然으로한게되여 數年前까지 極히沈着하고 靜然하던 都市 咸興이 急激히 增加한 發動機의 騷音으로 府民들의 頭痛거리가하나 더 늘게된것도 決코 偶然한일이 아니다 이러한 現象으로 府民들의生活形態도 自然 工業都市로서의 制約을밧게되여 上下各府에서 工業知識의必要로 切實이 늣기게될수밧게업다。卽 工業學校(中等程度)를設置하여 府民의 子弟로하여금 가장 普遍的으로 工業에 對한 一般的知識을 注入식혀서 直接自手로工場을 經營한다던지 그러치안흐면 남이 經營하는工場에서 職을 엇게되다고하더라도 工業에서 어드을수잇는福利를 우리도 함께바들수잇도록하여야한다는結論가 極히 놉허지고잇는것이다。이러한客觀的情勢로서工業學校設置如何는 벌서 府民의 生活根據을 左右할만큼한 重大한 그리고 切迫한 問題로되여버렷다 그리고 이問題를 다시 敎育方面으로 보더래도 關北의中心都市라고 할수잇는 咸興에 現在잇는 中等程度의 學校라고는겨우 高普 實業學校 四個校밧게 업는 現狀으로서 每年北朝鮮各地에서 모여오는 各學校에 入學志願者는 五、六倍乃至 十餘倍의 定員超過를 일우워서 激烈한 受驗地獄은 어린사람들의心身에 주는惡影響은 勿論 멀리外地에까지 遊學을 갈수밧게업는 合으로 그로因한 經濟的 損失도 如干莫大한것이 아니다 이러한여러가지 理由로서도 中等程度의 學校하나를 더設置하여야할 必要가 넘넘히짐작할것이나 하물며 우에서말한바와가튼 緊迫된 情勢에 노여잇는 咸興으로서 엇지 工業學校設置가 必要치안흘것이며 焦眉의 緊急한 問題가아니랴! 咸興의 人士여! 지나간해는 이미말할것이업거니와 希望과 萬福을가득실고올 새해丙子年頭에 爲先 工業學校設立 運動에 邁進할것을 굿게約束하라 그리고當局의 深甚한 考慮도 아울러바라는 배다。(咸興支局一記者)

學校의外飾보다 內容擴充이急務

當局者의一考를促함

光州 輓近 朝鮮全道에는 外來財閥의 急激한 進出로 하야 굿게 地下에 무처잇든 天然의 資庫는 남김업시열리게되여 産業各部門自體로보아서는 무서운 形勢로 發展을 보이고잇는 것은勢모下의 嚴然한 事實이다 보라! 우리光州 地方만보아도 鐘紡製絲를비롯하야 工場을大規模의鐘紡製絲工場 若林製絲工場이 出現되며 織造製絲製糖機等中小工場이 꼬리를물고 일어난다 大光州의都市計劃이 始作하자마자世界的으로도 有名한 鐘淵紡績會社의 三千名의 食堂이라고 自稱하는 大工場은 六百萬圓이라한資本으로 光州西端의沃地 十五萬坪에 자리를잡고 나타낫다 이곳에서 피땀을 흘리는 勞働者만 勿慮三千名에달한다 그러므로 山間農村에서살려고하여도 살수업는 貧民大群은 하로에 幾十錢의 賃金이라도 엇기爲하야 모여든다 그리고 其他各府에서 이 潮水가티 밀려들고 잇다 따라서 光州의 人口는 日加月增으로 增加하고 잇슴에따라 學齡兒童의數도 年復年增加를 보이고잇다 中等校는 姑捨하고 初等校부터 入學難의 씀아린 經驗을 하게되여 자라나는 어린마음에커다란傷處를 주게되는것은 實로 悲慘事라고아니할수업다 現在의初等學校收容力은 學齡兒童의 三、四〇%밧게는되지못할것이니 이對策에 關하야熟考가잇서야할것은 勿論이다 吾人은 안이一般光州社會에서 그對策에는 여러가지 方法이잇겟스나 吾人은第一當校新築費로 拾數萬圓의 巨額을 投하여 華麗하고宏大한 建物과 完全한 設備도 單只 三一%에不過하는兒童만 收容하고六九%의 兒童들은 어린가삼에 落第라는 못을박게하는것보다 建物과 設備는多少자랑할만츰되지못한다할지라도 學級를 增加한다든가 學校를 增設하여 學齡兒童을 모조리 收容케하는것이 最善의 良策이며반드시 그러케 하여야 할것이라고생각한다 新年을마지하면서當局者의 一考를바라는바이다 (光州支局 一記者)

學齡兒童增加하나 敎育機關은縮少

後援機關結成이急務

裡里 는湖南의 第一關門으로서 날노 發展에 發展을 加하여가는 新興都市이다 往昔에는 一寒村에지나지못하든 곳으로 其後 湖南線鐵道가 開通되자 비로소裡里란 이곳이 세상에 알려지기 始作되여가지고 今日에는 全北의要地이며 湖南의 第一關門임과 同時에戶數四千戶에 總人口三萬이라는 飛躍的數字를 보여주고잇슴은 實로 놀나지안할수업슬것이다 날노 人口가 激增되여감을따라 學齡兒童의 增加도 勿論할것이며 三千里彷彷谷谷에서 다가티 빠처나오는 向學熱이 時時刻刻으로 澎湃되는 一便으로 裡里에 잇서도 해마다 一般의 向學熱이 澎湃되여 가는 途程에잇다 그런데 一般學齡兒童을 모조리 收容하기 爲해서는 所謂敎育機關을 增設하여야할터인데도不拘하고 도리혀縮少하고잇는것은 現在裡里社會에서만 볼수잇는 敎育界의 現狀일것이다 前에 私立光熙女學校가 잇서가지고 女子敎育에 相當한 功獻이 잇섯스나 維持困難이라는 悲慘經濟破滅의過程에잇슴이라고 할런지도 알수업다 그러나 도르켜서한번다시 生覺하여본다면 裡里敎育發展問題에 對하야 前日부터 一般的으로 討議할만한 엇더한 機關이따로 서잇지를못하엿든것이 그의 큰原因이라고 볼수잇다 一例를들어 말한다면 年前全北女子高等普通學校位置問題에 失敗를 當한것도 이러한 機關이 서잇지를 못햇기때문이다 至今에 過去는 莫論할지라도 不遠한 將來에 逢着될 一大問題가 하나 닥처오고잇스니 그것은 卽 裡里第二普通學校問題인것이며 其他에도 普通學校를 擴張하고 上級學校에 就學치못하는 사람 또는 배우지를 못하는 一街路에서 彷徨하는 青少年들의 指導等을 爲하야 裡里人士諸氏는 하로라도 裡里敎育問題에 對하야 一般的으로 討議할수잇는 機關을 세우기를바라는바이다 或者는 말하기를 現在裡里公普校後援會가 잇스니 거기에서 討議할수잇다는 말도 有하나 그는不當한말이니 엇지學校後援會면 一學校나 後援해지 一般的으로 敎育問題를 論議할수잇스랴? 裡里人士諸氏에게 付託하노니 裡里敎育協會라든가 또는 엇더한 名稱下에서든지 後援工作으로서의 一機關을 設置하야 닥처오는 第二公普를 爲始하야 敎育機關에對한 모든問題를 解決할 機關을만들기를 바라는바이다(裡里支局朴春)

學級增設急務

入學難緩和엔 定平人士에告!

定平 定平郡一面은 一面一校制가 거이完成되엿스나 이것으로 年年히增加하여가는學齡兒童의全部를 收容하기에는 아직도不足함은 事實일것이다 따라서 이問題의 解決方法으로는 이地方事情으로보아 初等學校의 增設은 밋지못할現實이므로 旣設인 定平公普校學級增設이 爲先急務中의하나이다 新年劈頭에際하야 敎育問題에關하야 定平有志諸氏에게 一言을 告코자 하는바이다 有志人士여! 우리地方에잇서 定平公普校 學級增設論이 얼마나緊急하다는것은 우리가周知하고 잇는바가 아닌가?每年四月이면 入學難으로 배우려하여도 배우지못하고 街頭에서 彷徨하는 兒童이얼마나만흔가를 우리는 보지안는가 定平의有志諸氏여! 배울길업서 헤매는 兒童들을爲하야 奮起하자! 私財를 希捨하여 學級增設을 圖할 有志는업는가? 決코업는것은아니다! 要는誠意如何에잇는것이다 新年을마지하여 學級增設의 實現을 希望한다 有志諸氏여! 奮起하자 (定平支局 一記者)

竹史李應魯氏試筆

忠南의寶庫論山에 農校設立을促進

地方人士의奮起待望

論山 現下 朝鮮農村의 疲弊는 其極에 達하엿다 農民들은 먹을것이 업고 입을것이 업서서 生死線上에 彷徨하고 잇다 此를 救濟하기爲하야 爲政者들은 自力更生과 農村振興을 絶叫하고 잇다 「그러나 農村振興을 입으로만 絶叫하고 具體的振興策을 講究치안이하면 何等所用이업다 要컨대 農村의 振興은 農業의 向上發達은 農民들을 指導할만한 中堅人物의 養成에잇다 그럼에도不拘하고 當地에는 아즉 中堅人物을 養成할만한 農業學校하나도 設置를 보지못함은 엇지 遺憾이아니리오 더구나 當地는 約二萬町步의 耕地를 有한忠南의寶庫로서 千今것 相當한 農業學校가업슴은 엇지 地方의 大缺陷大羞恥가아니리오 過般 識者間에 農校設置의 議論이 잇섯스나 經費關係로 進捗이 되지못하고 잇는듯하다 近來에 女流篤志家로 全財産을 기우려서 學校를設立하엿다는 壯擧도 種種 新聞紙上에 報道되는바어니와 當地에도 그만한 財産家가 업는것도 아닌즉 맛당히 社會奉公의 大決心으로 自進奮發하야 完全히 農業學校를 設立하도록 新春부터 구든 決心이 잇기를切實히 바라는바다。(論山支局一記者)

一面一校完成이나 就學難依然深刻

龜城人士의奮起促成

龜城 昨年新年劈頭에 吾人은 提唱한 우리地方當面問題는 가장要緊且 重要한것만 몃가지드려 論及한바 잇섯드니 一九三五年이다 저므든날에 겨우 共同沐浴湯이 面의 補助를어더가지고 湯屋新築을 竣工하엿슬뿐으로 아직 開湯도못하고잇는것이 一年間의 龜城의 緊急問題實現의 總結果이다。가장重要하든 公會堂建築、幼稚園設置兩問題는 所謂 地方志士의입에 올으기나하엿슬는지 吾人은 此問題의 公論化하려든 氣味도 보지못하고 듯지못한것이 永遠히가는 乙亥年과가티 섭섭이 늣겨지는 가슴아픈問題의하나이다。

이미 昨年의 當面問題를 解決치못하고 다시 새해의 當面問題를 論하는것은 너무나 어리석은일이며 空論에지나지 못할것가트나 宿案의實現을 前提로하고 다시 希望과幸福을 가득실고오는 丙子年을 마지함에 새로운 우리地方의 重要問題를 論하지안흘수업스며 提唱치안흘수업다。

今年四月로 所謂 一面一校制實現을 보게되엿스나 簡易學校도 二校나 設置되여 龜城郡內의 初等敎育機關은 잘完備되엿다고 滿足히녁이는 者도 잇슬넌지 몰으지만 해마다 學齡兒童의 超過를 보고잇는 아름답지 못한 現狀을 目睹하는사람이야 누구라 愁眉를풀고 滿足한 우슴을웃을수잇스랴 義務敎育의 實施를보기 前에는 더新校設置를希望할배도 못되지만 일이 旣設된 學校의 學級增設이야 그리힘들것이 무엇이며 躊躇할것이 무엇이랴!

龜城、方峴、舘西、沙器四普校는 龜城에서 第一오랜 學校로 겨우六學級에 四五百名의 兒童을 收容할뿐으로 每年新學期면 넘치고 또넘치는 向學熱에불타는 學齡兒童의沙汰를 눈물먹음고 내미러버리는 悲慘한光景은 참아 보지못할慘景이다。四校가 全部해마다 學級增設을 부르짓고 希望하고 잇스나 아직도 힘의 不足인지 道當局의 等閑인지 一校도 單一學級의 增設조차 보지못함은 매우 痛嘆할배며 가슴아픈일이다。그러나 吾人은 그저閑坐하여 慨嘆만 할것이 아니라고본다。좀더 그地方人士가 熱과誠을내여 實現案을 가지고 猛烈히 運動하고 힘을쓴다면 아무리 地方問題를 輕忽視하고 等閑視하는 當局일지라도 반드시 귀를 기우리고 認可의曙光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學級增設의 第一緊急한 이四校中에 單二校에 二學級이라도 今年에는 꼭 實現이잇기를바란다。이것은 오직 學校當局에 잇는것도아니요 卽 道當局의힘에잇는것도 아니오 오즉 該地方人士의 뜨거운정성과 굿센 힘에잇는것이라고 보는바이니 배우라도배울곳이업서 道路에서 彷徨하고잇는 우리어린이들의 가련한 정상과 애처러운마음을 살피여 今年에는 모든일을 제처놋코도 이旣設學校의 學級增設만은 꼭實現식히도록하자!

그리고 農村學院設置、長期夜學校設置、改良書堂維持를 모든補助機關으로 못배와우는 우리어린이敎育機關擴充에 邁進努力하자! (龜城支局 一記者)

幼稚園設立에 좀더奮發하자

舒川 舒川邑은 戶數가 約七百戶요 郡廳所在地요、商店이 櫛比하며 經濟上으로나 一般施設로는 다른 小邑에比하야 別로 遜色이 업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 [illegible]年發育機關인 幼稚園하나를 못가젓다는것은 우리가 다가티 遺憾으로 생각하고잇는바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問題의 解決을 보지못하고잇는것은 經濟的問題도 크겟스나 그보다도 誠意如何에잇다고아니 할수업다 보라 아무리 우리의 經濟生活이 窮乏하다 할지라도 眞實로 誠意만잇다면 큰學校는 또 몰라도 幼稚園한나쯤이야 엇지 設立치못할까?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犧牲이 업시는조흔成果를 엇지못하는것은古今이 일반이다 舒川有志人士들이여!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좀더우리地方을 爲하야 熱誠을 다하야 마지하는 새해에는 요만한 所願가지라도 達成하게 하기를 바란다 (舒川支局一記者)

가라치자 鎭興人士여!

鎭興 人間社會에잇서서 無智처럼 羞恥가 업고不幸은업다 그럼으로써 眞正한 生活을하기위하야는 배와야하고 아는것이힘이다 無智는 不幸은 낫는다함은 先哲은말하엿다 果然 그럿다 無智覺한人間처럼 不幸은 업다 그래도都市사람들은 姓名三字나 쓸줄아는사람이만흐나 農村은 十의八九割이나 文盲이다 이얼마나 그들農民의不幸이라 그들의살길은 農村밧게업다 그러므로 農村問題는 우리에게 가장重大한바만커니와 그중에서도 文盲退治問題가 다른것에 지지안으리만큼時急한 問題이라 하겟다 弱肉强食의 今日에 잇서서 生存競爭의 武器는 智識開發에 잇다 寸分寸刻이라도 갈업는 歲月은 보내지말고 「ㄱ」「ㄴ」이라도 배움에 努力하고 배와주기에 熱誠을 다하자! 農夫가엇지 秋收만으로 묘하다하리요 坊坊谷谷에 夜學을 設立하고 新智識을 배우자! 배우는 場所는 舍廊房도조코 이웃집內室도 조타 아는대로 배와주고 오는대로 가르키자! 그리하야 寒村農村에 글소리로 開拓하고 困窮한茅屋에도 글읽는 曙光을 비취여주자! 未來의 社會는 智識이업스면 生存競爭에 淘汰될 不幸한 人間이될것이니 無智한人間은 배워야하고 自覺하여야산다 農村의 인테리諸君이여! 總動員하야 奮起하야 文盲退治의 旗幟를들자!-(鎭興支局一記者)

賀正

여러분新年의幸福을祝賀하나이다

去年에는 絶大한愛顧에依하야 非常한人氣와 多大한 好評을밧고잇는것은 다시업는榮光으로 生覺합니다

過歲安寧히 하시엿슴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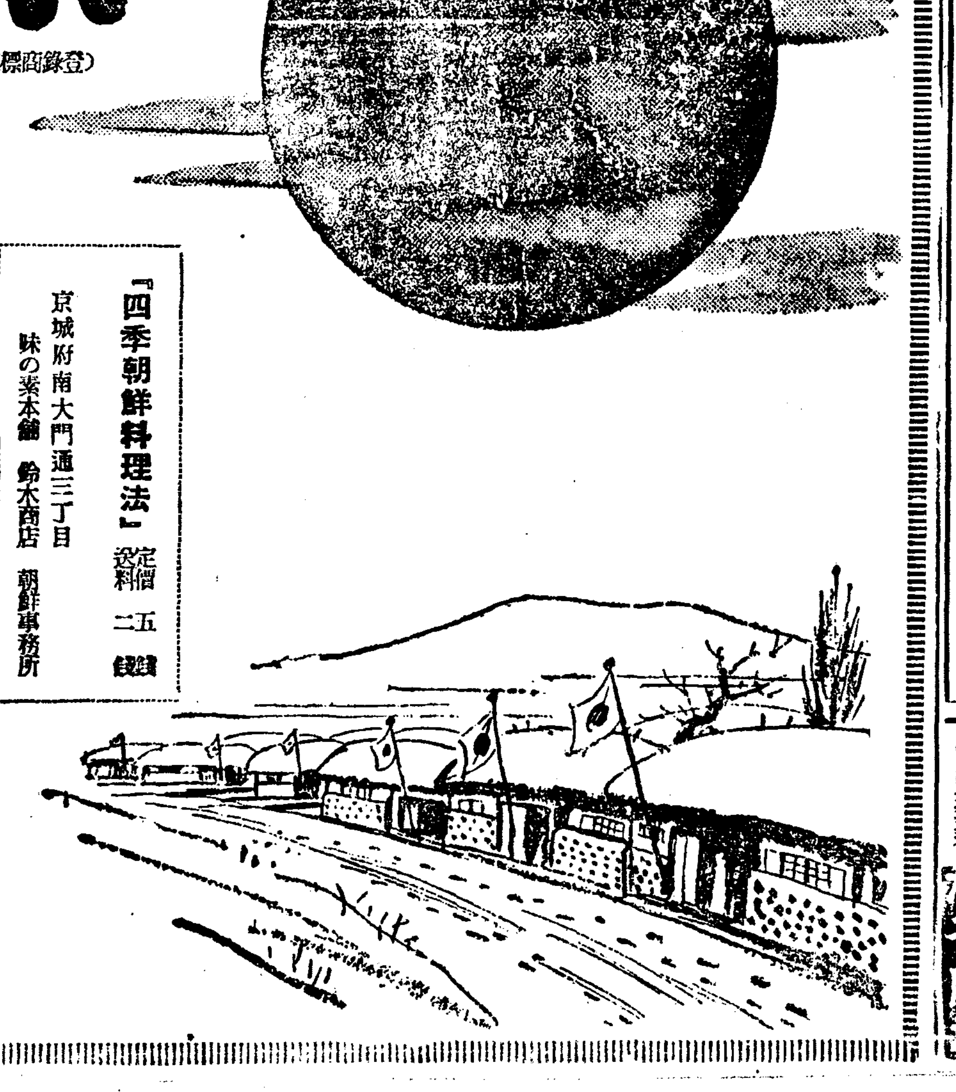
더욱今年도變치마시고 三中井의微意를嘉納하여주시와倍舊의 用命을하여주시면 多幸千萬일가합니다

三中井洋服部

賀正

금년에도 변치마시고 아지노모도를 애용하심을 바랍니다

味の素(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四季朝鮮料理法」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天下一品

萬

キッコーマン醬油

謹賀新年

キッコーマンの本第一으로마지하는우리집新春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A―3

母校總長荷汀閔泳徽先生께서 宿患으로 靡寧하시든中 去十二月三十一日午前九時薨去하시엿삽기 玆에 訃告함

發靷 日時 昭和十一年一月六日午前八時三十分 場所 京城府寬勳洞自邸

永訣式 日時 昭和十一年一月六日午前九時三十分 場所 母校庭

葬地 江原春川郡東面[illegible]里

下棺日時 昭和十一年一月七日午前十一時

昭和十一年一月一日

徽文校友會 白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正月一日낫부터三回始映 最大尺으로今週만午前十一時부터 入場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均一

東西三大유ー모아大傑作篇 … 新作 世界的爆笑篇二大巨匠活劇

하리ㅡ드바ー레이 日本版

二人의征服的人氣競爭大冒險活劇

監督우리암에ー사이다

極樂發展俱樂部

松竹키네마社滿日超特作現代青春 謳歌スポーツ劇 原作藤代千里清水宏監督作品

學生街의花形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四

十二月卅日부터忘年朝鮮映畵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京키네마社超特作品 守一과順愛 全八卷 監督 李龜永氏 主演 李慶善氏 金蓮實孃

綠星키네마社超大作品 社會劇 바다와싸우는사람들 監督 梁哲氏 主演 羅雄氏 朴齊行氏

파라마운트社特作品 喜劇 結婚商賣 全六卷 監督 후랑크 다울氏 主演 아돌푸 만쥬氏

麻浦桃花洞 電龍山三三三番 桃花劇場

謹賀新年

醴泉

醴泉官公署一同

醴泉永泉商會 主務 黃善周 電話二三番

和洋料理 芙蓉館

布木商 黃錫龍 同支店 黃周龍

羅貨卸商 朴雲洙 電話三九番

醴泉酒造株式會社 電話四六番

醴泉痰藥製造本舖 醴泉邑 日新堂藥房 振替京城一二〇六七番 私書函第十一號

和信連鎖店 文化屋第二店 電話六五番

永光寫眞館 艮英會

中央病院 李重鼓 電話三一番

龍門面職員一同

醴泉麯子製造組合 電話八番

朝鮮慶北線醴泉 肥料官鹽 材木葉 直輸入卸 安成商會 電話二四番・電略（〇ア）又八（アセ）

和洋料理 太平館

道會議員 金碩熙

廿泉公立普通學校 評議員 林世潤

貿易商 黃喆周 電話一九番

普門面職員一同

廿泉面職員一同

開浦面職員一同

豊壤面職員一同

豊壤面 黃金山釜山 黃吳谷 德恒重 基觀利

洛上酒造場 李浩根

三光自轉車店 韓相一 韓相德

稷山酒造場 禹仁世

日新旅館 權重徹

株式會社大邱商工銀行醴泉支店 電話二三番

鄭寅鶴 電話五八番

慶北印刷所 金斗永 金炳

醴泉面 協議會員 金炆鍾

醴泉面 協議會員 黃德海

慶北醴泉邑 醴泉蔘業組合 組合長 尹政熙 理事 朴挙洙

虎鳴面職員一同

和洋料理 泉家 岸川タミ 電話一四番

知保面職員一同

榮豐翔館 橋大大鎮 改名 大郎

第一洋服店 黃斗勳

下里面職員一同

㊊何主運輸組

四支堂時計店

龍宮寫眞館

豊壤公立普通學校 校長 島崎聖貴

愛泉酒造場 鄭丸談

廿泉酒造場 權奇晋

廿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龍宮市 權守鳳

虎鳴酒造場 崔致文

慶北醴泉 回生堂藥房 電話五六番 振替釜山七三一九番

宜鎬辰

松屋商店 電話三三番

和洋料理 南城食道園

上金谷洞 朴魯鑽

上金谷 金鳳奎

上金谷廣濟藥房 金世圭

荒莘世堂藥房 金大煥

甘泉市 朴鎭鉉

虎鳴公立普通學校 評議員 李寅植

普濟藥房 黃永海

穀物商 朴湘鳳 電話一七番

泉一商店 鄭達洙

布木商 安炳俊

米穀商 張道根

布木商 金炳周

最新洋服店 權宇河

司法書士 金濟東

泉一洋靴店 張順海

醸造雜貨商 韓相直

布木商 仁生德

富源洋服店 黃柄寶

司法書士 朴英鎭

龍宮面大隱 尹載鉉

龍宮邑竹防 權赫夏

龍宮面職員一同

柳川面職員一同

春日堂藥局 李衡杰

中坪酒造場 尹泰義

德溪酒造場 尹重鉉

柳川酒造場 趙秉郁

上里面沙谷 朴贊季

下里酒造場 權兌燮

龍宮面 協議會員 金明顯

開浦酒造場 權五煥

首谷酒造場 尹世熙

增巨酒造場 李潤柱

龍門酒造場 朴贊文

內地酒造場 孫永裕

大箭酒造場 金淳基

龍宮面 協議會員 金熙培

龍宮酒造場 權五德

龍門外公立普通學校 校長 山本京助 職員一同

虎鳴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外下里明美堂 南炳台

司法書士 具滋益

殷豊公立普通學校 校長 米田重雄

普門面 協議會員 宋競欽

二華木工場 李開日

穀物商 黃永德

柳川公立普通學校 校長 安野恒治

天主教宣教師 神父 李基順

京津酒造場 朴義祥

漁村酒造場 李海洙

知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上里面職員一同

豊壤市 同春醫院 金在學

雜貨商 黃鎭彦 電話一五番

龍門面 協議會員 朴奎洙

龍宮市 金玉謙

李雲穆 電話一九番

龍宮市 尹洪植

裡里

裡里 漢城館 電話五一番

八峰面事務所 熊浦面事務所 郎山面事務所 北一面事務所 皇華面事務所 三箕面事務所

春浦面事務所 龍安面事務所 咸悅面事務所 成纖面事務所 礪山面事務所

裡里 百貨 裡里 和信連鎖店 電話三六一番

全北裡里京町一四四番地 全北鐵工場 吳行龍 梁準容 今般工場擴張機械新購入諸設完全

裡里京町 三山醫院長 金炳洙 電話三〇九番

裡里 金達默

裡里邑事務所 副邑長 崔斗源 朴達俊 李基煥 鄭仁燮 邑書記 丁奎晟 崔公賢 申敎彝 柳十烈 崔益圭

裡里公立農林學校 職員一同

裡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裡里郵便局

益山郡守 吉津五郎

東津水利組合長 齊藤竹次郎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 益山代理店 宗南自轉車商會 主 李鍾永 裡里邑榮町 電話三五七番

裡里驛前 米穀 雜穀 各種肥料 宋榮九商店 電話二五三番

裡里邑日出町 山陽機械商會 益山郡八峰面協議員 吳時泳

裡里邑本町 米穀 肥料 東亞商會

裡里邑榮町 機械 石油 揮發油 發動機 昭和商會出張所 鞠重董 電話取次三三九番

裡里驛前 裡里旅館 金貞淑

裡里榮町二丁目三三 裡里洋服店 金炳倫

裡里邑日出町一五六 司法代書士 林奭熙

裡里榮町二丁目 正時堂時計店 柳英敏 電話二二二番

裡里 朝鮮料理 嶺南館 電話三七七番

全北益山郡黃登面黃登里 全北道會議員 朴智根

裡里三十日會

裡里米穀商組合 組合員一同

裡里邑本町 絹布商 吳鍾皓 電話二二八番

益山郡春浦面信洞 姜祥熙 姜正熙 姜斗熙

裡里邑南中町 天一ゴム裡里工場 電話三六八番

裡里邑本町 絹布商 吳台煥 電話一五一番

裡里榮町二丁目 光州食堂 電話三〇七番

裡里本町一의八八 山海館

全北裡里京町 印刷 文具 活文堂 蔡奎煥 電話三七五番

裡里邑 富農總 李源鎔

裡里邑本町一丁目 安定熙

裡里榮町 天光堂時計店 金鍾敦

裡里邑本町一丁目（前不二絨物舖） コントロール裁縫機械代理店 主任 崔玟煥

裡里 吳鍾憲

湖南線裡里京町六六四 文化洋服店 趙金熙

路下

益山郡礪山面礪山里 公醫 朴鳳圭

益山郡五山面新池里 金昌順

裡里 金顯昇

裡里邑水道 主任 禹夏榮

裡里 柳重哲

裡里榮町 技術本位 寫場完備 海星寫眞館 技師 崔海星

裡里 金英基

裡里邑榮町 絹布商 吳龍根 電話一二三番

裡里京町 白山酒造場 全聖雄 電話二二一番

裡里京町 全北硝子店 金容和 電話二五六番

裡里邑榮町八四 林向英

益山郡熊浦公立普通學校 校長 蘇秉寬

益山郡皇華面合仙 尹圻重

益山郡金馬面箕陽里 趙仁元

益山郡咸羅面咸悅里 趙容圭

益山郡咸羅面咸悅里 金炳順

益山郡春浦面仁壽里 金炯燮

益山郡三箕面 沈元澤

東面面長 田英模

三合精米所路下支店

春山館

美容院驛前 金俊植

美容院驛前月城里 文明玉

美容院驛前 賓星 權永斗

美容院驛前 白鶴文化堂 主 李鳳鎬

美容院前 朝鮮商店 主 尹壽炳

益山郡皇華面鳳洞 金文煥

金堤郡 白鶴面長 金演植

益山郡皇華面麻田里 朴東來

益山郡龍安面德龍里 金完圭

益山郡龍安面興旺里 李鍾和

益山郡龍安面大鳥里 金永煥

湖南線咸悅驛前 公醫 金德鎭

益山郡春浦面大場村 洪鍾柱

益山郡王宮面東龍里 宋炳台

裡里日之出町 李煥集

裡里邑本町 李二星

裡里邑本町 漢藥種商 鄭憲仲

益山郡北一面事務所 崔昱烈 崔圭夏

益山郡龍安面 黃河宗

益山郡王宮面東龍里 宋炳泰

金堤郡白鷗面石潭里 金元駿

美容院前月城里 趙正植

路下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贊奎商店

無名氏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二

一步를잘못하면 第二次世界大戰!

【下】 咸尙勳

伊에戰爭과그波紋

◇ 이 最後的 爆彈通牒에 英國은 暫時 점잿하얏다。窮鼠噬猫 안할지도 모른다。英國의 本意는 伊太利와 干戈를 交하라함이 目的이 아니오。威脅으로써 討에工作을 中止시킴이다。그러므로 伊太利와 干戈를 交하는새에 均衡을 짓고잇는 歐洲에 이것을 깨치는 딴 異端者가 나거나 植民地에 反亂이 이러나면 그야말로 平地風波다。이미 埃及서는 獨立運動 이 이러나지안엇나。그뿐아니라 極東에서는 日中關係가 險惡하야 中國에對한 英國의 利權이 脅威되고잇다。또 軍縮會議서는 日本이 絶對自主的 軍備論을 主張하야 後日 如何한 事態가 생길지 모른다。이러하야 英國은 호어外相으로하야금 라발佛首相과 協議하야 所謂 伊에和協試案이란 것을 提出케하엿다。이것은 에國에 海港으로 나갈길을 주는 同時에 伊太利에 티그레一部를 割讓하며 伊太利의 干與미레 에國더러 被保護國이 되라는 伊에戰爭 勃發以前의 妥協試案이다。멧千萬의 軍隊가 殺戮되고 멧億의 財産을 戰火에 燒蕩하고 몃萬平方킬로메타의 領土와 人民이 伊軍征服下에 잇는데。戰爭勃發에 何等責任이 업는 에國더러 이가튼 和協을 하라함은 차라리 滅亡하야 奴隷가 되라하는것 以上의 酷言이다。실라시에皇帝가 聽許할 理가업다。또 아무리 正義가 蹂躪된 世界라할지라도 이것을 默從할 人類는 적다。聯盟加入國은 一齊히 反對를 이르키고 十八個國 理事會는 票決도 안코 그 試案을 埋葬해버렷다。이에 責任者의 進退問題가 생기지 안흘수가 업다。호어英外相이 물러스고 이든無任相이 들어서고 라발佛首相이 俎上에 올려노히게 되엇다。이리하야 伊에戰爭 乃至 英伊關係는 다시 緊張險惡化하엿다。

◇ 和協試案의 失敗와 英國內閣의 改造로 對伊制裁問題는 다시 復活하야 伊太利에 制裁를 繼續加重하느냐 다시 和協試案의 새로운것을 提示하야 伊에戰爭을 中止케하느냐 하는 問題로 되어왓다。和協試案이 失敗하얏스면 따라서 和協試案을 提示하자 하는것은 伊太利의 面目을 세워 伊太利로 하야금 自主的으로 和協하는것처럼 하자는 뜻이오、制裁를 加하자는것은

◇ 平和의攪亂者 伊太利에徹底한制裁를加하야伊太利로하야금 屈服코 戰爭을 中止케하자는 意見이다。그런데 호어英相의 和協案으로도 伊首相 뭇솔리니는 實意를 表하지 안헛거늘 또 이것보다 伊太利에 不利한 和協案을 提出함에랴。伊太利는 聯盟이 屈服하야 伊太利의 뜻대로 和協케하기를 妄想하고 잇지만 그야말로 무首相은 天下에 둘도 업는 獨尊主義者다。아무리 弱肉强食과 英雄主義를 妄信하고잇는 뭇솔리니로서니 英國과 聯盟諸國이 伊太利에 屈服할것을 어

지 안으리라고 누가斷言하랴。軍事的으로 보드래도 伊太利軍의 素質이 低劣인것은 새로운 和協試案을 기다리라는가。그러치 안호면 亡할바엔 남을 끌고 亡하려는 惡漢의 마 伊太利는 알며 自己의 墓穴을 파고 말것이 아닌가。

(寫眞은뭇솔리니伊首相)(終)

以堂金殷鎬氏試筆

[illegible]況·伊太利는 經濟的·政治的·軍事的、그리고 外交的 各方面으로 不利한 狀態에 잇슴이라。經濟的으로 伊太利는 富國이아니다。그러나도 最初六個月間은制裁를 바다도 堪當할 自信이잇다하얏다。그러나 그後의 經濟制裁와 아울러 經濟界에 미치는 影響은 極히 重大한것가터서 統制에 嚴重 且酷함을 極하얏다。積年의

赤字財政 과 入超는 一日三億리라의 討에戰事費를 쓰는 伊太利에 堪耐할바 아니다。況軍需工業의 第一原料인 石油、石炭、鐵等이 自國에서 거이 産出되지 못하는데에랴。

政治的으로 보드래도 파씨스트國家의 强點은 結束과 統制에 잇는데 아무리 統制、秩序를 嚴重한다 할지라도 國家가 滅亡에 드러감을 모르하고 盲從할 파씨스트黨員만 잇지안흘것이다。國民의 心理的 動搖及 不安은 파씨스트黨員에도 反映되

軍事專門家 의 一致한바다。게다가 今年一月부터는 다시 에에이 雨期로 드러가니 무엇으로써 에國을 征服하랴。그러지안어도 疫病、飮料水、天險에 헤매는 伊軍이라。伊軍의 前途는 絶對失望에 陷하야잇다。伊太利의 獨裁政治가 思想的 感情的으로 背馳되는英、佛、其他 自由主義國家가 이에 好意를 안가지고 잇는것은 볼드윈 英首相의 聲明의 裡面을 보아 알것이다。況 蘇聯가튼 社會主義國家에 잇서서랴。

◇ 이와가티 伊太利는 國內 國外로 重大한 危機에 臨하야 오즉 빼엿든 칼을 잡아 너치못하고 버리고 나가거니와 果然 伊首相은끗끗내그自尊心을保持하야

國內人民 을 飢寒과 壓迫에 모라너면서 最後의 滅亡을 自期할것인가。天來의 다시 올을 [illegible]하는것인가。英國의 地中海艦隊에 壓服的 講和를 하고 무氏의 存在價値가 어데잇는가。무氏는 講和의 그날로 그宰相의 榮位를 내노치 안흘수업다 이것을 생각하고 祖國의 滅亡을 생각치 안는 英雄 뭇솔리니는 戰死 第一、或은 第二의 길을 取할것이다。第一의 길은 그대로 堅守하는것이어니와 第二의 境遇는 世界를 다시 混亂에 導入하는것이다。獨逸에 墺國倂合 又는 其他의 割讓을 約束코 英佛을 攻擊하거나 英國植民地에 資金을 주어 叛亂運動을 이르키려하는 것이거나 이다。그러나 前者에 잇서서는 英佛等 聯盟國의 後援이 잇고 英國植民地는 에國의 侵略者인 伊太利를 밋지안는다。이리하야

의 그支持는 民政黨을 가지고 가장 重要한 要素로 삼고잇다 政友會의新組와 政友會에잇는 內閣支持者는 아즉政黨에 組織되지못하엿고 아즉 아미ー바形態를 脫却하지못하엿다 安達總裁가內審에 드러가기때문에 國民同盟도政府支持를 할것가리보이지만 이것조차脫黨者의 續出에依하야 至今은 交涉團體의資格까지일케되엇다 總選擧가되면 이러한 中間團體는 더욱縮少될傾向이잇다 一러기에總選擧의意味는 政友會나民政黨의어느것이勝利를占하는가 에잇고他小會派는問題도안된다 그런데 政友會가勝利하든지 民政黨이勝利하든지 政變이일어날氣運이生한다 府縣會議員의 選擧結果로보아도 現在의 政界一般豫想은 政友會의 勝利를豫想하고잇다 그것이 다만第一黨이될는지는 몰으지만 八分의絶對多數를占할는지 或은다 其當選數가 民政黨보다 만흐

非常時重壓下의 東京政局의趨移

總選前奏曲과 軍部의 動向

② 金麟伊

◇ 이와가치 議會劈頭에 解散을 斷行하는 與否에關하야는 政府部內의 意見이 統一되지못하엿다 그러나 民政黨은 解散을 主張하고잇다 그것은 議會를 解散하지아니하면 會期三個月에 亘하야 政府가 多數를 有한 政友會에 翻弄될것은 明白하다 會期後에 任期滿了가되야 總選擧가 오면 그選擧에서 準與黨인 民政黨은 [illegible] 政府를 辯護할 立場에 서게된다 그러케되면 民政黨은 自己들은 人心이 이미 떠러진政府와 情死를하게된다 이것보다는 몬저 빨리 議會를 解散하야 選擧를 다루는것이 民政黨의 利益일것이다。一方 政友會脫黨組는 議會劈頭에 解散이 되면 그들이 立場이 말이안된다 그들이將來의政界에 勢力을 維持할수잇는所以는 아즉도 政友會에 殘留한 그들의 同志가 그들과 行動을 가치할것가치 보이는希望이 잇기때문이다 그러나 議會劈頭에解散을 斷行하면 政友會를 脫黨團結식힌다 脫黨組의 同志는 政友會의 地盤에 依하야 當選한代議士이다 總選擧를 압두고는 至今까지는 脫黨하엿든 者도 故鄕의 地盤이 그리워 復黨하여오는 風習이存在하다 現在政友會에 黨籍을 有한者는 解散이 되면 더욱 其地盤에 粘着한다 그때문에 政友會脫黨組는 일즉 그들이 企圖한 新黨樹立計劃이나 政友會攪亂策도 今日에잇서서는 絶望狀態이다 新黨樹立計劃이 進捗되야 俱樂部組織으로 結合된다하여도 結局 交涉團體도못될것이다

◇ 政友會에서는 一時 久原房之助一派의指導下에國體明徵에關한決議案 或은總括的不信任案을가지고 解散을 招來할것가리보이엇다 그러나 此一派도 無理하게 이러한作戰에 나아가면 그들이 政友會의 大衆으로부터遊離될 危險이잇는것을 알고 近來 其運動을緩和한것이보인다 그럼으로 政友會의 大勢는 亦是이번議會中에는 解散을밧지안흘程度로政府를 翻弄하야其結果 議會를通하야 政府의無能이 더욱國民에게 暴露되야 따라서 오는總選擧에서 政府與黨인民政黨을 壓倒할수잇다는 意見에 기우러젓다 民政黨이 議會解散을 促進하는것이나 政友會가 解散을 迴避하는것이나 다 가치總選擧에서 勝利를 占하려는 黨略에서 나온것이다 政黨이 黨略에 左右된다면 무슨때문에의 總選擧인가를 其意味를 把握한것이라할수업다 總選擧에 便乘하야 自己의黨勢를維持하며 或은擴張하려는것뿐으로 이것을積朴으로하야 國政의改革 又는 躍進을 計圖하려는熱意를가진것이라고 볼수는업다 이러한틈에 끼이어서 解散하고 안하는것을 決定할것은 岡田首相이다 그意志가 어떠케 決定되어잇는지 알수업다 事實은아마 決定되야잇는것가지안라 結局 萬一議會에서 解散을必要로하는 事態가 惹起하면 解散하다는 漠然한 心境을가지고 議會에臨하야 會期終了할때까지 끌러갈 樣橫이나아닌가 何故오하면 岡田內閣뿐아니라 所謂擧國內閣의通有性으로 明白한 解散理由업시 議會를 解散한다는것은 平地에波瀾을 일으킬것이된다

◇ 政黨內閣이면 自己들이 政權을 獲得하여도 衆議院에서少數인境遇는 政府를할수업다그러기에 政策의 討議에 드러가기前에 몬저國民의 信任을 問하는意味에서 議會를 解散한다 이에反하야 官僚內閣은 政黨으로서 衝突하면 解散한다 政策으로서 衝突하지안호면 解散할理由가 不充分하다 그리고 政界의 分野를 明白히 하야 政策을 明白化식힌다는것은 解散의 理由가되지안는다 또하나 岡田內閣이 期待하는것은海軍軍縮會議이다 軍縮會議는 方今倫敦에 開會中이다

그것은 成功할것가지도안허 境遇에따라서는 議會再開時에 決裂할는지 몰으겟다 이것이 決裂되면 岡田內閣의 使命은 失敗에終하여 問題가업지만 萬一조금이라도 妥協될 希望이보이는동안은 首相은 이것에 未練을 가지게된다 未練을 가진다는意味는 萬一軍縮會議에서 日本의主張이 容納되야 成立된다면岡田首相은 그成功을 가지고 議會에臨하려는 同時에 內閣의指命을延長식히련는것 가리보인다 一方에 이러한希望을가지고 一方에서는 乾坤一擲의 議會解散에突進한다는것은 困難하다 何故오하면 總選擧는다른 意味는업다 하야도 岡田內閣에 잇서서는政變을 意味하는것이다

◇ 總選擧는 何故로 政變을意味하냐 그것은 岡田內閣의 本質이 總選擧에 堪當치못하게되어잇는때문이다 岡田內閣은 擧國一致가 아니고 議會에잇서서 리라는것은 民政黨自身까지도 認定한다고한다 民政黨이 解散을主張하든지又는政友會가猛烈히 政府를攻擊하야 解散斷行을하게하든지이러한 境遇에注目할現象은陸軍部內의 潮流의 變化이다 林陸相時代에는 內閣을 鋸壞하야 新局面을 展開하든지 적어도 陸相更迭을 目的하고 何等强硬한 態度를示하든 面面이川島陸相就任以來 特히 最近에는 漸次穩和論을 緩和하야 政局에 異變을 生하는事態를抑止하고잇다는것이다 國體明徵問題도 그럿코 豫算案도 最後에는 妥協을하고 北中問題에對한 態度亦그럿다 그原因如何는 別로하고 陸軍部內의 動向에 그러한 重大變化가이러난것은 事實이다 陸軍의動向을 無視하고 政局의轉換을 생각할수업는 現狀으로보면 이야 萬一政變을 일으킬形勢가되면 軍事豫算의 成立을急히한다는 口實로 百度의高熱을忽然引下식힐수잇는 解散의境遇亦그러하다 陸海軍의 意向에反하야싸울수잇는 氣魄과 熱度가아즉 政黨에는 復活되지 안헛다 或大勢는 解散에 向하고 進行된다하여도 解散을 決하는것은 政友會인데 政友會의態度를決定식히는것은陸海軍部의 動向이라고말할수잇다奇하고도 妙한 政局이지만新春의政情은 이러하다 (寫眞은岡田首相)

——(了)——

000021

牙山

新昌 姜景周　排芳 許均　溫泉 宋鳳龍　仙掌 金宗鉉　溫陽 尹極榮　新昌 金相燮　排芳 禹誠烈

排芳 南肯祐　靈仁 朴弘淳　同 李昌淳　屯浦 鄭應台　屯浦 成弘基　同 李在元　同 成龍基

屯浦 朴正魯　屯浦 洪壽天　靈仁 張柱鶴　屯浦 鄭泰植　靈仁 尹容植　松岳 丁鳳鎭

靈仁 金在鳳　屯浦 金正男　同 姜泰俊　同 張潤鎔　牙山 金麟濟

排芳面北水里 朴喜敬　溫陽面邑內里 金潤根　仙掌面新德里 徐廷完　松岳面巨山里 高在連　排方面新興里 姜泰元

牙山金融組合長 沈仁澤

溫陽溫泉 文化堂本店 溫陽和信 電話五五番

排芳面南里 李敏雄

屯浦面屯浦里 李炳萬

溫陽溫泉 朝鮮料理 太西館 主 金今培 電話溫陽二六番

溫陽溫泉 朝鮮料理 明月館 主 李海奉

仙掌面事務所 面長 權仁釆 書記 尹桂雄 同 孟晉鎬 同 林元鎭 同 成炳九 同 金永祐 同 權寧哲 同 趙敏善

松岳面事務所 面長 李用培 書記 李晥種 同 李明燮 同 李用雄 同 金正獸 同 李復永 同 姜仁植 同 李昌均 同 孟貫永

陰峯面事務所 面長 金容珪 書記 崔秉植 同 李宇宸 同 李仁珪 同 崔七根 同 趙成準 同 李圭植 同 金顯六 同 李完永

道高面事務所 面長 李萬鎔 書記 蔡福錫 同 李國宰 同 權宗鎬 同 朴昌來 同 崔鍾求 同 李範成 同 朴相爾 同 鄭寅雄

排芳面事務所 面長 孟容淳 書記 李奎元 同 趙洪元 同 孟願植 同 李鍾鉉 同 郭世鍾 同 李敏善 同 金長賢 同 孟昌燮

湯井面事務所 面長 林圭明 書記 金顯甲 同 尹弘均 同 金薰經 同 南鍾祐 同 鄭寅鎬 同 崔承銀 同 李明烈 同 沈榮燮

屯浦面松浦里 農務委員 李範秀

農務委員 丁奎晟

屯浦市 屯浦自動車部 主 金思殷

喪中欠禮 屯浦面屯浦里 林在和

屯浦面新項里 尹璟善

新昌面新谿里 吳榮善

陰峰面銅岩里 南宅祐

慶南溫陽溫泉 溫陽醫院 醫師 李聖再

溫陽溫泉 柳錫煥

巨山金鑛

溫泉精米所 趙南俊

溫泉釀造場

靈仁面事務所 職員一同

屯浦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喪中欠禮 牙山里 李相薰

忠淸南道道會議員 柳寅暎

喪中欠禮 屯浦面新項里 林益善

屯浦面新項里 尹致炳

屯浦面東部里 黃胤秀

屯浦市場 穀物商 金月龍

屯浦里 屯浦和信連鎖店

毛山驛前 穀物貿易 協成商會 尹協重

溫陽溫泉 靈泉醫院

牙山金融組合松岳支所 理事 梁載協

靈仁面 協議員 尹瑛儀

仙掌港 列精米所 李泰雨

毛山驛前 穀物貿易 丙昌商店 主 全榮默

溫陽溫泉 司法書士 李寅永 行政代書 姜泰敬

溫陽溫泉 司法書士 金周成 司法書士 朴寅和

仁州面貢稅里 日新釀造場 主 朱致國

松南釀造場 李用勳

陰峰面三巨里 金海釀造場

溫陽邑內 溫陽釀造場

仙掌港 廣信釀造場 曹秉烈

溫陽溫泉 綢緞布木 穀物肥料 大聖商店

溫陽溫泉 布木商 錢琦燮

株式會社 朝鮮日報社牙山支局 支局長 洪承復 分局長 申泰憲 營業局長 金相鶴 曹圭庠

溫泉 明信堂時計店 主 李奇鳳

溫陽溫泉 信昌商會 主 李漢祥

溫陽溫泉 中華料理 會賓樓 馬俊田

溫陽溫泉 ミヨシーカフエ

溫陽溫泉驛前 半島寫眞館

溫陽溫泉 主 全昌秀

京南線毛山驛前 大昌運送店 尹河英

京南線毛山驛前 ⊙運送店 李達善

溫陽溫泉 ⊙運送店

牙山精米所 朴元三 電話溫陽一二六番

溫陽面事務所 職員一同

屯浦面事務所 職員一同

鹽峙面事務所 職員一同

新昌面長 朴濟英

溫陽溫泉 華商 天成和

溫陽溫泉 大昌商店

和泉洋服店 主 李洋輔

忠南牙山郡屯浦市 永信自轉車商店 主 盧今成

忠南牙山郡屯浦市 東一商店 金張鎔浩

忠南牙山郡屯浦市 綢緞布木 鮮魚物 崔弘閏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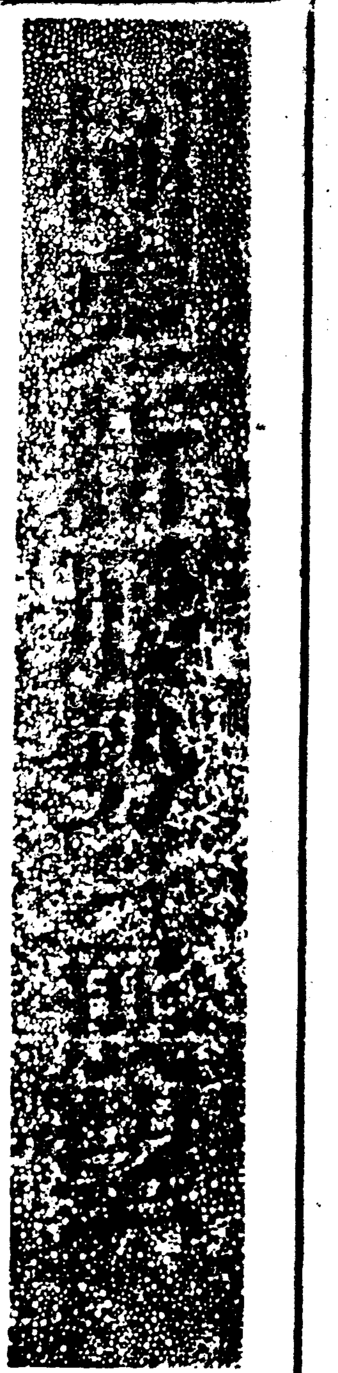
溫陽溫泉 中華料理 天昌東 刀福五

中華料理 東泰恒 電話溫陽三六番

鮮一釀造場 朴閏和

屯浦面議員 車鎭量

屯浦面議員 金英均



獨立第二年맞고 內外問題多難

對米經濟依存關係와 微妙한 對日問題

② 韓普容

對外關係의 調整

新興比島共和國에잇서서 國民經濟確立問題와 密接한 關係가잇고 또同問題에 짝지지안케 重要한問題는 國際外交關係의 調和問題라할것이다。

一九三五年은 世界的으로보와 國際形勢이 險惡한해로 伊에戰爭을 爲始하야 弱肉强食의 不正的野心이 國際舞臺에 如實히 暴露된해이다。內政에 잇서서는 自治實施의 多年的經驗으로 서투른點이업슬것이나 交外에잇서서는 이番이 처음이니만치 技術的方面에잇서 熟練치못한 點이不無할것인즉 이것도亦是 怖點의하나가될것이다。그러면 新獨立國比律賓은 現下 國際的으로 어떠케 調和하야 貧弱한 獨立自主權을 永遠無窮히 享樂할것인가？

獨立後 比律賓의 國際關係는 隸屬하여잇는 米國이나 歐洲諸國보다도 地理的으로 血統的으로 比較的가까히잇는 日本이나 中國과 보다더 密接한 關係에잇게되엿다。그런데 現瞬間에잇서서는 中國은 國內事情이 複雜多端하니만치 거이問題가안되고 比島의 國際關係라하면 거이 그全部가 日比關係를 말하게된다。

◇

그러면 日比關係의 現在잇將來는 果然어떠한것이며 또 어떠할것인가？ 現在의 日比關係는 貿易上으로보나 植民關係로보나 그러케 和睦이생길만한 무엇이업슴에反하야 兩國間의 空氣만은 事實以上으로 자못險惡한듯이 傳播되고잇다。그 主要한 原因은 米人側一部의 放送과 此에呼應한 比島人一部의 對日恐怖心理에 基因되는것이라한다。

比島獨立을 反對하는 아메리카帝國主義者들의 唯一의理由가「比律賓을 獨立식힌다는말은 日本帝國主義에「好餌」를준다는말과 同一하다」고한다。이것은 比島獨立反對論者의 唯一한 理由가될뿐아니라 比島獨立을 贊成하는者로서도 日本을攻擊할때에는 排日論의 한가지材料로삼는다。比島獨立賦與가 確定되든이 去十月二十二日에 元比島副總督으로잇던 니코러스·루즈벨트氏는 加州산마레오에서 이러한 演說을하엿다。(朝鮮日報 昭和十年十月二十四日付 朝刊參照)

不測의 事態가 發生치안는限 우리다음時代에는 比島에 日本國旗가 휘날릴것은 틀림업스므로 米國은 只今곳 比島로부터 손을 떨것이다 日本은 他에 戰爭이 이러나는 境遇 特히 英國이 歐洲戰爭에 휘숩여드러간 境遇에는 이것을 機會로 迅速히 比島는勿論、蘭領印度까지도 손에너흘것이다 그러므로 蘭領印度와 海峽植民地의 相互保障을 目的으로한 英蘭秘密協定에 본바더 太平洋平和維持의 手段으로 英米兩國이 海軍協定을 締結하는것이 가장得策이라고 잇는다

◇

吾人이 이演說中에서 注目되는 點은 루氏가 比島完全獨立을 贊成한點과 日本牽制의 必要上 英米海軍協定을 力說한點이다。此에關하야 記者에게 想起되는것은 去十二月十九日 네바다州 라스베가스市 同二十一日메릭스市에서 行한 現米國上院外交委員長 피트맨氏의 排日演說이다。

氏는 말하엿스되 日本帝國主義遂行計劃의 第一은 中國征服에잇고 早晩米國은 그存立을 爲하야 日本과 相爭할 必要에 直面하게될것이다 吾人은 只今日本의征服行動을 阻止치안흐면 그結果는 實로 可恐할바가잇다 日本軍縮代表가 倫敦에서日本은 太平洋上에서의 戰爭을 念慮하기때문에 米國과 均等한海軍力이 必要하다』라고 聲明한바 나는 現在의 米國의 對日政策에對한 不安을 감피듯기 곳없다 그러나 現在 日本이 두려워하는것은 單하나가잇스니 그것은 英米海軍의 協力이 잇슬뿐이다

云云의 激烈한 排日言辭로『太平洋戰爭必至』를 力說하엿다。피트맨氏의 演說은 比島問題에는言及치안허스나 여게 引用한것은 以上 두有名한米國의政客의 演說의結論이 英米海軍協定을 鼓吹한點에잇다。

이와가튼 日本攻擊論은 以上두사람에 끗치지안코 米國朝野에 許多히 發見된다。或은 比島獨立反對의 目的으로、或은 比島獨立을 擁保하려는 意味로、或은 中國을 서포—트하는 手段으로、或은 軍縮會議를 自國에 有利히 展開식히려는 內心으로、그目標는 비록 同一하지 안타하드래도 日本帝國主義를 攻擊하는 點에잇서는 同一하다。

◇

米國朝野가 이러케 떠들고잇스니만치 그로因하야 比島人自身은 누구보다도더 對日恐怖에 싸이게되는것은 어찌할수업는 現象이다。

比律賓은 過去 三百三十餘年間 白人의 壓制下에서 呻吟하며왓스니만치 勿論 比島人中에는 白人種이라면 不共戴天之讐처럼 생각하는사람도 적지안타。現比島上院議員으로 比律賓大學敎授의 要職에잇는 피오·듀란氏와 가튼 사람은 白人乃至 西洋文化反對의 典型的人物로서 白人種의 有色人種에對한 不當한壓迫을 排斥하기爲하야 日本을 盟主로한 東洋본로主義를主張하고잇다。그러나 多數의 比島人이 恐日的氣分에 싸여잇는것은 否定치못할事實이다。

比島人의 排日的傾向은 여러가지形態와 想像에서 由緣되는 것이지마는 比島內에잇서서 排日運動에 直接關係를 갓고잇는 것은 민다오니州、다바오地方의 日本人土地問題라할것이다。

(註)比島에는 土地法이라는法律이잇서 外國人은 勿論米比人이라 할지라도 一定한面積以上의 土地使用은 禁止되여잇다。外人이 租借하려면 一定한 條件下의 會社組織에依하야만 可能한[illegible]도 一定한 地面的制限이잇다 그리고 現在 다바오問題의 核心은 日本人耕作土地를 違法的租借하야 此를 沒收하라는것인데 이것은 比島獨立과함께 擡頭한 比島國粹黨이 一般人民에게 排日的思想鼓吹의 主要材料로 取扱하는、말하자면 比律賓獨立의 副產物的現象이다。

比島共和國國會議室

다바오地方의 日本植民을 圍繞코 比島內에는別別風說이다돌고잇다。即『日本人은다바오各處에 秘密히 莫大量의武器를 埋藏하엿다」느니『日本어떤地圖에는 다바오地方은 日本과同色으로칠하엿다」느니하는等 宣傳이 盛行할뿐아니라『다바오地方日本人은 同地方의 一切의 富를 獨占하고 比島人을 壓迫的으로 搾取하며 比律賓法律을 無視하며 故國에 莫大한 金品을 보내고잇다」는等의 宣傳은 地理的으로 七千八十三個島라는 多數의 大小島嶼로 形成된 比律賓에 잇서서 特히 그實權이 有效하게되다。

現在比島에는 다바오地方에 農業植民으로 約一萬四五千의 日本農民이잇고 마닐라方面에 商業에從事하는 約四五千의 日本人이잇는데 이것을 島內에在住한 十五六萬에 達하는 中國人에 比한다면 經濟的支配關係로보와 日本人은 거이 問題가 되지안흠에도 不拘하고 中國人은 더問題업스면서도 日本人이 이가티 問題되는것은 米比人의 以上과가튼 對日恐怖心에 基因한것은 境遇을 否치안는바이다。

日本은 地理的으로 人種的으로 또는 產業經濟의 現狀等으로보와 今後比島에 어느程度까지 進出하게될은 必然之勢로 볼수잇는가 한나。比律賓人도 勿論 이가튼 排勢를 노보고잇는까닭에 排外氣勢를 노피는것이지는 모르나 盲目的排外運動은 禍根이 되는境遇가 만타는 實情을 新獨立國比島人은 김히銘念하여야 할것이다。

去十二月七日 마닐라에 比島議會를 經過한 國民皆兵法案에 二十一日 케손大統領이 署名하엿다 하니 이로써 比島國民皆兵制는 實施되게되엿다。弱肉强食의 不義의傾向이 全世界를 風靡하고잇는現瞬間에잇서 國防强化가 될은再論을要치안는바이나 現在의 比律賓으로는國防强化와아울너 外交關係의 折衝調和가絶對로 必要하다는것을 强調하고십다。(完)…寫眞人物은케손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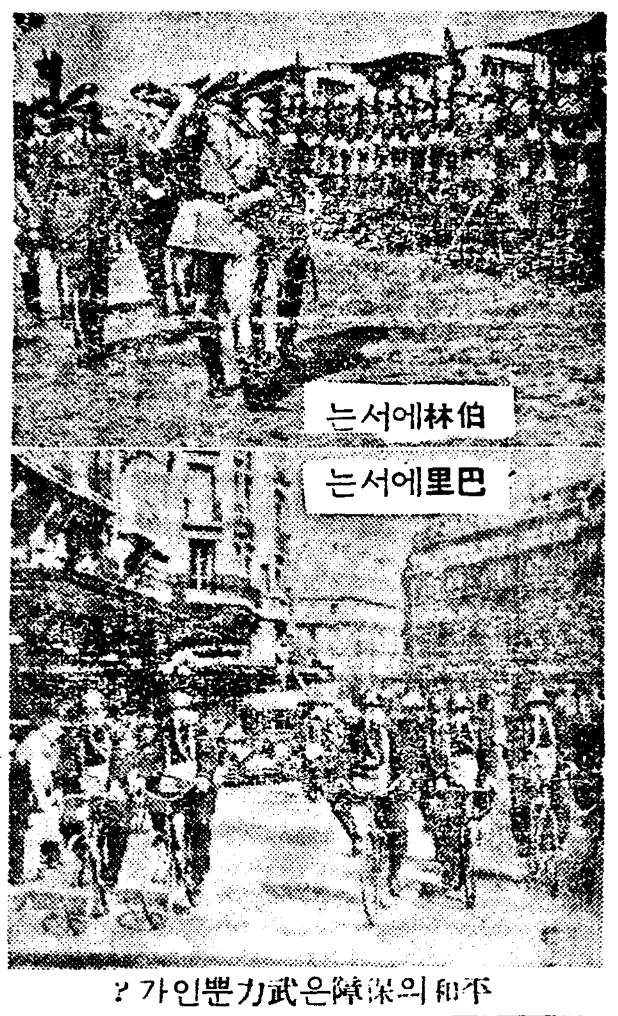
平和機構의危機

正義의相反性과 安全保障의破滅

② 金翰容

報告書를提出케하고勸告하므로서 戰爭을 防止할수잇스랴！ 制裁規定이 처음으로 伊에紛爭에 適用되엿다고는하나 事實上 아모런 効果도 내지못하고 잇는것은 現在 目睹하고잇는 事實이며 國際軍隊의 組織가튼것은 空想에 不過하다。더구나 集團的 機構로서의 聯盟內部에 利害가 相反되는 大國 小國의 軋轢과 對立이 不絶하고잇는것은 全會一致를 要하는 聯盟의 處理에 對한 致命的禍根이 되어잇는터이다。이와가티 過去 幾多의 國際紛爭에 失敗하고 國際間의 諸問題에 威力을 發揮하지못한 結果는 軍備縮少보다도 擴張의 傾向을 助長하고 國家主義와 팟시즘的傾向을 促成하야 諸般 國際關係에 잇서서 聯盟이 主張하는 國際協調主義와 相反되는 傾向이 날로 顯著하게되고잇다。

이것을 要約컨대 聯盟組織自體內에 內包된 缺陷과 同時에 變遷되고 發展하야 마지아니하는 現實의 動的事態와 符合되지안는 矛盾의 發露로 聯盟은 날로 沒落의 過程을 밟고잇는터인데 그中에는 上述한 現狀을 維持하고저하는 戰勝國의 一群과 現狀을 打破하려는 一群과의 對立抗爭이 가장 決定的運命을 聯盟에 서주고잇다고 할수잇슬것이니、聯盟의 歷史를披瀝해보다면 戰勝國의 一群은講和條約과 國際聯盟規約이라는 不合理하고 不平等한 二大束縛을 戰敗國에 加해두고도 이補强工作을 鞏固히 하려고 얼마나 애썻는가。一九二一年의 칸느會議를 비롯하야 그後機會잇는때마다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獨逸의 侵略을 抑制하고 그 政治的現實을 維持保障하는데 必要한 手段을講究하려고 努力하엿다。로카르노(西歐)도 結局은 西歐安全을 口實로 獨逸의 西部進出을 阻止하기爲함이 아니며、東歐條約을 締結코저 焦燥히 뎀비는것도 東歐進出抑壓이 그目的이 아니고 무엇이랴！그러나 對獨恐怖心에 戰戰兢兢하는佛國을 中心으로한 小協商國의 結束은 一面으로 對獨包圍陣을 鞏固히 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現實로 展開되어가는 事態는 이와 正反對의 現象이 날로 展開되엇다。이것은 多言을 費할것이업시 講和條約의 三大支柱라고 稱하는 賠償條約、軍事條項、領土에關한 條項中에서 이미 賠償條項이 倫敦協定、도즈案、영案의 諸階段을 밟어 一九三二年의 로잔느會議로서 抹殺되엿고 軍事條項이 今年三月十六日의 獨逸의 一方的廢棄宣言으로 事實上 廢棄되어 二條項이 모다 死文에 歸한 것을 보면 明瞭할것이 아니냐？이제 領土條項을 回繞코 어떤 暴風이 또 일어날지 豫測키 難하거니와 이와가티 歐洲의 國際政治의 礎石이 되어온 베르사이유 體制는 崩壞되는 途程에 잇다。이런意味로 생각 한다면 國際聯盟中心의 平和機構는 危機에 瀕하엿다기 보다 滿身瘡痍로 이제그形骸만이殘存하엿슬뿐이라함이安當할것이다。以上에 論한바를 考慮에넛는다면 우리는 聯盟을 中心으로한 國際平和機構에 重大한 一事實을 發見할수잇슬것이다。即 우리는 한말로『平和』를 云謂하고 平和를 維持하는 組織을 論議하지만은 現狀을 維持하는것만 으로서 平和라고 일컷고 現狀을 破壞한다고 해서 반듯이 平和破壞라고 할수잇슬는지 甚히 疑問이니、假令 이른바 武裝平和로서 眞正한 平和라고할수잇는가？正義 特히 國際間에잇서서의 國際正義를 伴하지안는 平和는 假裝平和에지나지 안는다。또는 이正義를 伴하지안는 假裝平和가 오래 持續될까닭도업다。


伯林에서는

巴里에서는

平和의保障은武力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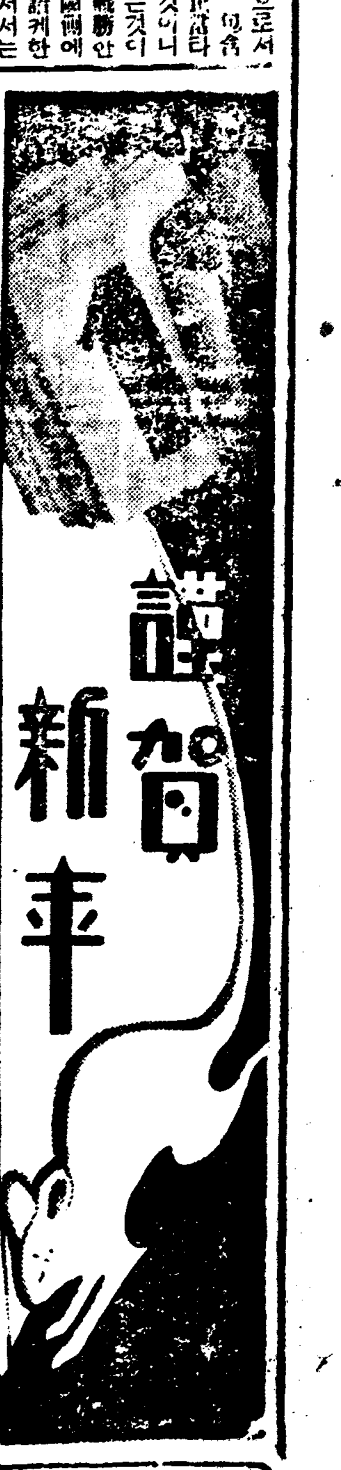
平和條約에 依하야 規定된 政治的現狀을 維持함으로서 國際間의 平和를 維持하야 그와 同時에 戰勝國의 立場과 安全을 保障코저하는 佛國가튼 國家로서는 그條約을 尊守하고 그國界標의 畢一點도 變更치 안는것이 平和이겟스나 그러나 不合理한 條約을 强要받는 戰敗國으로서 볼때 이는 平和가 아니라 더 一時的 屈服이다。그러므로 戰勝國의 一群으로서 본다면 國際聯盟은 平和維持의 安全保障機構로서 意義가 잇겟지만은 戰敗國으로서 본다면 이機構는 自己들의 自由와 繁榮을 束縛하기爲한 强制的 手段에 不過한것이다。이러하야 現狀을 固執하는 國家의 要求와 進展해가는 民族과 그 運命에 適合한 새로운 國際秩序를 創出하려는 特殊國家의 要望에 衝突이 생길것은 너무도 明白하다 이와가티國家間의 法律的平等의 原則을 基礎로 國家相互間의 自由로운 合意에 依한 協定에 依하야 組織되지 아니한 國際平和機構가 眞正한 意味의 平和를 實現키도 어려우려니와 그것을오래 持續할수도 업슬것이다。國際聯盟의 根本的缺陷은 여긔에 잇다。그러므로 國際平和維持의 機能을 誠實果敢하게 發揮하지 못하는 平和機構는 自然 變革되거나 沒落되고말수 밧게업는것이다。

이런意味에서 近來에 幾多의 國際紛爭이 特殊地域의 特殊事情에 起因하고 或은 偶然的인 原因에 起因하야 發生하면서도 거긔에 共通된 要素를 가진 一聯의 紛爭에 關聯이 잇다는 事實을 是認치 아니치못하는 理解할수가 잇다。即 무엇때문에 最近 二三年동안에 國際秩序를 어지럽게하는 紛爭이 頻頻히 發生하느냐하는 問題는 이것이 아니고는 說明할수가 업다。이러한 國際紛爭은今日의 國際交通關係를 支配하고規定하는 原則과 國際社會의 現實事情間에 一致키어려운 事態가 成立되며 그起因되는것이니 一言以蔽之하면 이러한 紛爭의 發生은 平和機構로서의 聯盟이 取한 保障手段에서 脫陷되는것이라고 하지 안흘수업다。뒤집어말하면 이러한 保障手段에 對한不信으로 라는것은 上述한 現狀維持政策을 取하는佛國가튼 國家와 모든方面으로 國界標를 移動하지안코는 國內生活과 國際生活의 發達을 實現하고 그安全을保障할수업다고 생각하는獨逸가튼 國家의 政策이 正面衝突할수밧게업는데 이利害가 全然相反되는 國家를 다 함께 內包하고서 國際秩序를 維持하려는 機構가 全面的으로 支持를받을수는 업는것이니、支配的國家의 保障手段에 對한 反抗은 及其也 紛爭으로 化할수밧게업고 合法的手段에 依하지안는 一方的廢棄或은 修正으로 突現하게되는 것일것이다。

勿論 平和條約이라고 일컷는種類의 條約은 戰爭을 終局시키는것이니만큼 平和의時期에잇서서 自由討議의 結果인『合意』로서 成立되는 條約과는 性質上 判異하야『合意』라고 認定되기는하나 其實은 戰勝의 事實에 依하야 戰勝國에서 指令하는 內容에 對한 戰敗國의 服從에서 成立되는것이다。그러므로 平和條約은 一方으로부터 他方에 對하야 强制하는것이다。다시 말하면 平和條約의 締結、그 効力에 關한 國際法規는 普通法인 條約法의 理論으로서는 說明키難한 要素를 包含하고잇고 또「그것은 正當타고 認定치 안흘수업는것이니 그要素가 即「强制」라는것이다。베르사이유條約도 戰勝한 聯合國이 戰敗한 同盟國에 對하야 强制的으로 受諾케한 것인 以上 그때에 잇서서는 戰敗國이 平和를 招來하는데에만 重大關心을 가진것만큼 當時의 客觀的情勢에 끌려서 이것을 受諾은 하엿지마는 內心에 不滿이 업고 不當하다는 생각이 업섯스랴! 이와가티 平和條約에 根據를 둔 安全保障機構에는 必然的으로 强制的要素가 存在하게되는데 이點에 그機構의 弱點이 潛在한다。內心 不當하고 생각하면서 客觀的情勢에 强制되어 受諾한 戰敗國의 義務를 基礎로한 安全保障機構는 結局 어떤 方法으로 改訂되고 참된 意味의 自由의 合意를 基礎로한 協定에 依하야 代替될 必要에 切迫되게된다。그代替가 不當하게 遲延되거나 또 改訂을 要求하는 國家側에서 實力으로서라도 條約上의 義務로부터 離脫코저하는 意思와 能力이 잇슬때에는 그機構의 運命은 當然히 脆弱한것임을 免치 못하게될것이아니랴？

이와가튼 脆弱性이 機構自體內에 存在하고 그組織에依한 保障手段에 對한 一般的不信賴와 正義를 無視하고 犧牲하여서까지 이른바 平和를 維持하려는 平和機構에 對한 反抗과 그것을 爲한 能力이 存在하는以上 機先을 制한 그機構의 全面的修正이나 改訂이 업시는 如何한 手段方法으로서 彌縫策을 講究하야 現狀維持를 꾀한다하더라도 結局은 그機構는 爆破되고야 말것이다。事實 英佛伊等 諸國을 中心으로한 베르사이유條約修正運動과 이에依한 聯盟機構의 補强工作도 一二로 세일바 아니다。特히 今年에 들어와서 墺太利問題를 中心으로한 佛伊羅馬協定、獨逸의 軍備平等權問題를 前提로한 英佛倫敦協定等은 또 이한表現이 아니랴？그러나 獨逸의 再軍備宣言은 歐洲에 大混亂을 惹起하게되고 이對策協議를 中心으로한 英佛伊스트레자協定은 伊에紛爭을 圍繞한 英伊의 對立으로 그集團的實效性이 喪失되고잇스며、一年을두고 紛糾에 紛糾를 거듭한 伊에紛爭도 聯盟의 和協調停으로서는 어떠케도 할수업는것이 現階段의 事實이 證明하는바로 聯盟이 이것도 調停치못하는以上 그存在理由까지도 잃어버릴것이오、對伊制裁를 實施코저하면 英伊衝突이 어서는 勢이므로 平和機構는 드되어 第二世界大戰에까지 發展될形勢이라고 말것이다。이러한 混亂紛擾의 渦中에서 뒤끌는 歐洲政局속에서 合法的手段에依한 平和條約의 改訂과 이에依한 平和機構의 새로운 組織을 어찌 期待할수 잇스랴！날로 增大되는 國際間의 不安과 信賴를 둘수업는 平和機構에 對한 危懼의 念은 날로 軍備擴大를 誘致하고 秘密外交와 秘密軍事同盟時代를 再現하야 大戰前의 狀態로 還元케하고 잇는터이니 어느때 어느곳에서 砲火가 地球를 震動케하야 地上의 微弱한 平和의 꿈을 完全히 깨뜨려버릴는지 豫測키 어려운바이다。

이와가티 國際關係의 正常한 運用에는 恒常 正義와 平和가 同時에 要求되는바인데 正義의 要求에 合致되지안는 平和는 正義의 要求를 無視하는것이니 平和機構는 몃번 反復하더라도 地上에 眞正한 平和를 招來할수는 업슬것이다。이런意味에서 國際聯盟中心의 平和機構는『人類의 奇蹟』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平和를 要求하는 人類理想의 一幻影에 不過한것이다。(完)



神戶
東釜共親會
事務所 神戶市葺合區日暮通一丁目一〇七
會長 金學述 副會長 金鐘植 總務 金科學 書記 金壽鎬 役員 金鳳旭 役員 金鳳石

神戶市葺東區橘町二丁目八二
洋靴製造卸販賣 張成賢商店
主 張成賢

神戶市神戶區北野町
東亞ホテル
金鳳石 李萬寧 金聲石 崔昌鎬 金鎬善 劉福壽

神戶市林田區梅ヶ香町二丁目
漢陽館支店
主 崔慶鎬
媛給 秋月 玉仙 エミ子

各種製鞋機 責任販賣修繕 其他附屬品一式
神戶市葺合區日暮通一丁目
電話葺合(2)六一五九番
與茂미싱店

神戶市葺合區八雲通五丁目
朝鮮支那料理 湖南館
主 李米奉

神戶市葺合區昭濟町三丁目
福永洋服店

諸綿繡團 親切叮嚀 薄利多賣
神戶市葺合區南本町四丁目
韓彰錫製綿工場
主 韓彰錫

神戶市大日通七丁目七四
朝鮮料理 東都館
主 金起鎬

神戶市葺合區東雲通二丁目
朝鮮料理 慶南館
主 金永守

株式會社川崎造船所葺合製鈑工場大四運送店內
朝鮮人組合
會長 鄭奉祚 役員 姜点洪 同 李正守 同 嚴甲龍 同 吳正守 同 金斗龍

株式會社川崎造船所葺合製鈑工場高原組內
原親會
會長 盧周鳳 役員 李点守 同 盧在洙 外役員一同

事務所 神戶市葺合區南本町五丁目一〇五
小林組
組長 李魯熙 役員 金聖德 同 朴孫出 同 田在鳳

神戶市林田區刈藻通六丁目四八
白米商店主 金泰守

神戶市外住吉村馬場東
朝鮮料理業 晉州館
主 李思近

神戶市葺合區八雲通三丁目
東洋館
主 丁鳳倫
姜順愛 姜春花 金英愛 姜玉子

回春堂漢藥房
本店 神戶市葺合區濱邊町
支店 武庫郡本庄村西青木
主 金鳳振

神戶市葺合區吾妻通五
朝鮮陶器貿易及海產物販賣業
京城兄弟商會
神戶市三宮火防組合員 町內衛生組合代議員
主 柳蓬東

神戶市葺合區筒井町二丁目
朝鮮料理 望美亭
主 李成泰
媛給 秋月 明月 雪梅

神戶市葺合區日暮通三丁目
朝日商店
營業主 李点守 代理人 朴且俠

神戶市葺合區吾妻通四丁目
綢緞商 綿布商 金泳喆
支店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

神戶市葺合區若菜通五丁目
石版 オフセット 普文堂印刷所
電話葺合(2)一一二八 振替大阪一九〇九二番

千葉料理 仙里食堂
主 金奉旭

神戶市葺合區宮本通一丁目
高級洋服專門 金光屋洋服店
主 金翼泰

神戶市葺合區旗塚通六丁目
神戶各學校職員御用商
製靴御小賣 マサヤ支店
主 朴世完
電話葺合(2)一〇九四(呼出)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二
兵庫縣內鮮協會
林田善隣會
主事 荒川喜平

神戶市葺合區八雲通四丁目
最上醬油 アサヒ印 カメヒシ印 醸造元
岡田醬油合資會社
神戶出張所
本店 香川縣引田町

各種洋靴製造業
神戶市林田區三番町三丁目一四九
主 李鐘基
事務所

神戶市林田區若松通六ノ二三
神戶市牧場委員 韓仁敎

神戶市葺合區八雲通五丁目
張審植

神戶市葺合區吾妻通五丁目
普濟院漢藥房
主 裵奉奕

相愛會兵庫縣本部
事務所 神戶市葺合區北本町四
電話葺合(2)二四六二番
會長 金連壽 幹部一同

長春館
主 金學述
媛給 錦波 同 月香 同 香月 同 桂花

綿絲物製造業
福田商會
主 金鐘植

神戶市葺合區吾妻通五
日新堂藥房
年久大腫專門 外科主 張伯守

朝鮮婦人衣服地皮物產一切
金曾壽商店
主 金曾壽

何換堂漢藥房
主 閔雨田

神戶昌進會總本部
會長 張伯守 副會長 丁鳳倫 外役員一同

神戶市葺合區上筒井町三
コーレアンクロス
マリー商店
主 安周鎬

神戶細龍親睦會
會長 丁奎燦 財務 金永守 外役員一同

昭和會幹事會財務
海陸物產 食料品 醬油味噌 其他雜貨
神戶市葺合區脇濱町二丁目
朝鮮物產商會
主 朴富業

內鮮自治會
湯屋從業員親睦會
會長 崔潤宗

林泉堂漢藥房
主 林鎭明

神戶市葺合區二宮町一丁目
東亞石版印刷所
電話(2)合七八〇番
再熙 舜

神戶市神戶區三宮町三丁目
元屋商店
主 元田蓮

神戶市神戶區中山手通一
洋靴製造卸販賣 木村製靴店
主 朴孝善

神戶市葺合區日暮通三丁目
三信布木商
主 鄭大錫

神戶市葺合區國香通四丁目
日昌堂漢藥房
主 金致龍

神戶市葺合區琴緒町
ワイシャツ 綿布加工
絹出商主 申方佑

神戶市神戶區加納町四丁目
マサヤ製靴店
主 洪昌得

神戶市葺合區坂口通七丁目
高級婦人洋服專門
櫻井洋裝店
主 趙點世

神戶市葺合區東雲通四丁目
우리의慰安은 朝鮮料理
明月館
主 金點順

鈴三亭
本店
支店 葺合區春日野道

神戶市葺合區八雲通一丁目
昭和食堂

神戶市葺合區八雲通四
日光堂漢藥房
主 金尙起

神戶市葺合區筒井町二丁目
朝鮮料理 松竹亭
主 權京大

神戶灘區友田町三丁目
山本加工所
主 韓竹奉

神戶市葺合區筒井町二丁目
朝鮮料理 漢藥研究生 金輝亭
主 黃鳳昊

朝鮮料理 青松館
主 金連壽
本店 神戶市葺合區日暮通
支店 神戶市兵庫區濱川町二

仁壽堂漢藥房
主 裵麟聲

山口製靴店
主 鄭順直

大衆診察所

神戶市灘區
無名氏

神戶市灘區南通一丁目
金性在

朝鮮料理
漢陽館本店
主 松田新吉事 金活仁
女給 君子、花子外八名

神戶市林田區神樂町四丁目一五
金富坤

神戶林田區東尻池町六ノ八八
普成堂漢藥房
主 安甲炯

綿布 綢緞 網物 雜貨
本店 大阪市浪速區
支店 神戶市林田區庄田町二ノ一ノ二四
金瀅祺神戶支店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四丁目
薄鐵製紙原料 空罐各種屑物
孫南植商店

屑物商 主 朴基奉
自宅 神戶市林田區東尻池町四丁目一五二
營業所 市內林田區菅原通七丁目一四八

綢緞布木 雜貨冠帽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五丁目一一五
西村商店
主 具福先

漢藥房 壽堂
神戶市林田區梅ヶ香町一丁目一六ノ九
文孝眞

酒類 飮食 味附 中山商店
神戶市林田區三番町五丁目十一

土木業 林孟鎬

土木業 金琪圭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五ノ九四
生堂藥房
主 李英洙

神戶市林田區三番町五丁目一四
張信

神戶市林田區材木町七七
金後宗

久丸商店

幣制改革後의 中國

果然所期의 目的을 達할가?

悲觀되는 材料가 만타 (下)

徐椿

實施成績

그러면 그間、實施後 約五六十日間의 實成績은 어떠냐하면 政治的方面은 姑捨하고 此를 財政經濟의 方面의 局限해 보는限、比較的良好하다고 볼수가 잇다。

一、爲替安定‖元紙幣의 對外價値는 實施後今日까지 何等의 動搖가 업다。英國에 對하야는 一元對一志二片半은 米國에 對하야는 百元對二十九弗四分之三이오、日本에對하야는 百元對百三圓內外인데 그間 約二個月동안은 何等의 動搖가 업시 이 比率을 維持하고 잇다。

二、物價騰貴‖今番 改革으로因하야 平價約四割의 引下로된 結果도 잇슬것이나、그他의 原因도 合作하야 商品界는 輸出農産物、輸入品을 通하야 그價格이 다 三四割의 暴騰을 演出하야 여지껏 瀕死狀態에 잇든 商工業界에 近來未見의 活氣를 주고、따라서 金融界도 蘇生한 感이 잇다。

三、金利低落‖幣制改革前에 잇서서는 極度의 金融梗塞으로 因하야 年利三割六分라는 高利狀態에 잇든 金利가 改革斷行後、漸次、低落하야 只今은 年利九分의 程度까지 이르러 金利가 常態로 恢復되는 徵兆를 보이고잇다。

四、財政緩和‖이에 對해서는 아직 何等의 根據잇는 報道는 업스나、今番의 改革斷行에 依하야 銀準備가 업시도 紙幣를 秘密裏에 發行할수 잇는 事情、또한 다만 얼마라도 民間所有의 現銀을 政府의 所有로 한 事實等等에 鑑하야 極度로 窮乏해잇든 南京政府의 財政이 크게 緩和되엿슬것은 事實이다。

今後如何

實施後의 成績이 이와 가트다 할진대 中國의 幣制改革은 所期의 目的을 達한것이아니냐? 또는 따라서 成功한것이 아니냐?라고 할수도잇다。그러나 크게 그러치 못한 理由가잇다。何故오하면 元來가 이런 種類의 制度의 新設又는 改善은 單히 一二個月의 成績을 가지고 成功失敗를 論할 性質의것이 아니기때문이다。要는 對外爲替가 安定되다고잡고、어느때까지 繼續할수가 잇느냐? 物價가 騰貴되엿다고잡고、그것이 獨逸의 馬克紙幣暴落時代 又는 露國의 루블紙幣의 暴落時代에서 보는바와가티 商工業及 金融界에 도리여 打擊이 되지 아니할程度內에서만 騰勢를 繼續할수가 잇느냐? 하는것이 結局은 成功失敗를 實證하는 對象이 될것이다。그러나 이런方面으로 觀測할때에 問題의 幣制改革에 對하야는 樂觀材料보다 悲觀材料가 만타는것이다。

카드간氏

一、政權依存制度‖누구나 아는바와 가티 中國에는 政府頻發과 內亂이 만헛다。그때마다 中國貨幣의 對外爲替時勢에는 多少의 影響이 잇서 왓스나、中國貨幣의 對內價値自體에는 何等의 影響이 업서 오것은 中國이 現銀그物件을 通貨로 信用햇기때문이다。그러나 只今 쓰라는 紙幣는 南京政府의 紙幣다。따라서 이 政權에 動搖가 생기면 그影響을 第一着으로 바들者는 改革後의 幣制라고 할수밧게업다。

二、公債發行念慮‖그러지 안해도 不安點이 만흔데다가 南京政府가 某種의 必要에 迫한다하야 赤字公債를 多量으로 發行한다든가、그대신 秘密裏에 不換紙幣를 濫發하는 날이면 그 끄트머리는 獨逸의 마크暴落時代를 聯想시킬만한 時代를 再演出할 憂慮가 적지 안타。

三、國際貸借不安‖中國은元來가 貿易上으로는 入超國이다。從來、이것을 相殺하는 三大原動力은 (一)所謂華僑의 海外에 잇서서의 本國에 對한 送金과 또는 (二)滿洲地方에 잇서서의 出超에 依한 代償와

리스·로쓰氏

(三)對外借款과의 三者에 잇섯다。그런데、今日에 와서는 滿洲는 獨立햇다。또 華僑의 送金은 激減햇다。그리고 日本의 對中國策에 依하야 日本의 同意가 업시 外國으로부터의 借款은 不可能하게되엿다。今番、秘密裡에 成立햇다고傳하든 對英一千萬磅의 借款도 日本의 强硬한 反對로 實現할는지 疑問化하게 되엿다。그러니까 이點으로보아도 對外爲替를 英貨一志二片半으로 今後繼續하야 安定시킬實力이 잇는가? 또는 따라서 元紙幣의 國內價値를安定시킬수잇는가는 크게 疑問이라고 볼수밧게 업다。

四、爲替安定裏面‖게다가 只今까지 約二個月동안 中國의 對外爲替가 安定되고잇는 事實의 裏面에는 上海에 잇는 諸外國銀行의 臨機應變的方便이 介在한 事實이 잇다고한다。即 諸外國銀行은 現銀을 만히 所有하고잇다。그러나 이것을 中國以外의 나라로 搬移할수도 업고、그러타고하야 今番、幣制改革으로 因하야 中國內에 流通시킬수도업다。그러니까、이銀은 結局、貨幣로서의 機能을 喪失해버리고서 倉庫안에 蔽匿되여잇게 되엿다。그러나 諸外國銀行이 그곳에서 營業을繼續하고잇는以上、中國사람을 相對로 주고 바듬 貨幣即、中國紙幣가 必要할것은 勿論이다。이必要에依하야 諸外國銀行이 現在까지는 外國貨幣를 賣(賣)고、中國紙幣를 買(買)는 處地에 잇기때문으로 元貨紙幣의 對外價値即、中國의 對外爲替가 아직까지는 安定을 保하고잇다고한다。그러나、그러타고하면 諸外國銀行의 元貨紙幣의 準備가 一巡하야 飽和狀態에 達한 後에는 元紙幣의 對外價値를 維持할 原動力을 喪失하기에 至할수밧게 업는것이다。그리하야 一部의 觀測에依하면 舊正月頃에 至하면 中國의 對外爲替가 動搖 低落를 開始할 것으로보며、또한 一部에서는 此를 가장 늣게보드라도 新年年末까지밧게 安定이 繼續치 못할것으로본다。

宋子文氏

五、銀價의再暴落‖그런데 여기 또한가지 奇妙하고도 中國을 爲해서는 寒心한 일이 잇다。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中國은 米國의 銀買上策으로 因한 銀價暴騰에 못이기어서 그 對策으로 今番 幣制改革을 斷行햇든것인데、이 對策이 世界銀價에 逆作用을 하야 銀價의 再暴落을 演出하고 잇는 結果로 中國은 新幣制를 維持하기가 不可能하게 될뜻한 危境으로 目下、時時刻刻으로 빠저 드러가고 잇다는 奇現象이 잇다는것이다。中國은 幣制改革前에는 銀價低落을 希望햇스나 改革後의 今日에 잇서서는 銀價가 騰貴된、現狀대로 잇서 주기를 希望할수밧게 업시 되엿다。何故오하면 (一)現銀價格이 紙幣價値보다 놉흔대로 잇서야 되고、(二)南京政府가 爲替安定을 爲한 外貨資金을 入手하기 爲하야 英米等을 向하야 銀을 輸出할때에도 高價라야 조코、또、(三)改革後의 今日에 잇서서는 價格低落으로 因한 銀의 中國으로의 再流入이 업서야 되기때문이다。

그런데、改革實施當時에 二十九片以上으로 잇든 倫敦銀塊時勢가 中國幣制改革으로 因한 米國銀價引上策의 破綻을 念慮하야 발서 二十一片近方으로 暴해落 버렷다。그런데 一元對一志二片半의平價에 該當한 倫敦銀塊時勢는 十七片四分之三이다。이제 三四片의 低落을 繼續하는 날이면 元紙幣價値와銀價는 新幣制에 依한 平價에 達하고、倫敦銀塊時勢가 그以下로 더 떠러지는날이면 그제는 元紙幣價値(一元對一志二片半)가 도리여 銀價보다 놉하 진다는 奇現象을 呈하게 될터인데、이러케 되면 中新幣制는 餘地업는 破綻을 演出할것이다。

何故오하면 (一)그제는 民間에서는 銀을 銀으로 密輸出하야 파는것보다 政府로 가지고가서 紙幣와 바꾸게 될터이니까、政府는 只今과는 反對로 損失을 볼것이오、또 (二)外國銀은 中國으로 逆流入하야 一旦、中國元紙幣를 밧고 팔어가지고、그元紙幣를 다시 新幣制로 規定된 對外爲替의 比率에 依하야 英國으로 가는者는 一元對一志二片半으로 米國으로가로 가는者는 百元對二十九弗四分之三으로、日本으로 가는者는 百元對百三圓五十七錢으로 換形해 가지고 도로 나갈것이기때문이다。

孔祥熙氏

이러케 되면 元紙幣는 필고、磅、弗、圓等의 外貨를 살者는 激增할터인데 現下의 南京政府는 이에 對하야 外貨를 無制限으로 賣應할 外貨資金이 업다。이에 對한 對策으로 銀에 輸入稅를 課한다면 그效果如何가 疑問이오、그러타고 元紙幣의 平價를 再引下한다면 國內物價의 暴騰으로 國民生活에 一大脅威가 될것이오、또한 그러타고하야 銀의 國內買上을 中止한다면 政府는 드디여 外貨資金을 어들 財源을 아조 枯渴케할것이오、또한 그러타고하야 損失을 무릅쓰고 銀의 國內買上을 斷行한다면 欠損의 分은 政府負擔에 歸할것이니까 그러지 아니하도 窮乏한 南京政府의 財政은 더욱 窮迫에 빠질수바게업다。於此於彼에 世界銀價의 再暴落은 中國新幣制에 對해서는 가장重大한 打擊이 되는것인데、이 銀價暴落의 原因은 今番 中國幣制改革의 一事에 잇섯다는것은 또한 奇妙한 現狀이라고할수밧게 업다。

要컨대 上記、諸點에 依하야 中國幣制改革의 今後成敗如何에 對해서는 樂觀材料는 殆無한데 對하야 悲觀材料는 山積한것으로 볼수밧게 업다는것이 그 結論이다。그러고、이것이 日本의 對中貿易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까하는 一事에 對해서는 此를 省略한다。

附記 今番、幣制改革에 際하야 活躍한 人物은 財政部長孔祥熙、中央銀行理事長宋子文、駐中英大使카드간、英國對中特使리쓰·로쓰의 四氏이엿다。(完了)

統制經濟의 全貌

急激한 斷行은 弊害莫大 ②

成尚勳

八、公衆生活의 關係

이밖게 社會政策的 國家政策的 立場에서 公衆日常의 利害에 密接한 關係가 잇는 銀行信託、保險、取引所、無盡等의 公共事業、公衆生活上의 必需物로 獨占性을 가진 電氣、瓦斯、交通機關、中央都會市場等 通信機關、特典附與等을 하야 競爭事業에 對하야 營業認可制、資格制限을 避하고 獨占을 扶助하는것도 統制의 하나다。그러나 朝鮮에는 最近 이것들에 一層積極的 統制를 加하야 合同、其他 온갓 方法의 統制가 進行된다。銀行은 最近 銀行令의 改正에 依하야 公稱資本 二百萬圓以上을 가저야 認可되게되엇는데 最近 數年來 商銀、東一 慶南合同等은 數三銀行의 合同에 依하야 成立 又는 擴大되엇스며 信託도 最近 年十萬圓의 補助를밧는 朝鮮信託에 合同되엇고、無盡도 共濟、福德의 合同만이 남어잇게되엇다。

電氣、交通機關이 從來 獨占性을 가지고 政府의 莫大한 保護를 밧으며 統制되든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最近에는 이에 對한 統制가 가장 顯著하게 나타낫다。昨年十一月二十日 長津水力電氣의 平壤送電으로 西北一帶가 全部 長津水電으로 統制되것은 世人 括目할에 나타난 現象이어니와 第二、第三計劃으로서 全朝鮮은 長津水力及寧越、江陵의 火力으로 統制하라한다。即 長津水電은 十二萬킬로의 發電으로 平壤西鮮合同에 送電하야 平壤、鎭南浦、兼二浦、新義州、安州、宣川、海州、載寧、信川等 西北一帶에 電氣를 供給하고 다시 平壤서 京城電氣로 送電하야 京城、仁川、永登浦、水原等 京畿一帶의 電氣를 供給하고 寧越의 炭田을 利用하야 日本電力聯盟의 資本 二千萬圓을 發電하는 寧越、江陵의 火力電氣는 大邱、釜山、大田、全州、群山、木浦에 送電하야 朝鮮瓦斯電氣、大興電氣、南鮮電氣로하야금 一個의 配電事業을하게하라한다。現在 全朝鮮電氣發電所는 六十餘個所인데 最近期間에 十個로、그다음엔 五個로 그다음엔 二個로 統制하리라한다。

國鐵外의 私鐵이 朝鮮、京南等 數三鐵道會社에 經營케하야 年 六十萬圓의 補助金을 주고 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將來는 이것을 國鐵로 移管하고、그當定的 期間은 此等 私鐵로 經營케하되 隣近 自動車線路를 此等 私鐵에 統制케하라는것은 이미 當局의 方針이니 現在라도 黃海道、慶北地方으로가면 朝鐵子國이 成立되것을 알것이다。

이리하야 統制는 電氣、交通에까지 徹底하라한다。

九、米穀統制

以上은 朝鮮內에 잇서서의經濟統制어니와 朝鮮輸移出入品에 잇서서 徹底히 統制를 밧는것은 朝鮮米와 滿洲粟이다。每年 作定하는 米穀公定價格에 依하야 朝鮮米價도 그 影響을 밧는것은 現著한 統制어니와 이것이 日本內地에 移出될 때에는 一定한 制限을 밧는것이다。即 米穀統制法이 그것이다。法文은 長皇하고 또 새로 制定하라는 米穀自治管理案은 奇妙한 文句로 統制하자 함이나 結局 日本內地米價를 維持하기 爲하야、朝鮮米를 調米하자는것이다。即 日本內地서 必要할 때는 移入하고 不必要할때는 禁止하야 日本內地의 食糧問題와 米價問題를 威脅치 안차 하는것이다。이것이야말로 自由主義에 對한 徹底的 反對인 統制經濟다。

이와 關聯하야 朝鮮人의 一部 常食이 된 滿洲粟에는 每百斤에 一圓이란 關稅를 課하야 輸入을 防止하자는것이다。一見 朝鮮人에게 米飯을 먹이고 米價를 維持하라는듯하나 그 實 不然한것은 現實 數字가 証明하는바다。

十、統制經濟의 利害

이와가티 朝鮮의 經濟는 大部門에 잇서서 統制의 部門에 關하며 또 將次는 一層 더 그積極的 統制下에 드러가라하거니와 이 統制는 果然吾人에어떠한 利害를 가저오는가。

統制經濟의 利益은 無用한 競爭으로써 生하는 生産費의 過大를 節約함에잇다。一千萬圓의 三會社가 競爭함보다、三千萬圓의 一會社가 大規模의 生産手段으로 生産하면 그것이 低廉할것은 事實이다。그러나 그利益을 消費者에게 돌리지안코 獨占的인 生産者가 가진다면 그 害는 크다。現代의 企業合同에 依한 統制는 大槪 後者에 屬한다。大合同會社가 合同前보다 一層 利潤이 만흔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또 設使 合同에 依한 統制가 消費者에게 利益케한다하자。그러나 그것이 急激히 行할때에는 小企業家는 不利한 立場에 설것이 必然하다。何故오하면 大資本의 抑壓下에 合倂統制될때 小資本은 그後 業을 求하기가 困難하고 設使 그合倂會社의 傘下에 드러간다할지라도 發言權、配當이 적을것은 明若觀火이므로써다。그러므로 自由競爭制度에 多少弊害가 잇다고 急激히 統制를 斷行한다는 것은 小資本 即 小生産者를 延하야 一般消費者의 不利益은 莫大한것이다。

하믈며 現在와 가튼 大財閥偏護의 늣김을 주는 失敗 一手貿易制度는 不可하다。

要컨대 現代의 統制經濟는 大資本의 小資本支配와 消費層의 一層 困窮化를 招來할뿐이라한 것이 아닐가 —(終)—

墨鷺 李用雨氏 試毫

昨年中發布된 經濟關係法令 【二】

張元俊

朝鮮製絲業令(承前)

二、製絲業經營의 許可制問題

第二條 『製絲業을 하는 者는 朝鮮總督의 免許를 受할事』그러고 免許申請手續은 施行規則 第四條의 規定에 依하야

가、製絲場敷地의 面積並 建物의 種類 面積及 構造의 槪要

나、製絲場 敷地의 建物及 設備의 配置圖並 敷地附近의 槪況

다、繭의 乾燥及 貯藏에 關한 設備의 名稱、能力 員數

라、蒸繭機의 名稱、能力、員數並 操業後의 姿勢

마、生絲의 整理及 檢査에 關한 設備의 種類及 員數

바、從業員의 業務別員數表

사、自家用生製絲의 製造를 行하는 境遇에는 그製造絲生加工品의 種類 加工設備의 所在地及 一年間의 原料生絲消費豫想數量

아、製絲業以外의 事業을兼營하는境遇에는 그事業의 槪要

자、事業의 收支豫算書

차、申請者가 個人일時는資産의槪要

카、申請者法人일時는 定款登記謄本 財産目錄 貸借對照表及 事業報告書

타、申請者가 産業組合일時는 職業別組合員數 出資口數及組合員의 一年間生繭豫想額

파、朝鮮總督은 前項의 書類外免許에 關하야 必要한 書類의 提出을 命하는일이 有함

等等의 複雜한 手續이 必要하게되므로 小資經營者가 이手續을 完了하야 免許를 엇기에는 하늘에서 별따기보다도 더어려운 일일것이다 이것은 新規經營者에 限한것이아니라 現存業者도 施行規則第十二條……現在五釜以上의 設備를 有하고 生絲製造를 하려는 者는 本年의 施行日부터 三個月以內로 製絲場마다 所要의 書類를 添付하야 朝鮮總督의 承認을 어들일……』의 規定이 잇스니만치 今年一月末까지 現存業者들은 朝鮮總督의 承認을 엇지안으면 안되는것인즉 所定의 設備가 不完全한 者에게 一樣이 加하게될것은 더말할것도 업다。

三、免許取消에 關한 規定에 잇서 同令第四條에 『製絲業者免許를 受한日부터 二年以內에 事業을 開始치안는 時는 朝鮮總督은 그 免許를 取消할을 得함 製絲業者引續하야 一年以上 事業을 行하지안는 時는 全部又는 一部를 朝鮮總督은 그免許를取消又는 制限함을得함』이라고하엿다 即 新規業者에 잇서서는 二年의 期限이 잇스나 一段操業을 開始한工場은 一年以上休業할수가 업다 日本內地製絲業法에 잇서서는 二年以上事業을 休止하는 者에 對하야 取消又는 一部制限을 할에도 不拘하고 一段的으로 製絲業이 자못 未熟한 朝鮮에 잇서서 그期限을 唯獨 一年으로 短縮한것은 알수업는 일뿐만아니라 一方中小製絲業者에게는 적지안흔 不利不便을 주는 것이라고본다

四、製絲業者 監督取締上必要한處分에 關한規定

가、第七條規定에 製絲業을하는 者로 朝鮮總督의 免許를 受하지 안흔者에 對하야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나、第八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1) 朝鮮總督이 製絲業者에 對하야 製絲業의 統制上 必要한 事項을 命한 것에 違反한者

(2) 朝鮮總督이 命하는 制限에 對하야 違反한者

(3) 正當한 理由업시 總督又는 道知事가 命하는 報告를 하지안커나 虛僞의 報告 又는 官吏의 臨檢에 對하야 拒否又는 妨害하는者

等의 嚴重한 罰則이 서잇다

五、其外製絲業의 統制에 關한規定

第三條 『朝鮮總督은 製絲業者에 對하야 製絲業의 統制의 必要한 事項을 命할을 得함』이라는 規定은 行政當局에 伸縮自在한것이니 만치 朝鮮의 特殊事情에 關한 事는 當局의 心情如何에 달린것이다

事項 要컨대 本法令에서 中小、되는것은 첫재로 製絲業을 許可制로하야 그의 亂立을 防止하는 同時에 旣存業者(主로 大規模의 業者)에 對한 保護를 强化하려는 것이오 둘재로는 中小製絲業者로 整理淘汰하야써 將次는 업서지고야 말 그들의 運命을 재촉하는 結果를 나타내지나 안흘가 念慮하는바이다

—계속—

新春景氣展望 ②

綿絲는 劈頭부터 波瀾을 豫想

米國農業調整法에 對한 大審院判決不安、銀低等이 主材料가 되어 米棉이 暴落되고 買勢態으로 年末에 二百圓大關門을 깨어드린綿絲는 春高氣分으로 다시 關門恢復後 高割한바 綿布의 不良이 큰 苦惱이기는하나 必低로 보던 크리스마스前의 棉이 意外로 떠러지지 안허 好感되엿다。最近業界의 實勢는 依然 織物方面이 不振함으로 現物의 賣行이 不良하고 高價買는 躊躇 인채로 越年하얏다。

×

그러나 오래동안 新規約定을 아니하던 海外도 買氣가 잇서 보이며 他面紡績側의 讓步에 依하야 好感이며 機業地의 製品好轉이 尙早이나마 原絲低落에 依하야 幾分 조아지고 長期에 亘한 買不足이 엇슴으로 準備買의 潛在도 看取되니 이點은 今後期待를 가저도 조흘것이다。

×

米棉은 價位低下로 實需의 買物이 잇는 모양이나 農調法에 對한 判決이 果然 어떠한지 新春六日이 大審院判決日인만큼 이것如何로 新春劈頭부터 一波瀾이 豫想된다。

阪神

阪神地方消費組合 朝鮮物産委託購入所
營業所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中二ノ五七
事務所 尼崎市築地本町三ノ六九
自宅 尼崎市北大物町四番地
電話尼崎八七八

土木建築請負業 山川事業 公認 梁汝亨 尼崎市西大物町五三

大阪鑛工職工組合 指導員 金尙範 事務所 大阪市東區橫堀二丁目二四

古物商會 主 康京河 尼崎市外小田村杭瀨松ケ下一八

淸酒醬油 海陸物産 其他各種 主 曺敬洛 兵庫縣川邊郡小田村西長洲西四九

東亞同住會 會長 金奇弘 尼崎市東同島東ノ町一二四

尼崎市會議員 朴炳仁 尼崎市築地町南濱一丁目三

毛莫大小製造販賣 愼鏞浚 メリヤス工場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中三ノ七五

土木建築人夫供給 金永勝 尼崎市西櫻木町三八

朝鮮料理 長興館 主 申吉成 尼崎市築地南濱二丁目三

阪神消費組合 尼崎市築地本町 理事長 金啓中 常務 金解變 常務 金炳善 電話尼崎八七八

酒類各種其他色色 許石斗商店 尼崎市東本町二丁目六五

製紙原料取扱所 高亨奎 尼崎市昭和通一丁目一

東亞同住會總務 中大洲衛生部長 尹興烈 尼崎市東同島東ノ町一二四

國防靑年團副團長 曺消尙 尼崎市築地南濱一丁目三

金龍鶴代書事務所 尼崎市玄番南之町二

朝鮮料理業 李學基 尼崎市與家町七番地

各株式會社雜役請負業主 李鍾千 尼崎市築地本町四ノ八一

洪城郡洪北面石宅里 金應煥

瑞山郡高北面大寺里 金聲煥

洪城郡洪州面五官里一三六 株式會社東一銀行 洪城支店

洪城邑內 洪城酒造組合

洪城邑內 朴敦圭

洪城邑內 精米肥料商 黃錫俊

洪城邑內 大正生命日本教育保險株式會社洪城出張所 所長 吳壽一

洪城郡高道面基山里 張善載

忠淸南道洪城郵便所長 池田喜代登

洪城郡龜項面五鳳里 龜月釀造場 李隱稙

洪城郡龜項面鉛封里 藥種商 片光宇

金馬面職員一同

洪城郡東面金堂里 起昌釀造場 李起五

結城面職員一同

洪城農業倉庫 城戶孫藏

京南線洪城驛前 鐵道貨物取扱業 丸三運送部 電話四六番

共成驛前 釀造業、貨物自動車部 金元圭

洪城驛前 精米業 興業社 電話五七番

忠南洪城驛通 材木店 安正弼

洪城邑內 醫院 張東赫

洪城邑內 和信連鎖店 崔德吉

洪城邑內 洪城旅館主 李定世

忠南線洪城邑內 朝鮮酒釀造 桃源社

洪城邑內 朴商賢

洪城邑內 山水洋服店 主 金正煥

朝鮮京南線洪城邑 天和堂藥局 藥種商 趙榮行 電話七九番

瑞山郡高北面水村里 金昌洙

朝鮮日報社尼崎販賣所 朴魯聖 尼崎市築地本町三ノ六九 電話尼崎八七八

漢藥種商 主 朱海門 尼崎市建家町二二一

洪城

洪城郡高道市 貨物自動車部、肥料精米雜貨 丸金商會 振替京城一七九〇五番

洪城邑內 絹織布木、和洋雜貨 元華商店

洪城邑內 朝鮮料理一式 湖月菴 主 李鍾奎

洪城邑內 洪城十五日會

瑞山郡高北面新松里 韓□洙

洪城郡洪北面 金圭鎬

洪城邑內 精米業 崔日奉

洪城公立普通學校 武藤不二夫

洪城郡高道市 高道釀造組合

龜項面職員一同

洪城郡龜項面新谷里 新谷釀造場 主 鄭□模

洪城郡金馬面佳山里 佳山釀造場 鄭寅化

洪城郡金馬面竹林里 吳貞煥

洪北面職員一同

禮山郡德山面卜唐里 李澤魯

洪城邑內 尹相龍

洪城驛通 日淸生命監督所 所長 申景浩

洪城郡洪州面玉岩里 崔東華

洪城邑內 自轉車舖 岡田商店

洪城郡高道面東星里 朴善圭

洪城郡高道面東山里 成勳慶

洪城郡龜項面鉛封里 田溶朔

洪城郡龜項面長湖里 李錫勳

洪城郡金馬面華陽里 張錫夏

洪城郡金馬面富平里 精米業 黃芝淵

洪城郡金馬面新井里 明華鎭

洪城郡金馬面富平里 李元永

洪城郡洪北面大東里 釀造業 洪庚杓

洪城郡洪北面新井里 柳在洙

洪城郡洪東面孝鶴里 李來憲

洪城郡洪東面雲月里 朱宜鎬

洪城郡廣川面廣川里 李康鎬

洪城郡廣川面廣川里 文昌錫

洪城郡廣川面相井里 吳敬燮

洪城郡廣川面芙蓉里 藥種商 鄭和謨

洪城郡結城面邑內里 明慶鎭

洪城郡西部面梨湖里 釀造業 朴貞圭

洪城郡長谷面上松里 李用雨

瑞山郡高北面新松里 李埈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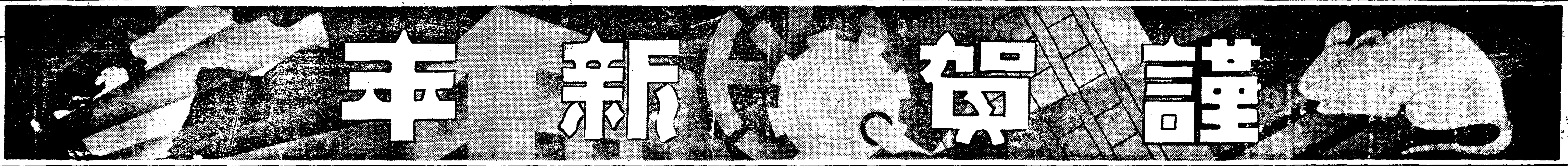
瑞山郡高北面新松里 金夏經

瑞山郡高北面新松里 金桓經

保寧郡鰲山面明德普通學校期成會一同

忠淸南道洪城郡洪州面五官里 洪城商會 主任 李漢基 電話五八番 電略リ又八(〇コ) 振替 一五一三三番

000022



義州

古館鑛業所
義州郡古館面上端洞

平北義州邑內
中樞院參議 高一清

義州郡廳

義州淸城鎭親交會

平北義州郡玉尙面棠木洞
信盛釀酒商會
崔春鳳

義州鑛山株式會社
第二鑛業所

平北昌城郡袘面玉溪洞
袘面鑛業所
尹學昇

義州郡水鎭面德峴洞蔥里
德永鑛業所

喪中欠禮
義州郡水鎭面德峴洞蔥里
白龍袘

平北義州郡玉尙面事務所
崔鳳洙 崔昇鋼 金三煥 崔尙善 張天福

平北義州郡玉尙面中台市
大元商會自働車部
金連鶴

平北義州郡玉尙面中台市
義州鑛山指定運搬 同信商店
崔孝鳳

義州郡玉尙面中台市 德興商店 崔性根

平北義州邑內 檢查合格穀物貿易 鴨江酒造社 李學淳 電話七三番 振替京城一一五五九番

平北義州邑東部洞 高東煜

義州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平北義州邑 養實私立普通學校

平北義州邑南門外 東一洋品店 尹尙雲

平北義州郡光城面 道評議員 姜利璜

義州藝妓券番 副取締 金翠蘭

義州藝妓券番

平北義州邑南西洞 金亨煜

義州邑事務所 邑長 金柄鍊

平北義州邑內 邑會議員 金炳洙

平北義州邑內 邑會議員 金寬濬

平北義州邑內 邑會議員 申彦清

平北義州邑內 申彦洽

平北義州邑內 穀物肥料 義順昌 任道淳 電話七二番

平北義州邑舊南橋 漢藥乾材洋藥各種 濟生堂藥房 金秉憲 電話五八番

義州金融組合 理事 吉本五六

義州郵便局 局長 島岡熊次

義州邑市場通 朝鮮料理 萬盛館 黃成國

義州邑內市場通 朝鮮料理 大盛館 盧貞元

平北義州邑 關西商會自動車部 張明奎

平北義州郡玉尙面中台市 鑛業 金義鎭

平北義州郡玉尙洞中台市 鑛業 李明鎬

義州郡玉尙面 玉尙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州郡玉尙面事務所 面長 張文坤

義州淸城鎭 織物雜貨穀物貿易 大同號 主 崔正[illegible]

義州郡加山面玉江洞 張永裕 崔天健 張基玉 金亨懋

平北義州邑內 濟衆醫院 醫師 朴承大

義州郡加山面事務所 面長 金用[illegible]

平北義州郡水鎭公立普通學校 張國翰

平北義州郡加山面[illegible]洞 同和商務組合 白亨健

平安北道義州郡加山面方山洞 同昌商會 邊四彦

平北義州郡加山面方山洞 鮮光商店 崔世正

玉江公立普通學校 崔鳳休

義州郡玉尙面棠木洞 李世珍

平北義州淸城鎭 綿絲布木商 月城新聞特約店 瑞記號 侯德發

義州邑內 國境映畫社 金學兵

三水

咸南三水郡
三水釀酒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姜一起

三水郡仲坪塲
仲坪塲商務會
李載獻 張斗益 金德鍾 孫基燮
朴希喆 趙景燮 洪致奎 朴貴淵
金景化 吉昌一 崔潤興 崔寅杰
權聖浩 朴命根 明濟垕 崔順瑞
李浩範 崔文虎 李翰經

三水郡自西面下院洞
金炳洙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木材業 尹應洙

三水郡自西面上巨里
面協議員 李昌植

咸鏡南道三水郡
新乫坡官民申合會

三水郡三南面仲坪塲
公人俱樂部

襟水面職員一同

三水郡好仁面 事務所職員一同

好仁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三水郡 館興公立普通學校

三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三水郡三西面堡城里 崔英傑

自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三水郡新乫坡鎭 東興商會 金炳穀 趙炳格

三水郡新乫坡 德順福

三水郡好仁面讓城里 私立仁成學校職員一同

館興面事務所職員一同

三水郡三西面事務所 職員一同

三水郡自西面 上洞簡易學校 朴容台

三水郡自西面上洞里 金萬福

三水郡新乫坡鎭 李容祚

三水郡江鎭面新乫坡里 李淙植木材作業所

三水郡新乫坡 姜永駿

三水郡新乫坡 李湧在

咸南三水新乫坡鎭 カフエ キリン 主 金萬鎬

江鎭面協議會員 三水郡學校評議會員 金駿聲 電話三三番

咸南三水邑 啓星醫院 趙啓星

三水郡新乫坡 樹茂永本店

三水郡好仁面 面長 玄元三

三水郡館興面三德市 曺炳杜

三水郡館興面三德里 邊璟泓

三水郡三西面堡城里 東日商店 主 李熙珍

三水郡三西面堡城市 物産客主 文士俊

三水郡三西面堡城里 李瑒俊

三水郡三西面堡城市 新興商店 金士淸

三水郡三西面堡城市 李智洙

三水郡自西面上巨山農區指導 金景俊

自西面事務所 [illegible]乙植

三水郡自西面上洞口 山農指導區 朴斗璜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龍盛商店 主 朴龍玉

三水郡自西面上洞口里 金奎澈

新乫坡 梁根孝

三水郡新乫坡 姜文錫

三水郡新乫坡鎭 康壽連商店

三水郡新乫坡 三和旅館 徐春俊

咸南三水郡江鎭面新乫坡里 司法書士 趙昌福

咸南三水郡新乫坡鎭 李柱鳳商店 電略(ㅎ)又〻(ホウ)

三水郡新乫坡 智道元

三水郡新乫坡 日鮮食料品商會 全鳳俊

三水邑內 共興會社三水出張所

遮湖

三水郡三西面堡城市 張成鎬

三水郡新乫坡 金熙俊

三水郡新乫坡 崔雲鳳

三水郡新乫坡 楊萬興

咸南利原遮湖港 遮湖漁業組合

咸南利原遮湖港 海産物貿易 大元號 李柱國

咸南利原郡 南面職員一同

咸南利原遮湖港 李致洙

咸南利原遮湖港 李慶甲

咸鏡線遮湖驛前 海産物委托販賣 ⓢ湖南合資運輸組 代表 金學經

朝鮮運送株式會社遮湖營業所 主任 寺內駒三郎

遮湖港 金啓允

漁船と漁業者保險代理店 張星煥 遮湖港

遮湖港 雜貨商德元商店

利原鐵山會社 日高春一郎

遮湖勞働會 代表 張南極

遮湖港 李有甲

遮湖港 遮湖釀酒所

遮湖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遮湖港 李長根

遮湖港 崔覲鎬

咸南遮湖港 星明堂藥房 金明秀

遮湖港 魯熙均

遮湖水産支部長 沈永澤

遮湖港 金景哲

遮湖港 梁鳳輝

遮湖港 金泰恒

遮湖港 金漢雄

遮湖港 廉仁植

遮湖港 張信九

遮湖港 嚴周甲

遮湖驛長 牧野和夫

遮湖港兄弟商店 魯熙善

咸南利原遮湖 李成甲

遮湖港 徐永昭

咸南利原遮湖港 司法代書 趙東熙

遮湖港 金完浩

遮湖港 劉泰勳

遮湖港 行政代書 金泰奎

梨浦

梨浦市 百貨 廣信商會 崔圭源

京畿道驪州郡 梨浦金融組合職員一同

梨浦郵便所長 崔憓源

金沙面職員一同

梨浦里 崔錫朋 崔錫啓 崔錫孝

梨浦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驪水金山 李道永 權壽命 安泰用

利川邑 京城製麵部 主 張[illegible]

梨浦診察所 朴元植

梨浦市 金榮鎭

梨浦金融組合 姜豐記

梨浦金融組合 朴寅昌

梨浦市 李揆錫商店

介軍面學校評議員 郭壽榮

香里 金朝漢

梨浦金融組合 李興植

梨浦市 三盛館 主 金鳳弼

松村里 金榮錫

梨浦市 李源興

介軍面石幡里 崔鍾夏

介軍面石幡里 權弼圭

介軍面下紫浦里 振興商會 主 鄭命根

司法書士 渡邊孝次郎 京畿道梨浦里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三

校門을나서는新人群像

…는、朝鮮에 가는길이 / 흙里를 / 어이갈꼬 걱정마라 / 行은 제나갈길을 / 제가혼히 가느니라 —五山—

實社會로突擊할 千百名弩級俊銳

校門을새나오는進軍喇叭 新春大地를울리다

때는 마붉어 명동하기시작하는 신춘이다 이땅의 희망이요 이땅의 양양한미래를 호올로 간직하고잇는 조선의 아들 딸들이 과거 십여년동안을두고 따뜻한 사부(師父)들의 훈도속에 형설(螢雪)의 공을닥근후 한늘가튼 포부와 태산가튼 책임을지고 물결도 거친 실사회의 대양(大洋)을 향하야 광명잇는 진수식(進水式)을 거행할날도 이봄이다 그들이 십여년동안 어머니 젖가슴속 가튼 따뜻하고도 만만하든 모교에잇을때 아득한 압날을 두고 무엇을 꾸어잇스며 무엇을 설계하엿든가? 젊은 가슴에 감추어 두엇든 그설계에 따라첫 「쓰타-트」를 땅에 밟을날도 이봄으로 닥처왓다 대체로 금년봄에 교문을 나서 실사회로 투족할 전문학교 이상(以上)졸업생은

▲帝大五〇名 ▲延專七五名 ▲梨專五八名 ▲普專一三七名 ▲中專二一名 ▲法專四二名 ▲京醫專一七名 ▲藥專二六名 ▲世專三三名 ▲樂專二四名 ▲大邱醫專一五名 ▲平壤醫專三十一名 ▲高農十六名 ▲高商十八名 ▲商工十二名 ▲京城保育三十七名 ▲中央保育十五名

이상 열여덜 전문학교외에 동경 대판등 일본내지 류학생으로 금춘의 졸업생 사백륙십명을 합하야 일천일백삼명으로 그들은 각각 전문에 따라서 명랑한 장래를 향하야 힌찬 스타-트를 하게되엿다 그러나 그들의 첫 발자욱을 가로막는 가장 불행한 마장(魔障)은 이른바 취직난으로서 이것도 금년은 밀려드는 경기풍(景氣風)으로 례년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여 그들 빗난 압길이 더욱 명랑하다고 전한다 그러면 아래로 그들의 군상(群像)을 점고해가며 취직 전선의 개항을 보기로하자—

CCC!우렁차게 明朗한就職凱歌

七十五名英才社會入門은OK

延禧專門學校篇

시외 신촌(新村)의 녹음속에그 웅자를 감주고잇는 조선 사학(私學)의 거채(巨寨)인 연히전문학교(延專)는 새해에도 문과(文科)에서 여들명 상과(商科)에서 오십명 수물과(數物科)에서 열명 도합예순여들명의 절문일군을 실사회에 내보내게되엿다 해마다 입증더실력의 충실에착착 매진하고잇서서 근년에와서는 각별하게 교운이 발전되고잇는 연전의 곱은을 나서는이 륙십여명의 준예에게 빗나는전통을 가진CCC는 과연어떠한 훈련을 베푸럿스며 전후사년의학업을마치고 각모(角帽)의「어머니」를 고하는 「히-로-」들의 가슴에숨은 설계와 포부는 과연어떠한가? 이는오로지 창내에잇서서의 그들의 행로가 증명할것이지만 위선그들의 각각실사회의 구석구석에 나아갈 부서(部署)는 어떠케정해젓는가? 잠간 그들의 취직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갓다

그학교는 원래기독교각파련합경영이니만치 조선내의 기독교회방면의 각기관에서는 자못유리한 우선권을가저서 취직난 취직난의 소리가 귀에아푼때에도 늘다소다른데보다 활기를 띄고잇섯다 취직되는 방면은 이러케 대체로기독교기관이 대부분인데 문과와 수물과는 학교 상과는 역시 실업계로 만히진출한다고한다

금년봄만해도 졸업생 칠십오명중에서 오십명은 확실히 취직하게되엿고 여기에 가사에종사하는사람까지 치면미취직의 구령에서 헤매는사람은 이십「퍼센트」가 되나마나 하다고한다

새해졸업생의 취직지망을보면은행회사관 청방면이 여문과가 여섯명상과가 서른한명 수물과가 네명이오 상업학교로 가려는사람이 문과에 두명 상과에 네명수물과에한명이오 그밧게 가사에 종사할사람이 상과에 열다섯명 수물과에 다섯명인데 이미채용을 신청해오곳도잇고 내약을바든데도 잇서서 대체로금년에는백파-센트의 취직률을 실현할 학교당국은 확신하고잇다 이리하야 신춘의수풀속에서 울려나오는 C、C、C、신춘 취직행진곡은 자못활발하다

새해졸업생의 일홈은 아래와갓다

文科 姜希甲 金大均 金炯斗 林昌翰 裵恩愛 宋邦鏞 崔恒錫 洪胤植

商科 康弼興 金光涉 金誠洙 金福同 金德成 金宜根 金聖國 金雲培 金潤根 金日培 金重遠 金珍洙 金昌華 金泰利 金亨泰 權應澤 李慶得 李東壽 李鍾貞 李萬傑 李紹信 李象西 李平得 李有聖 李延再 李鍾燦 李致九 李宮成 李和圭 林炳昌 閔丙宜 成完鏞 宋秉旲 沈昌植 元致升 張炳日 鄭龍洙 鄭寅協 鄭完熙 鄭俊碩 齊能煥 趙鍾杓 池生業 車亨基 韓希洙 咸景澤 洪性昊 黃煥昇 李榮鄗 郭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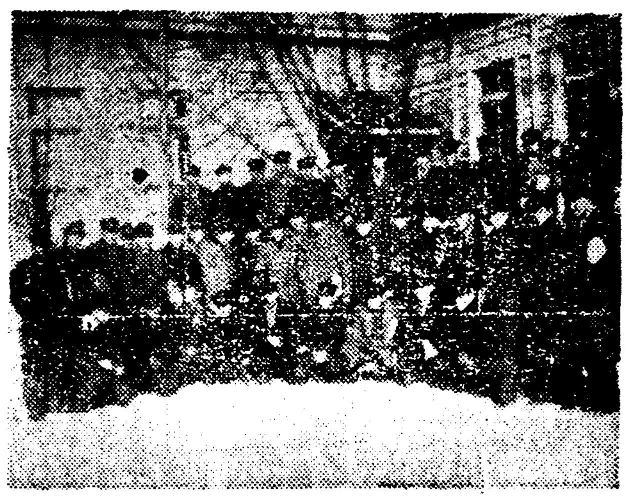
數物科 金奎煌 金基潭 李敏商 朴鍾甬 徐丙熙 宋詩千 錢毅煥 鄭顯植 丁明鎬 洪逸寬

法服도來日모래

그러나就職은多方面이다

法學專門學校篇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시대부터 지난봄까지 전후이십사회 동안일천이십륙명의 만흔 졸업생을낸 광화문통(光化門通)의경



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는 새해에도 수인천명의졸업생을 내보낼터인데 그중에서 마흔두명이 조선인학생이다

현재 조선내의 관학(官學)은거진모다 조선인학생을 매우적게 수용하야 조선인을위한학교갓지아니한 느낌을주고잇는데 법전만은 가튼관학이면서도 대정십일년 까지는 조선인 학생만 수용하다가 그뒤로 신교육령(新敎育令)에의하야 얼마간식 일본내지인학생도 바더왓다고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인학생이절대다수인것을 자랑하는것이 법전의특색이다 그중업생은 학교의 성질상자연재판소가주요 다음에행정관청금융조합은행회사방면에취직되며 이미각방면의유력한부서에 나아간사람이만타고한다 그래서 조선내의조선인판검사(判檢事)의 사분지삼은 법전출신으로서현재 서른세명 검사가일곱명이외 재판소서기겸통역생이 이백사명 변호사(辯護士)가 륙십칠명으로서조선법조계(法曹界)에 엄연한세력을이루고잇다 이밧께은행회사등 실업계에도 칠십구명 금융조합에 사십사명의 현역군을보내고잇다

그러나 자금까지는 역시 재판소를중심으로한 관공청이 법전졸업생의 가장적합하고 유력한 취직무대엿스나 새해졸업생들의지망을 보면 이미몃해전부터도 그러한 경향이 잇섯스나 금년에와서는 매우현저하게 실업방면(實業方面)의 지망자가 만어서 한가지새로운 현상을 이루고잇다 취직율은 다른방면의 취업을 얼마허락지안는 방면이요 또 그졸신선배가 이미지여노흔 지반이경고한 두가지유리한 조건때문에 해마다 펴활발하엿다

지난해만보드라도 졸업생륙십일명(그중조선인이 사십사명)중 면사람의 가사종사와 상급학교로 간사람과 시험준비하는사람을 제하고 취직을 원하는사람은 여름방학까지 전부취직이 끗낫다는 조흔성적을보이고잇다

금년졸업생의 취직지망방면은 이미 전부모엿는데 그중에서은행방면으로는 식은(殖銀)에 세명상은(商銀)에 두명 동일은행(東一)에 두명 한성은행(漢銀)에 두명저축은행(貯銀)에 한명은 이미정해젓고 재판소의 열다섯명과 금융조합의 세명도확정되엿고 아직교섭중인 전매국(專賣局)철도국 (鐵道局) 체신국 (遞信局)의 각각 두명식과 총독부、도청의 이십명 가량과 화신(和信)의 상사명은 대체로 정해진것으로 학교당국은 락관하고잇다

이로써 금년에도 법전출신의 취직전선의돌격은 례년에지안케 각방면에서 성공을하리라고 전한다

이제새해졸업생중에서 조선인학생만추리면 아래와갓다

韋青龍 裵燦國 朴日峰 朴慶在 朴昇準 俞誠鎔 李裕鎬 李圭衡 李祚憲 李正來 梁應華 梁興錫 柳興相 柳時根 高年動 太完善 宋永狹 南呂偉 羅祥河 黃錫萬 郭義榮 權五翕 田陽秀 安文慶 安基榮 崔聚合 姜日求 金炳奎 金典偉 金達起 金宗極 金永淳 金貞基 金栽鼎 金亨鎭 金昇一 金潤洙 徐重鉉 梁炳武 申孝善 辛基成 成東準

就職戰線無風帶

卌二名의젊은「닥터」를보내는

世富蘭偲醫專篇

세부란스 련합의학전문학교(世富蘭偲聯合醫學專門學校)— 간단하게부르자면세전(世專)—의금년졸업생은 설흔세명이다

그들은 아프로 정월 이월삼월해서 석달만지나면 제각금웅근한선생님이 되어서 청진기와 「메스」를 손에들고 병고에헤메는 형제들을위하야 활동하고저 다섯해동안 싸흔공이 손끄테서련된 기술로써 매처진 두팔을 고요히 어루만지면서 졸업식의 「그다음날」을 기다리고 잇다

◇

이와가티 금년에도 설흔세명 「역군」을 우리의 의료계로 내어보낼 세전의특증을 끄집어내어보면 개업의사가 만흔것과 시간적으로 편실용적이라는것이다 세전졸업의 의사가 작년도까지 도합 삼백구십륙명인데 그가운데 개업의가 일백륙십구명이니 거진 절반이나된다 이처럼 개업의가 만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상당한 리유가잇다

세전에서는 졸업을 하고나면 부수(副手)라는 일홈으로 부속병원인 세부란스병원에서 일년동안 림상의 실지연구를 자의로 할수가잇다 그것은 다른대학의 연구실과가치 학리연구에만 편중하는것이아니라 림상의실제를 그일년동안에 각과를모조리—다 하게되는것이다 그러니까 오년동안 배운데다가 또다시 일년동안 실지로 각과마다 한번식 실지의 의사노릇을하고난터이즉 눈병난 사람도배아픈사람도 종기난사람도 다보아주어야할 개업의로는 가장유리한 콘듸순인것이다

◇

이제 금년 졸업생 설흔세명의 분산상태를 보면 아프로 삼월에가서 극히 적은범위의 변동은 잇슬터이나 공의로 지방에갈사람이 이상인 개업이 이상인 밋쇼관게의 병원으로 취직하여갈사람이 역시 이상인이요 그나머지 스물륙명의 절대다수는 학교의 병원에 부수로서의 일년을 지내고 그대로달개가 도치여 갈터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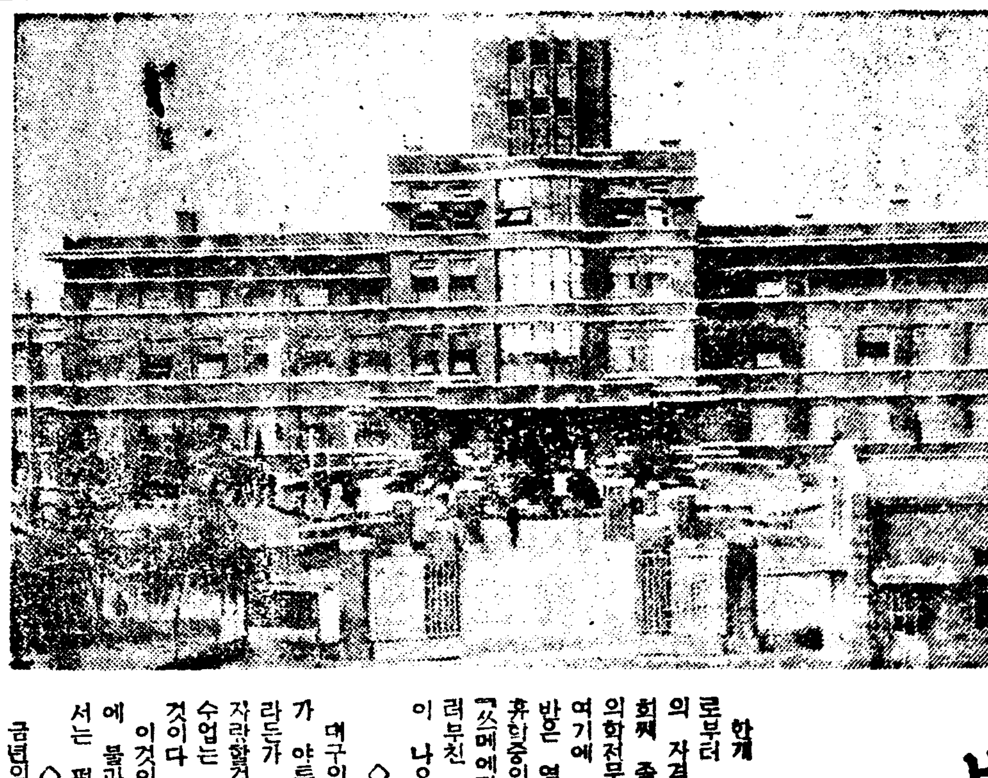
◇

이와가티 세전은 취직전선으로는 아주 무풍지대다 따려서 저—기 동편에서 소사오르는 신년의 새해그것처럼 그들은 명쾌하고 안심되고 유쾌하다 그러한 그들설흔세명은 다음과갓다

▲康德虎 ▲金景洙 ▲金鎭基 ▲金鐵星 ▲李筒永 ▲高鎭聲 ▲金奎赫 ▲金萬基 ▲南宮燕鎬 ▲李容勛 ▲李貞熙 ▲具然幸 ▲金亨潤 ▲李相瓚 ▲李壬鳳 ▲李鍾德 ▲李喆永 ▲閔洸植 ▲劉任學 ▲薛景成 ▲俞日濬 ▲鄭大洪 ▲崔松林 ▲李天珪 ▲朴錫龍 ▲朴允秉 ▲趙容林 ▲鄭鎭旭 ▲權亨植 ▲李衡來 ▲朴容圭 ▲裴煐 ▲俞鎭杭 ▲朱元鎬 ▲鄭忠源

배부른홍정 골라잡아就職

大邱醫學專門篇



한개 의학강습소(醫學講習所)로부터 당당하게 의학전문학교의 자격을 전취한이후 발서네회째 졸업생을 내이게되던 대구의학전문학교(大邱醫專)。여기에 현재 조선학생의 졸업반은 열여덜명 그중에 세명이 휴학중이고 이봄에 사방모자에 「쓰메에리」대신 압자락을 꺽갈러부친 「선생님」으로 열다섯명이 나오게되엿다

◇

대구의전은 설립이래 아즉해가 야튼만큼 뿌리백힌 전통이라든가 하는것은업스되 한가지자랑할것은 다른 의전에는 볼수업는 구강외과(口腔外科)를둔것이다

이것이 그저 조고만한 한과에 불과한것가트나 실지에잇서서는 퍽이나 필요한것이다

◇

금년의 취직예상을 보면 발서 그 반수이상의 수의 신입을 밧기는하엿스나 저편에서 신입한다고 싸구려식으로 아모데나 취직을 헤가지는 아니하는것이 대구의전의 위엄이다 그래서 반수나 신입은 바덧서도 적당치 못하다고 인청하고 대부분은 회사자를 노앗다

「그러면서 인제 상월이되면 적당한 자리에 다 취직이 되어가니까 말하자면 취직전선으로는 배부른괴대다

이러케 취직이 되어나가는곳은 각도도립의원의 의사、공의개업、그리고 만주의 군의등이만타

이러한 열다섯명의 성명은다음과갓다

▲金必元 ▲金占默 ▲金觀根 ▲金辛德 ▲金顯珏 ▲愼東範 ▲車東昌 ▲曹乙煥 ▲宋英憲 ▲張志萬 ▲丁永根 ▲杜晳奎 ▲朴斗軾 ▲朴昌默 ▲朴晩誠

錦山

錦山郡公立學校校長會

錦山郡職員一同

錦山人蔘同業組合

錦山私立心光學校

錦山幼稚園

錦山運輸株式會社 電話八番

錦山麵子株式會社

公醫 李鍾善 電話九番

任九桓

崔在寬

趙文衡

錦山人蔘貿易商 月星人蔘商會

綢緞布木商 和信商會

全北錦山邑 綢緞布木和洋雜貨食料品菓子文房具紙物 永和商會 主 金泰相 金洪圭

朝鮮料理 錦山館

全北錦山郡珍山玉溪金山 代表者 金英大

錦山稅務所

錦溪金融組合 理事 山城幾三

秋富郵便所長 渡邊松

濟原面職員一同

南一面職員一同

錦城面職員一同

郡北面職員一同

全北錦山 道會議員 寺井政次郎

阪本宗十郎

宋榮堂

資生堂

全北錦山 森川自動車部

無名氏

錦山郵便所 赤星赤水

錦山面職員一同

錦山煙草耕作組合職員一同

錦山砂防事業所所員一同

福壽面職員一同

錦山人蔘商 昌信商會

全北人蔘商 申泳善

濟原面明谷里 金澔

錦山面陰地里 金斗星

甲種料理 第一館 主 尹重弼

守山堂家具店

濟原酒造場 金仁貴

富利面職員一同

장국밥집 金永根

郡北面天乙里 旭煥

江景屋

濟原面濟原里 許光石

福壽面水心垈 趙熙靜

富利酒造場 吉相穆

秋富酒造場 李秀榮

海物商 主 在玉

共和商會 辛洪玉

秋富面職員一同

朝鮮日報社錦山支局 顧問 李敬儀 金容憲 支局長 朴允宗 記者 全洪植

茂朱

茂朱金曜會

茂朱邑內 大同醫院長 任賢宰

茂朱邑內 芝南醫院 公醫 申鉉敵

茂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茂朱郡廳職員一同

茂朱邑內 茂朱齒科醫院 韓競洙

茂朱邑內 茂朱釀造組合

茂朱邑內 朝鮮料理 李花閣

一定朝貨宣一般貨物 同信商會

司法書士 李勉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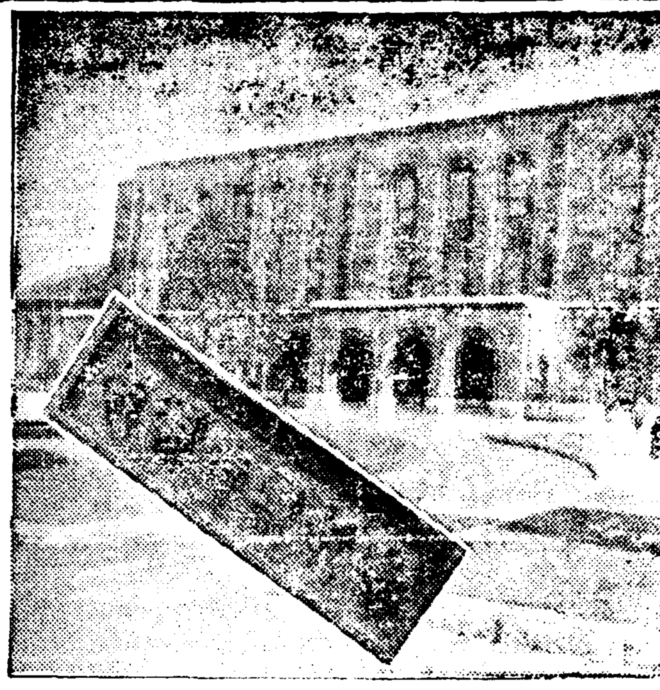
茂朱邑內 無名氏

茂朱面事務所職員一同

茂朱錦山間 新英自動車部

000023

波瀾重疊·新卒羣



法學士로店員에 官職萬能도녯날꿈
朝鮮人卒業生은全部五十名
京城帝國大學篇

조선의 최고학부로 오직 대학으로는 하나인 관립경성제국대학은 금년에 법문학부(法文學部)에서는 제팔회로 합계 일백륙십명의 졸업자 의학부(醫學部)에서는 제칠회로 칠십륙명의졸업자를 내게된다 그 가운데서 조선사람은 법문학부에 삼십구명 의학부에는 열한명이 졸업을 하게되는데 법문학부에는 법학과(法學科)이십명이 단연 수위로 철학과(哲學科)한명 사학과(史學科)오명 문학과(文學科)열세명이며 의학부에는 륙십륙명 졸업자가운데서 겨우 열한명이라한다

의학부졸업자는 거의 전부가 해마다 대학연구실에 그냥 남아 잇서서 연구와 실습을 더하게 되는터이므로 금년도 례년과 마찬가지 일것이 라한다 작년봄 제칠회까지의 졸업자총수는 삼백팔십칠명인데 그가운데서 일백팔명이 조선사람으로 그들은 모다 청진기(聽診器)를 귀에걸고 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잇는터이라한다 법문학부의 법학과 졸업자는 그대수가 관청에 취직을 희망하는사람들인데 해마다 사월졸이나되여야 취직할곳은 대개 경정되게된다한다 일본속담에 법학사면 사위삼겟다는 말까지 잇서서 법과졸업자의 황금시대를 나타낸적도잇섯지마는 그것도 이제는 옛이야기고 요지음에는 법과졸업자가 반드시관계(官界)에만 드려가지 지안는다 한다 어데든지 회사나 은행이나 심지어는 개인의 상점점원으로라도 취직이 될수잇기만하면 천행으로 생각하게되는 형편이라한다 그러나 작년 제칠회 까지의 법과졸업자 총수이백오십칠명가운데 취직자총수가 이백네명인데 행정관청과 사법관청에취직한사람의 수효가 일백이십삼명으로 과연 반수이상이 관계로진출하고잇다

그러고 철학 사학 문학각과졸업자는 종래의 례를보아 금년도역시 관공사립학교 교원을 지망하는이가 만흔터인데 그들을 장차 어데서 고빙하여가게 될넌지 아즉은 별로히 작정되여 잇지안타한다 조선학생졸업자성명은 다음과 갓다

▲法文學部
▲法學科 姜泰根(慶南) 李榮衍(忠北) 金永年(忠北) 金彝洙(忠北) 金昇鎬(忠南) 金正濟(全南) 洪永杓(咸南) 洪鳳珍(京畿) 洪賢杓(京畿) 吳儀冰(京畿) 徐載元(忠南) 趙炳契(京畿) 朴晩元(慶北) 楊正秀(平南) 李根七(平北) 李鍾喆(忠南) 李天祥(平北) 李炳琮(忠南) 梁熙鳳(黃海) 林漢璟(京畿)
▲哲學科 崔載鉉(平南) 鄭近永(京畿) 朴義鉉(咸南) 盧大奎(平南)
▲史學科 李明遠(忠北)
▲文學科 金亨奎(咸南) 具滋均(京畿) 崔星熙(京畿) 車相轍(黃海) 申源雨(忠北) 全昌龍(平南) 孫洛鎭(忠南) 鄭亨容(忠南) 李永修(平南) 李元榮(京畿) 李韋浩(忠南) 李鍾玉(忠北) 林學洙(全南)
▲醫學部 金時昌(慶北) 金雄奎(平南) 嚴文鉉(慶南) 權寧濬(慶北) 崔義俊(平北) 愼允範(京畿) 閔炳洙(京畿) 李興培(京畿) 李敏洙(咸北) 李鍾完(忠南) 李周熙(江原)

杏林의英材 卅一名이助手로
平壤醫學專門篇

평양 의학전문학교(平壤醫專)는 의전으로 승격되후 두번재의졸업생을 내보내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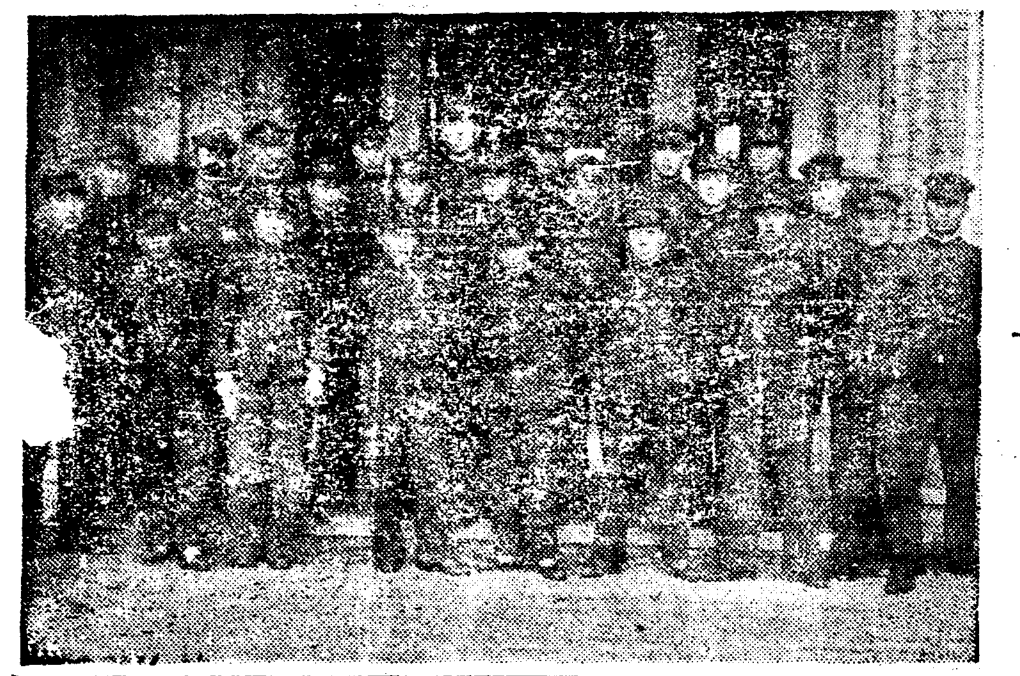
새로운 의학사는 륙십칠명으로 그중에서 조선인측은 수재 정태영(鄭泰英)군을 잇갈게도이 학긔말에 일허버려 삼십일명뿐으로 역시일본내지인보다 적다

졸업생 전부가 평남 도립의원(道立醫院)각과에 난호여 실습을하기로되여 취직자는 한명도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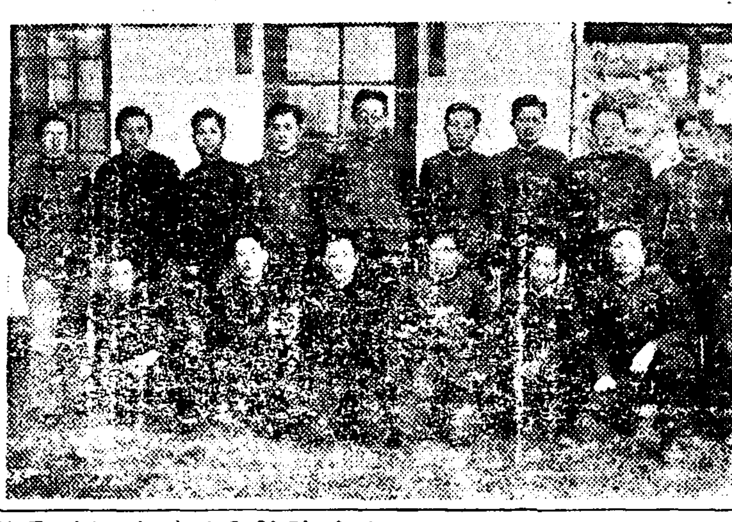
전부가 실습에 밧부기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직접듯지못하여 서어한감이 업지안호나 엇절수업섯스므로 명부만은 발표키로한다

◇…卒業生名

▲殷濟釗▲許珏▲金熙兌▲金化田▲金在乙▲金錫重▲金勝燁▲金世桓▲金哲祈▲金宗允▲康豪永▲洪淳憲▲黃明燁▲崔永山▲蔡秉善▲申王雨▲石鎭漢▲金璣聖▲宋能燮▲張元鎭▲張錫春▲張致先▲張鳳韶▲趙鳳昊▲朴萬華▲楊鳳燮▲李根培▲李善牖▲李憲漢▲李炳九▲羅致憲



學園의武陵桃園
高農十六名의흙의아들



수원역(水原驛)에서 내려서 서북쪽으로 논가운데로 대쪽가티 곳게노힌 신작로를 약십오분가량거러가면 그곳에 학교촌한개가잇스니 이곳이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農)이다 이학교는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이 이웃하야 이일대에는 학교관계자이외 사람은 한사람도 살지안는 순전한칼레지타운이다 조선에서는 또다시 차즐수업는 다만한개의 학교촌으로 팔만여평이나되는 넓은교지안에 산이잇고 시내가 흘르며 논이 바둑판 처럼 네모 반듯반듯 한것이 버려저잇고 과수원(果樹園)도 잇스며 방목지(放牧地)상원(桑園)이 잇고 오십칠정보나 되는 평장한 연습림(演習林)까지 학교기지에 연속해 잇서 이곳이야말로 학원승에 별유천지라고 말할수잇다 이와가튼 별유천지에서 대자연을 벗삼아 삼년동안이나 어느때는 정복정모로 강의를듯고 어느때는 실습복에 밀집모자를 쓰고 똥통을 메며 모를 심고 나무를 심어 버젓한기술을 배우고 이봄에 사회로나갈졸업생은 몃명이나되며 그들의 품은희망은 무엇이고 그들의취직할곳은 어데인가?

이봄에 이학교를 졸업할 학생은 농학과(農學科)가 서른여덟명 림학과(林學科)가 스물일곱명모다 예순다섯명으로 그중에 조선인졸업생은 농학과에 아홉명 림학과에 일곱명 모다열여섯명이다 그들중에는 대개관공서에취직되기를 희망하는이가 만코 그외는학교교원을 희망하는이도잇는데 취직운동은 지금부터한참 맹렬히 하려는중으로 아직까지조선인졸업생중에는 한사람도갈곳이 확정된사람은 업다한다 약륙칠년전만해도 이학교졸업생은 데려갈곳이 만코 갈사람은적어서 서로 유리한조건으로 끄러다니여 학교교원으로가면 백여원식 관공서에로 가면 곳기수(技手)로채용되며 륙칠십원식초봉받기는 용이하엿는데 취직난의바람은 이학교에도 엄습하야 지금은 그다지 경쟁적으로 데려가려는곳도 업슬뿐아니라 조건도아주 떠러저서 학교교원으로가야 칠팔십원 관공서로가면처음에는 곳임관도 못되고 고원(雇員)으로 채용되야 초봉에서 사십오원밧기에도 여간어려운것이 아니라고한다 고원으로 잇는지 일년가량잇다가 군기수가 되는이는 속한편으로 더군다나 산미증식계획이 좌절된뒤로 그들의 취직처는 가일층 범위로 좁어지고 또조건이 조치못하게되엿다 금년에는 조건은 그다지 조키를 바랄수업스나 졸업하고 나갈때까지에는 대개결정될것이라고 안심하고 학교당국자와 졸업생들은 유유자적 취직처를운동하고잇다한다 그들은 흙의 아들 자립하야과괴술자이다 수원을 경영할수도잇고 농장도 경영할수도잇다 짤아 근년에는 졸업생중 사오십원 자리의고원이되야 월급쟁이가 되려는생각을버리고 자가가 자근자본으로 작으나마 과수원과 농장을경영하야 밀집모자를쓰고 똥통을 메고 제일선에서 활동하는이가 만허저간다고한다

(農學科)▲安昌洙▲延延[illegible]▲韓桐鎬▲金駿鎬▲申在圭▲鄭泰喆▲朴龍根▲柳蓬永▲林基甲(以上九名)
(林學科)▲尹鍾瑗▲吳榮洙▲孫昌奎▲鄭仁澤▲朴鎔鎭▲李致榮▲劉穀煥(以上七名)

順風에돗을달고
安全地帶에서서就職難은彼岸火
京城醫學專門篇

관립경성의학전문학교는 금년에 제이십회의 졸업생을 사회에내여 보내게 되엿다 졸업예정자의 수효는 전부 칠십구명인데 그가운데서 조선사람은겨우 열일곱명으로 전수효의 사분지일도 못된다 의학교는 다른데와는 달라서 졸업만 하고나면 어데던지 직업을 가질수잇는 아즉도 비교적 유리한조건이 부터 잇다 긔왕의초긔 중긔의졸업생들은 이미 그젼문령역에서상당한 지반을 점령하야 경제적으로 성공한사람도 만커니와 학술적으로 기픈연구를 싸하서 학위를어더 의학계에 당당히 권위자가 되여 잇는이도 적지 안타한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는 의학을 지망하는이가 차차 만하저서 졸업을 하고나서도 좀처럼 개업할 자리를 선택 하기가 어려웁다 한다 그것은 웨그런고하면 조선안에서 어지간만한 도시에는 대개 의사와병원이 업는곳이 업슬뿐더러 심한곳에는 한지방에 사오개의병원이 이미 배치를 하고 잇서서 신진 졸업생으로는 그들의 긔성지반을 뚤코 드러가서 안즐 자리가 업는 때문이라 한다

그러치 마는 개업을 할수업는 이들은 공립혹은 사립병원으로 취직도 하며 지방 군읍으로 공의(公醫)가 되여 가기도 하야 어떠케 하던지 그호구의 길은 넉넉히 차즐수 잇게 된다 한다

그런데 금년 졸업생들은 모다들 어데로 가려는가 그학교 생도과(生徒課)당국자의 이야기를 드러보면 아즉 취직 할 곳이 작정되여 잇는 사람은 겨우 몃명에 불과 하나 사월 오월까지에는 대부분은 각처 병원조수의사로 취직하게 되리라한다 졸업하는 길로 개업하겟다는 용긔를 내는이는 좀처럼 업고 대다수는 련습도 할겸 병원으로 취직하게된다한다

그러고 일부분의 극소수의졸업생은 학교에 그냥나머잇서서 이삼년 혹은 삼사년식 더실습도하며 연구도 하는것이 매년의례이므로 금년도 약간명은 교에 나머잇게 되리라한다 금년에졸업할 조선학생 열일곱의성명을 알어보면 다음과갓다

▲趙炳學(咸南)▲李東沂(咸南)▲李軒榮(忠北)▲李基寧(京畿道)▲李熙奐(咸南)▲梁鍾鉉(京畿道)▲鄭學淳(京畿道)▲鄭浚(慶北)▲崔天澈(平北)▲韓承鎬(忠北)▲金海龍(京畿道)▲金南鎭(全南)▲金熙圭(平北)▲金炳珩(平南)▲金明紋(京畿道)▲金昌式(咸南)▲金春明(咸北)

就職無用 自營黨
齒專十六名 덴티쓰트

시내 남대문통(南大門通)삼정목에잇는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는 그전신이 대정십일년에 창립된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이다 소화사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엿는데 창립이래 이학교에서 길러낸 치과의사가 작년봄까지 오백사십사명이나 사회로 허터저잇다 금년봄에도일백십이명의 새로운덴티스트가 조선의 구강위생(口腔衛生)의담당자로서 사회에 나오게된다 그중에 구십칠명이 일본내지인 학생이고 열여섯명이 조선인 졸업생이다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래도 대개 개인의것이고 결국은 자립하야 개업 하는것이 이 학교의 특색이다금년의 졸업생들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金佐俊 李昌柱 趙基富 朴基敦 尹麒炯 李景福 許沐 劉義鎬 金東垠 金讚圭 李杜雄 崔昌福 東明允 文昌周 咸基禹

敎育家로賢母로
四科五十八名의才媛이社會로
梨花女子專門校篇

…람봄바람에 피여난우리 이이름틈너 리화라하섯다 한노래 곱게도나니

…원 지망자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중에도 봉직과는 전조선의유…

金瑀珠 順慶 金貞玉 金漢淑 朴梅 菊喜 姜甲順 柳順男 李[illegible] 玫[illegible] 張永[illegible] [illegible]

特色은布敎師! 中專卒業班廿一名

혜화(惠化)의 지튼숲과 상거(雙溪)맑은샘, 우리의 성태(聖胎)담아 놉흔집이잇다 대계(大界)가 다한가지 동방을볼때 히고힌비치서려 거긔넘치네 우리불교전문학교 구원(久遠)의힘 구원의 빗 이것은 중앙불교전문학교(佛專)교가의 제일절이다 혜화언덕에서 삼개성상 이교가를 불으며, 그들의 희망에넘치는 학업을 닥거이봄에 형설(螢雪)의공을 일우고 용감히 사회전선에 굿세인 제일보를 내드될 이는 다음과가티 본과 (本科) 특과(特科)선과 (選科) 합하야 모다 스물하 다 이화교는 재단법인 ㅈ …교무…

래의 불교전수학교 (佛敎專修學校) 로부터 소화오년사월에 중앙불교전문학교라고 개칭한후제륙회 졸업생으로 지금까지 다섯회에 졸업생여든세명을 내엇는데 그들중엔 교원이열다섯명 사직(寺職)이여덜명 포교사가여섯명 관공서(官公署)은행회사가 각열명 상업학교에간사람이 일곱명으로 각각모교의 명예를등에걸머지고 그방면 그방면에서 활약을 하고잇다한다 그리고 이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과(科)를 나를 두고 불교학과 동양문학(東洋文學)에 관한 전문교육에 관한과목을 적당히 석거 … 왓는데 이런제…

恭賀新春

晉州

晉州邑 白季秀 更科 谷口秀楠 下條書店 登雅閣 徐明石
正金堂 盧炳基 崧南書館 兄弟洋服店 李重浩 大山商會 大昌旅館
石井醫院 鄭秀錫精米所 金甲龍 ツバメ薬局 有澤質屋 吳成商會 崧南第二店 マルサ商店
晉州邑榮町 慶南齒科醫院
晉州邑錦町 金奉圭精米所

晉州邑 洪成允 李章喜 千鍾煥 秋謙鎬
晉州邑長 山下正道
晉州郵便局
晉州邑本町 株式會社 廣信商會 電話四六番
晉州邑水晶町 晉州釀造合資會社
晉州麵子製造組合 電話二四九番
晉州邑明治町 勝岩農園 主 許旭

晉州邑榮町 三一商會 主 鄭大和
晉州邑 徐宗淑
晉州邑南山町 鄭杓煥
晉州券番 電話一五〇番
晉州邑幸町 朴相郎
晉州邑 崔寅鎬
晉州邑大正町 長尾商店

大川

保寧郡青蘿面玉溪里 吳晟相
保寧郡公立學校長一同
保寧郡廳職員一同
大川穀物商組合
保寧郡大川 李鏴九
保寧郡 鰲川面職員一同
保寧郡大川彌花酒商會 韓相浩
保寧郡青蘿面長 李秉直
保寧郡川北面鶴城里 崔洪山

保寧郡周浦面協議員 姜時馨
保寧郡周浦面鳳堂里 面協議員 崔明基
保寧郡鰲川面校城里 面協議員 金舜濟
周浦面協議員 姜春馨
川北公立普通學校 古川巖 韓順宋
川北面職員一同
保寧郡川北面河淸里 [illegible]

南川

保寧郡川北面長淵里 金賢濟
有志 保寧郡川北面沙湖里 崔南起
忠南保寧郡川北面河淸里 春日醫院 醫生 金得[illegible] 在院
保寧郡周浦面協議員 柳[illegible]鳴
保寧郡川北面協議員 崔季純
保寧郡川北面河淸里 卞定均
保寧郡川北面協議員 崔洪博

京義線南川 中央印刷所
平山郡積岩面職員一同
平山郡馬山面職員一同
京義線南川驛前 復興貯蓄現物獎勵部 西鮮總監督所
京義線南川驛前 南川精米所
南川驛前 朝日運送倉庫株式會社
平山溫井 司法書士 申[illegible]

京義線南川 全南川荷主運送組合
京義線南川 大成測量事務所 主 李鎭一
京義線南川驛前 富士自轉車 附屬品一式 三一自轉車商店
京義線南川 司法書士 李敎來
京義線南川 德盛商會
黃海道南川本町 高級自轉車及金剛自轉車商會 附屬品卸小賣 主 李相[illegible]
京義線南川 南一旅館 商店
平山郡細谷面漏川市 城 主 [illegible]

職業戰線打診

大部分은外留學
□□輩出되는英材二十四名□□

崇實專門學校篇

조선의명승지 모란봉 압동리에 터를닥은자리를 잡고잇는 서부조선의최고학부인 숭실전문 학교(崇實專門學校)는 창립삼십여년의 장구한 력사를가지고 조선문화사업에 만흔일꾼을 보내여그씩씩한 활동을하고잇는것은 자타가인증하는바 이지만 명춘에영예잇는 졸업을하고 새봄에새희망과 새긔봄이 붐타는 가슴을 부둥켜안코 그들이 일상동경하든실사회에 제일보를 옴기려하는신학사군은 멧명이나되나?

긔자는 령하십팔도 고개를넘는 어느 치운날 신양리(新陽里)일각에 웃득소사잇는 숭실전문학교를 차즈니 기자도 옛날이집에서 배호고 이마당에서 뛰놀든 시절이잇섯드라는 추억이 새삼스럽게도 일어나서남다른감개를가젓다 위선 교무계리훈구(李勳求)박사에게 명춘졸업생에대한 상황을 무른다신사참배문제로 한참소란한때 엿섯지만 오초동남에 비아소관이라는듯이 열심히 연구에 밧버하는생들의 그림자조차 교실밧게는 보히지안는다

숭실전문학교에는 문학과(文學科)와 농학과(農學科)로 난호여잇서 각긔 사학년제이다.

명춘 숭전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학사님들은 문학과에열네명、농학과에열명、모도가 이십사명이다

문학과 열네명중 네명만은중등학교교유로 취직이되고 남은열명은 전부가 일본내지、중국미국에 류학의길에 오르기로되엿고 농학과열명중에서는 한명을일본내지에류학、두명은 농장(農場)에 취직하고 남은일곱명은 전부가자긔고향에 도라가서 농장을 자경영(自營)하기로 되엿다한다

언제나 시적(詩的)으로 정적(情的)으로 그야말로 무풍지대(無風地帶)인 조고마한 단란하고 그리고 오붓수한 조직으로 되여잇는 이학원인만큼 언제나 온화한 그리구 다정스러운 분위기속에모혀 잇서 명춘에 교문을 나서는 스물네명 새학사들을 손질하며 마즈려는곳이만흔은 의심할여지가 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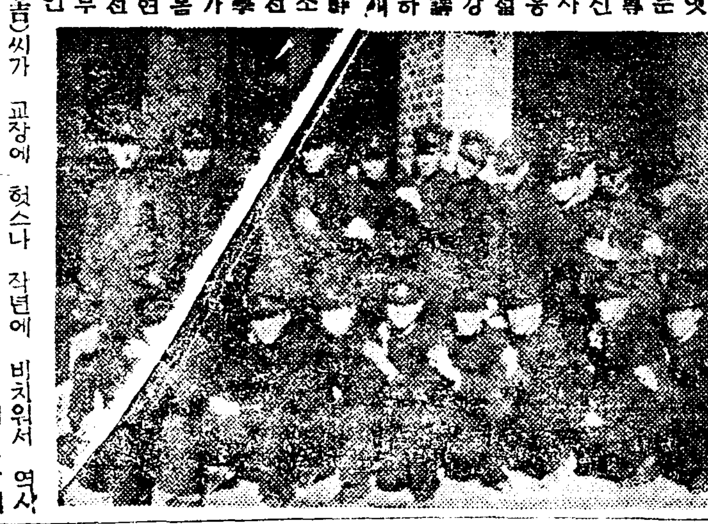
바라건대 숭전동산에서 사년간 갈고다든 지식과 공을쌋흔 새학사님들에게 마의 행복이잇사이다 그리고금년의 졸업생은 다음과갓다

文科 ▲姜文永 慶北榮州郡伊山面利川里一二三 ▲金東振 平壤府倉田里二一八 ▲金文祚 慶北慶山郡孤山面沙月洞三〇 ▲金宗燮 平南平原郡公德面兩水里六一六 ▲金孝翰 松禾郡蓮芳面車村 ▲申泰植 慶北青松郡縣西面福洞 ▲尹炳植 平北義州郡廣坪面上廣洞四八四 ▲尹龍寶 平南中和郡海鴨面陸齋里四四一 ▲李犖柱 平北江界邑東部洞(以上上級學校) ▲朴濟煥 平南大同郡大同江面紫村里四一六 ▲張道一 平壤府鹽田里一三六 ▲鄭瑞鎬 黃海殷栗郡南部面石泉里三六一 ▲鄭守珏 全南長城郡北三面白巖里七一(以上就職) ▲曹喆灝 慶北慶山郡河陽面島里一〇八(以上上級學校)

農科 金德鎭 平壤府磚九里一五(農場經營) ▲金顯喆 慶南馬山府校芳里四의八(上級學校) ▲金鎭元 平壤府新陽里一七九 ▲李島吉 平南大同郡栗里面東倉里(以上就職) ▲全廷燦 平南安州郡雲谷面九龍里一九七 ▲崔星鎭 仁川府牛角里七九 ▲洪錫殷 平北宣川郡新府面院洞一〇〇〇(以上農場經營) ▲洪肩錫 平壤府新陽里一七六의一一 ▲玄鶴溶 慶南馬山府校坊里二一 ▲朴炯烈 全南順天郡順天面梅谷里(以上農場經營)

消毒服도새롭게 新藥製師廿六名

藥學專門學校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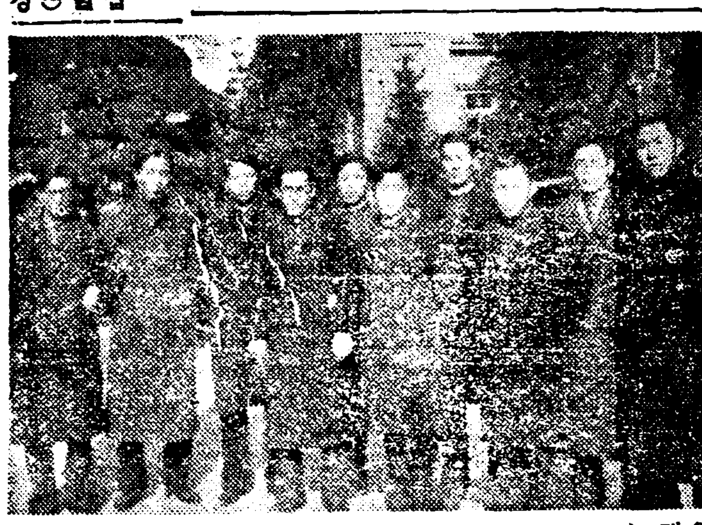


시내황금정(黃金町)록정목에잇는 경성약학전문학교(京城藥學專門學校)는 그전신어 멀리 대정사년에 자작조중응(趙重應)씨가 설립한 조선약학강습소(朝鮮藥學講習所)로 비롯하야 대정 칠년에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로 되고소화사년가을에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으로 인가되여 소화오년봄부터 비로소 현금의 경성약학전문학교로 될때부터 현재의교장인 국동전길(國東專吉)씨가 교장에 취임하야 백방으로 노력을 다한결과 소화팔년 이월이십팔일에 약제사법(藥劑師法)제이조에의한 문부대신(文部大臣)의 지정을 어더 조선으로는 일본내지와 만주(滿洲)등지에까지이학교졸업생이 개업할수잇게 되엿다 승격후의 졸업생、즉소화팔년부터 작년까지의 졸업생이이백사십팔명에 달하는데 강습소시대부터 통지면 수만흔약제사가 주로조선의 각지에퍼저 잇는우에금번봄에도 제륙회 졸업생으로 팔십팔명의 새로운약제사가또다시사회로 진군하게된다 그중에 이십륙명이 조선인학생이고 나머지가 일본내지인학생이다 금년 졸업생의 취직처는 아직 때가 너무 일러서 결정되지는 안헛스나 작년에 비치워서 역사 삼、사、오월의 사이에 전부 희망대로 처리되고 말것이다 금년봄의 졸업생들의 희망하는곳을 아러보건대 관청(官廳)방면에 취직하려는 학생이 여덜명이고 병원(病院)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가장 만하서 삼십오명이고 회사상점(會社商店)등에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이이십팔명이며 나머지 일곱명이자립하야 개업을 희망하고잇다는 졸업생들의 씨명은다음과갓다

尹鍾燮 朴鎭鎣 朴性明 趙快祚 張佳九 李允煥 李南淳 李永昊 李吉相 韓德鎬 韓洞模 曹永煥 宋如玉 禹鎭鎬 高允南 高學洙 洪燦裕 鄭鎭璉 鄭癸溥 崔 橄 崔毅文 許 瀚 金道國 金京鎬 朱寧政 實淳國

女十婚珍風景
就職競爭보다採用競爭
卒業生絕品高工萬歲

최근수년래로 조선천지를 잡아흔들고 잇는 소위북조선개발(北朝鮮開發)산금장려(産金獎勵) 대공장진출(大工場進出) 만주경긔(滿洲景氣)등 풍성풍성한 경긔풍에 동을달고 순풍에 배를불린 고공(高工)을 차즈니 과연 동교교무계(敎務係)에는『졸업생절품(卒業生絕品)!』 명년도예약개시(明年度豫約開始)!」를 내걸고 고공만세를 외치고잇다



금춘에학창을버서나 토목가(土木家)로 건축가(建築家)로 공장(工場)으로 광산(鑛山)으로 직업전선을 헤치고 개가를부르고나서는 새일꾼들은

紡織學科 權五喆 李東燮 土木學科 姜琮遠 建築學科 韓哲鼎 金一鎭 金貴順 鑛山學科 張斗鎭 鄭弘秀 鄭漁澤

의 구명에 광산과선과(鑛山科選科)생세명을 합처서 십이명으로금년졸업생 오십이명중 락오분에일에 불과하는 극소수이지만 작년여름 이래로 예약이시작되여년말까지에는 대체로락착을지겟다하니반가운 소식이다 이들은 총독부 만철(滿鐵) 삼릉(三菱)을비롯하야 일본광업회사(日本鑛業會社)소림광업회사(小林鑛業會社)조선제련회사(朝鮮製鍊會社)등의 대회사에서 서로끄러갈려고 쟁탈전까지 이러낫고 그중에도 세력이부족한회사에서는 도저히 데려가지 못하고 잇는형편이다 특히그중에서도 세월나는곳은 역시광산과로 현재전과를 통하야 삼십삼명의 생도를가지고 잇스나 십여명은 벌서입학당초부터 예약을하고 학비를 대여주고잇서남어지 이십명쯤으로는 도저히 수용을채울수 업다하야 교십바게잇는 랑하(廊下)를 리용하야 금년신학년 부터는오명식의 증원을시겨 다소라도 격렬한수용경쟁(需用競爭)을 완화시키라는진현상이다

동교는 대정(大正)오년사월에 경성공업 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로 탄생하야 동십일년에경성고등 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로 변하야 현재에이르기까지 공전(工專)이 오회고공(高工)이 십삼회 합십팔회의 졸업생 칠백명을 내인중 조선인졸업생은 겨우일백구십칠명을 내여줌에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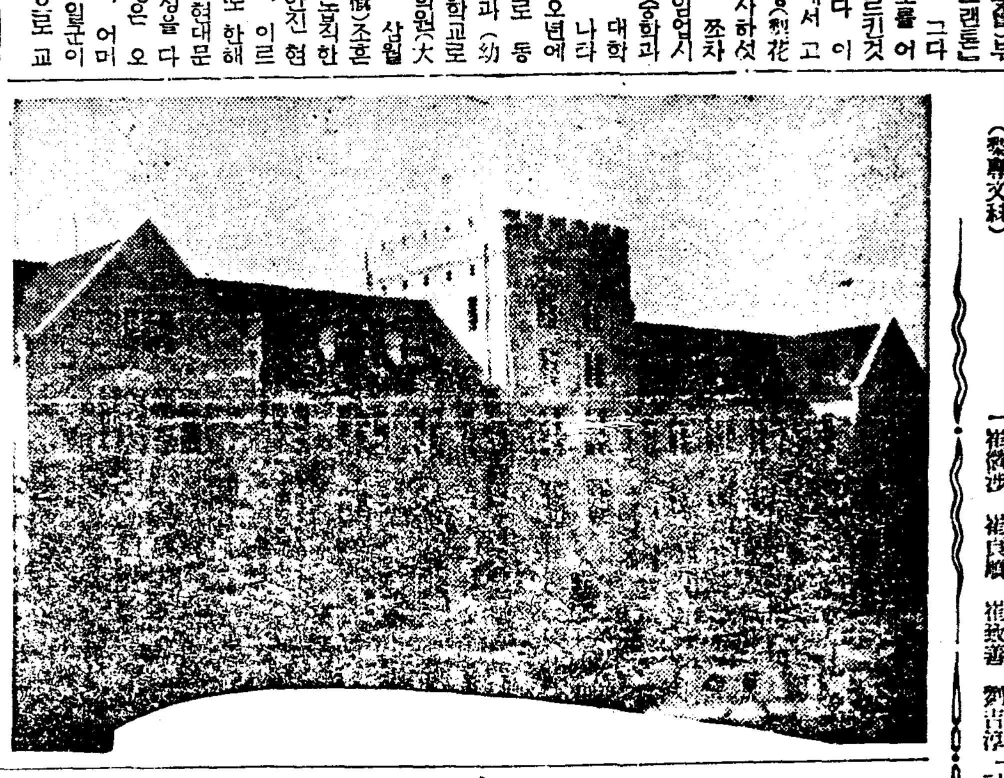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졸업생취직상황을 엿보건대 관청이제일만코 그다음이회사인대 그외에는소수의학교교원과 자기경영(自己經營)이잇스나 조선인으로서 자긔가직접 학창에서 배운긔술을실지로 리용하든사람은 거이업다고하여도 과언이아니다 이로서볼때 조선내에잇는 공업외최고학부(最高學府)로 유일한긔관인 이학교가 그만큼조선인사회에 개방되지안코 아즉까지도특수한긔관인 늣김을주는 이상 아모리고공만능(高工萬能)을 부르짓고잇다 하드라도 참으로 고공을 부르짓고 외치기에는 아즉 그때가안일뜻-이고문이 훨신열니고 이문을 나가는 새일군들이 스스로의 힘과배운긔술을 결탁시킬때 고공만세!의 부르지짐은 새로운『에나-지-』를어들것이다

百卅七名新役軍
就職豫約決定은姑未定이다

……반안에 전국이예라
리화우리리화 진선미의
리화
긔닐니퍼저라 아-우리
리화

송림을헤치고 흘러는『메로듸-!』 이곡에서 리화를찻는이에로 흘느고흘너 꼿치업는 악관(白頭嶺)을하직하는『녀선학생』처녀들의발걸음을 멧번이나멈추어주리-하직을앞둔요지음은 가슴설니는 이노래가 차츰자저진다

조선에 오직 하나인 녀자전문학원인 이 학교는 지금부터 오십년전 미국감리회(監理會)부인선교부대표『엠·엡·스크랜톤』부인이 조선으로 건너와 그다음해 사월에 한명의 생도를 어더가지고 영어(英語)를 가르킨것이 이 학교의첫 우름소리다 이학교가 생긴후 면칭을시내서 고종(高宗)께서 리화학당(梨花學堂)이란 명칭을 하사하셧다 그후로 생도가 해를 쫏차늘어가고 학교내용도 끈임업시 확충되야 보통과(普通科)중학과(中學科) 고등과(高等科) 대학과(大學科)등이 정연하게 나게되엿다 일천구백이십오년에 이르러 리화녀자전문학교로 동이십팔년에는 유치원사범과(幼稚園師範科)가 리화보육학교로 개칭되야 현재의 대리화원(大梨花學園)을 이루고 작년 유한(幽閑)하고 경개(景槪)조흔 연희면 대현리(大峴里) 높흔한 송림속에 호화롭게 주저안진 현교사로 리전하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래 반세긔와 또 한해동안 조선딸들을 모하 현대문화의 세례를 주기에 정성을 다하여왓다 금년의 졸업생은 오십팔명!대부분이 가정의 어머니가 되기전에 사회의 일군이 먼저 되여보겟다는 일념으로 교



치원으로부터 꼬리를무는 청병에 날개가 도칠지경이라 한다 학교당국에서는 변변이 격증하는 지원자를받지못함을 유감으로 여여오든중 금변부터는 교사에 여유를어더 몃습으로 각과정원을 이백명식으로 증원시켜녀고 당국에 학측변경인가원(學則變更認可願)을 제출하고잇다는데 인가되는날이면 금춘시험생부터 각과에오십명식을 모집하기로되엿다

리화동산에 꼿피는 복남을기다려 교문을나설 새일꾼들은 다음과갓다

(梨專文科) 趙淑晴 ……(?) 林? 洪顯栄 早野에 ……

(家事科) 金永信 金愛鎭 金雲鶴 金賢淑 方仁貞 白恩順 徐命鎭 成樂蓉 安淑以 李士清 李允榮 林命順 張甲容 張順福 張鮮貞 韓貞玉

(音樂科) 金明子 金榮經 邢貞分 李順寶 李有淳 李仁西 以上六名

(保育科) 具時嬡 金錫任 金順林 李南淑 李永愛 李福玉 朴敬善 朴貞順 宋賢寶 尹順愛 兪淑道 曹永鵬 崔微涉 崔良順 崔致善 劉吉淳

中央佛敎專門학교로 그목적이 ……에서 가 아조이래 산간에도 조선의불교가 …… 하야 겨우명맥만 보전하여오든종래의 퇴영적 태도를 버리고일반에게 적극적으로 포교(布敎)하고 선전하야 불교를종교로서 보편화식히고저 그전위분자를 양성하려는데잇다

스물한명 졸업생중 세명은상급학교를 한명은 교원으로포교사(布敎師)가 될터이며 세명은 가사요 남어지졸업생들은방금각처로 취직을 주선중이다가 처로 도라다니며 취직알선을할터이라 한다 이번졸업생은 종래도는 여러가지로 불편이 만흠으로 학교 당국자측에서는 종래의 한과를 두과로 나누어 불교학과 동양문화과를 각각 독립식히고저 이미 분과신청서(分科申請書)를 학무당국에 제출한터로 인가만 되면 오는 사월새학기부터 실시하리라고 한다

(本科)△金再雄 ▲李正鉉 △安潤用 △金三道(特科)△金仁俊 △洪元植 ▲張東明 ▲朱璂燮 △金萬基 △金義寶 ▲金基興 △申伯顯 ▲李鳳煥 ▲車萬基 ▲朴春植 ▲朴貴煥 ▲徐惠鈞 ▲朴國星 ▲徐鍾源(選科)金安濟 ▲鄭西玉(△…科卒業生)

普成專門學校篇

재작년 시외신설리(新設里)에 광활한터를잡고 굉장한교사를새로지은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외관의면목이 일신되니만치 내용도 쇄신되는동시 그인기로 말미아마 올봄졸업생들의 팔리는품이、패상당하리라는 자신을갓고 이것을 다진코저 학교를차즈니 교무주임에 상과과장(商科科長)을겸한 김영주(金泳柱)씨는 밥부다는것을 말머리로 다음과가티 말한다—

『올봄졸업생은 법과(法科)일흔아홉명에 상과(商科)쉰여덜명으로 그들이 졸업한다음 무엇을 하려고 희망하는지? 지망별(志望別)을 아직알수업습니다 딸어서 취직에 약된자리가튼것도 별로업는모양입니다 혹 업지도안코 알수도업는것이 안이지만 오늘이 방학인관계로 밥버서지금은 그런것들을 말할수가업습니다 졸업생들의 사진을 박으시겟다고요、그것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을 불러모흘수도 업는것이안이지만 어데밧분시간에 번잡하게 그럴수도 잇습니까』

씨의말대로 본다면우리가 기다리든 신흥보전의 풍성하리라고 미덧든졸업생들의 직업전선에서의 팔리는품은 비교적 한산한것이리 암시가된다。

▲法科七十九人 金明鎭 金永圭 金雲鉉 金寬泳 金在鎭 宋一鎬 柳在源 尹明燮 李啓元 李昌茂 李慶儀 李寬寧 李昌赫 李康鎬 李翊寧 鄭泰根 池基射 崔東旭 崔泰成 黃千壽 尹昌顯 孫泳煥 金德烈 鄭宗謨 曹一煥 姜德煥 李光眞 黃肖益 金鴻元 李相氏 金泰煥 金鍾珠 李吉熙 李萬內 田仁秀 安忠洙 李錫圭 金榮漢 李雄何 文宗泰 尹在重 姜東謡 金在哲 殷錫俊 金在伏 尹宇重 鄭中玉 金夏增 李正男 姜大赫 姜明鎭 朴酉相 白南墉 趙福在 金正洙 李壯烈 鄭泰煥 崔大植 李興燁 李祉福 申昌潑 崔東潤 金南和 朱大德 金谷晋 金秉琮 宋榮柱 金炳觀 白圭濟 金基熔 金璟洙 閔庚德 元貞默 安鎬濬 朴禎皓 柳圭璘 李寅錫 金根洙 張時煥

▲商科五十八人 金福演 權寧俊 卞仁均 徐啓源 李秉準 丁宅鎭 韓直敎 許烋 金時敏 姜濟人 吳在義 金周賢 金善命 金寅均 林炳一 卓鍾端 南世本 任周彬 權寧哲 洪鉉基 鄭英燮 崔在鳳 金秉殷 鄭芝秀 李相雲 李範寀 金鎭元 金錫德 金容鎭 李允煥 李圭然 具秉玉 邊衡九 金熒泰 金鍾泰 李鉉琮 盧鍾煥 陳百鍊 宋英洙 文在煥 金英洙 朴敏昇 金致龍 林大東 千季根 金永鎭 尹炳仁 金成淑 金衛一 李明集 朴元植 李河舜 盧東鎭 張洪九 金鴻洛 孫明燮 朱相基 金漢周

景氣의末稍神經
高商十八俊才就職狀

숭이동(崇二洞)에 잇는 동교는현재 동경(東京)에 잇는 척식대학(拓殖大學)의 전신인 동양협회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의 경성분교(京城分校)로 명치(明治)사십일년 십월 시내 대화정(大和町)일정목에 탄생하야 이래 조선、만주、중국을 상대로 한 식민지개발(植民地開發)의 선발대를 양성해오는동안 교정(大正)십일년에이르러 현재의 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等商業學校)로 변하야 각종시설과 내용충실을 거듭하여오결과 지금은 일본내지에도 과히 손색업슬만큼 내용이충실해젓다 한다 동교가 독립하게된 이후 금년까지 십륙회에 일천륙십명의 졸업생을 내인가운데 조선인 자제는 겨우 일백사십여명에 불과하다금춘에 졸업하게되는 새로운 역군은

白錫洛 盧世奎 張吉燮 朴泰勳 李林秀 李康鎬 禹珏圭 李仁永 安元植 鄭正四 金振興 金尙衡 申泰煥 金來柱

의 십팔명으로전의 약 오분의일 졸업생 구십이명중에 불과하나 대체로 학교성적들은 우수하야 락반수가 우등생(優等生)이라한다 그러나 이들이 곤문을 버서나 그들이 흠모하고 긔대하는 실사회에 발길을 옴기는 날이면 학창에서 머리에 떠돌든 모-든 계획과 희망이 수포로 도라가고만다 이들을 마저주는 행、회사、관청에서는 그가 먼저 학교에서 남겨둔 성적여부가 채용하여주는 표준이안이라 그보다는 천마뜻박게 개인표준이 나타나고 차별이 나타날때 이들은 현실의 고르지 못한데 첫입맛을 다시게 된다 그러면 금춘졸업생십팔명이 나가는길이 엇떠한가? 이학교는 경긔의 파동(波動)에 가장 예민한감각을가진 학교의 하나로서 호경긔를 부르짓는 영향을 바더 금년졸업생의 취직은 무난히될것으로 보고잇다는데 역시 지원자가 제일만흔곳은 시간이비교적 젊으고 월급과『뽀-너스』가 를롭한 은행(銀行)회사(會社)로 그다음은 관청(官廳)과 소수의 학교교원들이잇서 대체로 초급륙칠십원으로 주저안게 되다고업생도 전부가 희망대로 되야러나 불과 십칠팔명되는 이졸본적은 한번도 업다 금년에는 식산은행(殖銀) 상업은행(商銀) 호남은행(湖南銀行)에 각한명식과 화신(和信)백화점에 한명이 결정되고 남어지도 불원에 결정되리라 한다。

끄트로 이 학교에서 엇은 인상은 마치 학생자신들로도 마치 동경(東京)이나 경도(京都)에 류학하고잇는것가튼 긔분이 어느학교보담도 농후하다 즉 이 반갑지 안흔 인상이 하로밧비 박귀여지기를 바란다 흠문의 칠측처럼 되여오는 오대일의 입학비률(入學比率)、동교 창립당시부터의 전통적정신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업시 꾸준히 지켜나오는폐풍과 아울러 하로밧비 사라저도 조흘때가 아닌가한다

南海

南海郡農會長 金 興 洙 外職員一同

南海郡二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彌助漁業組合 組合長 川店長兵衛 理事 林勇士郎

南海邑內 和信連鎖店、三井物産特約 株式會社 三共商會

南海古縣面事務所 職員一同

南海郡古縣面大寺里 酒造業 金丙杓

天道教南海宗理院 院長 河準千

南海郡二東面茶丁里 崔燁鉄

彌助港 綢緞布木 ゴム靴特約 鄭正元商店

南海邑內 回生醫院 公醫 金洙千 電一二三番

南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車山里 米穀商 李瑞洪

南海邑內新市場 有名賣藥 旣成服、畜音 普機販賣 祥旭堂 崔祐根

南海邑內 司法代書 昭和保險代理店 李仁祐

西面南事務所 朴正斗

西面大丁里 大生醫院 朴朱燁

南海郡二東面茂林里 鄭永浩

二東面茂林里 金斤科

二東面茂林里 李壽灝

彌助里區長 孔禮洙

彌助醫生 李鎭禮

南海知足酒造場 李安浩

彌助里 公醫 過能虎次郞

車山里 米穀商 金洪杓

船所里 米穀商 李炳鉉

南海邑內永興商店 金楊鉉

船所里 金仁直

南海邑內 張斗環商店

南海邑內 陳永文

西面公立普通學校 校長 藤川鐵夫

南海雪川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南海郡雪川面文義里 酒造業 尹道準

南海雪川養鷄孵化場 場主 尹彰俊

南海古縣面東一醫院 院長 金東善

二東公立普通學校長 知北利一

草陰里釀造場 李相玉

二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知足漁業組合 金南達

南海二東面長 崔達湖

南海邑內 南海醫院

南海邑 李花商會 主 李德成

南海郡西面上里(元雪酒川郡酒川面外頭里) 酒造場 主 崔手卿

雲田

穀物貿易 玄米製造 雲南商會 電略(クモ)又ハ(ヤマニ)

玄米製造 雜穀貿易 三合精米所支店 本店 古邑驛前

玄米製造 穀物貿易 義信商會

朝鮮料理 明月館

玄米製造 穀物貿易 青雲商會

鐵道貨物取扱海陸運搬請負 ㋒西鮮運送店 電略〇ウ(又ハウ)

大田面職員一同

同仁水利組合

穀物貿易 玄米精製 肥料販賣 同成精米所

綢緞布木商 金琮文

大昌旅館

淸亭釀造所支店

穀物貿易 各種販賣 日新精米所 主 方昭鉉

司法書士 崔俊三

南海邑內 印刷・文房具 南一印刷所

南海邑內 金成午

南海邑內自動車部前 洋服帽子 染色洗濯 永信舍洗濯所 李相雲

南海邑內自動車部前 最新式洋服 其他一切 大興洋服店 金容吉

南海邑內 酒造業 朴準承

雲山基督産業信用組合 雲信商店

京義線雲田 和信連鎖店

方文健

天華堂時計店

金明鉉

朴昌洛

維持組合

禁酒斷煙 金甲龜

李景運

金仁稷

無名氏

吉運生

崔之鐘

雲田商會

雲海消費組合

尹東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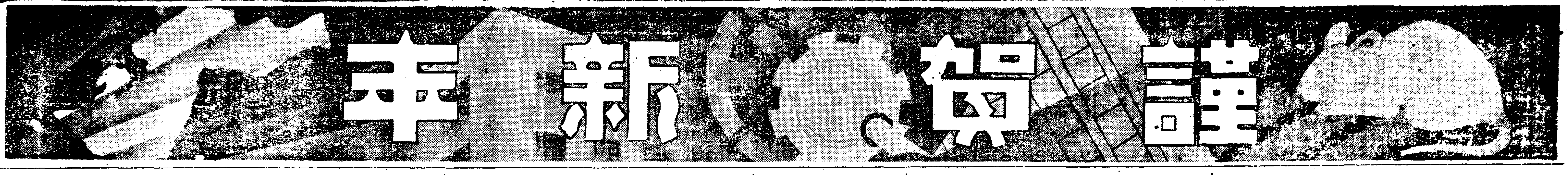
淸衆齒科醫院

司法書士 李圭琏

雜貨商 金明熙

安天民

恭賀新春



北平

崔用大 崇內八寶胡同四號

金良鐸 南池子灯籠庫七號

宋伯憲 崇內大街

崔元峻 延壽堵七號

柳石山 船板胡同五〇

車均輪 白眞源 北平前門內法憲胡同三號 電話南局四一〇二號

李京道 西四磚塔胡同

李永活 崇內小報房胡同五三

無名氏

李信用 船板胡同福生公寓內

鄭炳柱 鄭松竹 西直門穿堂門克號

金璟波 三元菴二七號

朝鮮旅館及麵店 許三根 東城蘇州胡同一〇七 電話東局四一四五號

北平朝鮮人會

崔成業 東四北新橋中剪子巷二十二號 電話東局一四四六號

金世亭 北城香餌胡同三八 電話東局一九七七

北平 金志賢

金正國 新開路四一號

黃一甲 官帽胡同八號

姜三石 三元菴二十

崔尙燦 宮門口西四條七號

金一富 西城西四路北前車胡同內北下達子三號 電北平西局二七七〇號

崔中貴 北平西四牌樓敬勝胡同六號 電話(一一三六)

黃萬金 崇內大街三八號

徐廷弼 中華民國北平東城船板胡同四七號

鄭雲珪 官帽胡同十三號

洪龍範 八定胡同二十

安元廷 西城棉花胡同三三

趙鎬權 前車胡同一號

金敬河 三元菴三

金履涉 船板胡同福生公寓內

鐵山旅館 主 洪龍範 崇內八寶胡同二十一號

李智用 八寶胡同六號

文昌根 八寶胡同十二號

高岡 崇內官帽胡同十二號

全景和 和平門內新簾子胡同八七號 電話南局四一八六號

李璟珮 崇內八寶胡同七二號

李允保 西四中毛家灣六號

北平 崔契燮

金天福 東城江寧胡同十五號

崔春根 崇內船板胡同四九

金元濬 東城華東飯店

張炳元

金錫煥 崇內三元菴十號

崔相謙 金長源 官外延吐胡八號

趙承玉 崇內蓖子鋪胡同二九

張龍珏 崇內船板胡同四七

金孝丁 崇內三元菴二十六

安義煥 北城五條牛圈胡同九號

金玉姬 東四猪市大街五三號

金泰崇 北城土兒胡同山一號

北平 鮮于基榮

玄東鈺 雍治國胡同九號

無名氏

金正潤 南順城街二二四

李曉星

李用典 西城宮門口西四條

張日炫 鄭泰信

趙一愚 西四南錢串

崔用悌 西四新街口金絲港十一號 電話西局二二一四

崔用沾 和平門南所胡同六號 電話南局四〇二六

李根用

全成萬

吳成洙

洪鍾祐 東城候位胡同十號

文麟福 東四十一條六七號

姜珍頊 姜瓆頊 崇內孝順胡同十號

申英再 姜珍頊 官場胡同十五號

朴聖煥 東四南板橋十六號

全敬哉 西城絨匠營二〇

盧運奉 師部胡同四三

李福祿 宮門口西岔胡同三號

鄭鉞 蘆坑胡同八號

鄭時泰 舊簾珠胡同一號

金·李春 閘子胡同三條四號

張日赫

金昌治

李智煥

申鎬促 南小街八九

日敬信 東單牌樓…店內

李昌俊 九…胡同十號

金陽奎 南小街八三

李元吉 新昌路八號

趙正旭 和平門內

洪天麟

崔時晳

朝日報北平支局 全元鳳 李承讚

大連

大連朝鮮人相愛會

會長兼關東州朝鮮人會理事 朴性乾
副會長 金七星
庶務部長 南秉旭
會員 一同

德盛公司 康安得 大連市監部通九六 電二一八六三 自宅 大連市櫻町一〇七番地 電(二)三三八五

關東州朝鮮人會 理事 朴信敬

關東州朝鮮人會 理事 趙熙緯

大連市逢阪 鄭寅燮 電(二)一六四一番

鄭彥錫

大連市乃木町九番地 和洋料理 朝鮮冷麵 平壤館 張明星 呼出電話(二)三四七二

大連市惠比須町六十二番地 永井洋服店 主 朴炅律

若狹町一五六 寶石時計 金銀貿買 正金堂 金興昌

和洋帳簿製造カード類 罫引雜誌製本綴直 南海堂製本部 大連市信濃町六四番地 電話(二)二四七八番

大連市西町九三 東洋企業合資會社 社長 金賢弼 (電四〇四三一)

關東州朝鮮人機船船員組合 副會長 趙道俊

關東州朝鮮人會 評議員 李自動

大連警察署 李殷相

關東州朝鮮人會 理事長 金賢弼

大連市沙河口 長龍館

大連市西町一一五 李載亨 電話四一三〇四 二三九五八

無名氏

關東州朝鮮人會 理事 李根碩

北倉

孟山郡封仁面假倉市 面協議會員 金仁植

孟山郡封仁面假倉市 共榮商店 主 李應洙 玄義錫

孟山郡北倉市 文炳頊商店

孟山郡鶴泉面事務所 面長 金商弼 會計員 朴學模 面書記 金得秋

孟山郡鶴泉公立普通學校 校長 申東洙 訓導 李東燮

孟山郡封仁公立普通學校 校長 田村耕作

孟山郡鶴泉面東倉市 朴俊華商店

孟山郡鶴泉面東倉市 醫生 白龍珏

孟山郡鶴泉面東倉市 學校評議員 白仁德

孟山郡鶴泉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孟山郡封仁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孟山郡封仁面駐在員 地方山林主事補 車潤輯

孟山郡封仁面事務所 面技手 徐子玉

孟山郡封仁面事務所 面書記 玄鎭喆

孟山郡封仁面事務所 面書記 全淳裕

孟山郡封仁面事務所 會計員 金炳模

孟山郡封仁面事務所 面長 玄鎭化

孟山郡封仁公立普通學校 訓導 金鎭濬

苔灘

和信連鎖店 田允稷

苔灘釀酒場 主任 黃鎬晙

長淵郡苔灘市 信川苔灘 梨木馬山 竹川信川 苔灘貨物自動車部 主 奇萬英

穀物商 宋奎振

穀物商 崔根成

信成醫院長 黃達順

精米所 孫鶴齡

代車面職員一同

天一藥酒場 主 姜俊永

布木商主 金澤信

綢緞布木商 李進源

三井物産一手販賣燒付特約 金台鉉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四

한地方 한問題

社會施設篇

獨特한海州療養院 財團法人造成計畫

社會의聲援이잇서야만可能 —新年唯一의要望—

【海州】 當局에서도 肺結核退治의 一策으로서 來年度부터 南朝鮮에 三個所에 肺結核療養所를 設置하고 그것에 압서서 爲先 肺結核豫防令을 制定發布하리라하거니와 先進諸國에 比하야 經濟生活과 衛生思想의 뒤떠러짐으로 因하야 結核患者가 年年히 增加하는 朝鮮에 잇서서 繁殖力이 가장 强하고 死亡率이 가장 놉흔 亡國的疾患이라는 肺結核退治工作을 專門으로하는 海州救世療養院이야말로 他에 比肩치못할 獨特한意義와 歷史를 가진것이다 아니할수업다

◇

이 海州救世療養院은 只今으로부터 約八年前 救世病院의 附屬機關으로 創立되여 以來 朝鮮民衆의 熱烈한 聲援과 支持미테서 어떤 少數 一部人의 利益을 떠나 全民衆의 뜻에 어그러짐이 업시 結核退治工作에 全力을 다해왓다 그러나 늘 財政難으로 因한 施設의 不充分으로 그 萬全을 期하지 못하고 遺憾된 가운데지내오다가 三年前 同療養院長 홀—氏가 米國에 도라가서 療養院擴張基金募集工作에 活動한 結果 적지안흔 寄附金을 어더 入院室의 擴張과 아울러 內部를 充實히한後 一層肺結核退治工作에 拍車를 加하야 그本來의 歷史的使命을 遂行해와온다

◇

그러나 經濟生活의 極度의 窮迫에서 由來되는 住宅關係 衛生關係가 날로 不利한 處地에 잇는 朝鮮인지라 肺結核患者는 해마다 激增하야 再昨年 現在 一萬六千餘人이든 患者는 昨年中 死亡者 九千餘人을 合하야 三萬三千餘人이란 驚異的增加를 보인 慘憺한 現象을 呈하엿다 朝鮮의 오직 하나인 同療養院에는 患者가 雲集하야 現在의 五十三의 入院室은 언제나 超滿員을 呈하고 收容할곳이 업서서 貧困者의 利用은 不能은 勿論 甚至於 正規의 手續을 밟을수잇는 入院患者조차 收容치 못하는 例가 적지안허서 硏究室의 擴張의 必要를 痛感한지 벌서 오래스나 그 事實現치 못하고 그 打開策을 講究하든中 現在 財産 六百萬圓에 四萬圓을 增資하야 財團法人으로 組織體를 變更하리라는 案件을 세워가지고 海州結核撲滅後援會에 附議하야 各後援會에서 討議한 結果 今年度中에 海州一般有志의 後援을 中心으로하야 全朝鮮的으로 그 後援을 어더 그 實現을 計畫中이라한다

同院長 홀—氏

◇

前述한바와가티 海州療養院은 當初에 잇서서 救世機關으로 創立되엿스며 中間에 홀—院長의 活動에 依하야 그 維持를 도와온것이 事實이나 그러타고하야 어떤 一部層에서 過去의 因緣을 根據로하야 어떤 權限을 主張할수업는것으로서 오로지 朝鮮社會의 大衆的意思에 따라서만 利用될수잇는 社會的公器이다 그런즉 財團完成에 必要되는 四萬圓이란 勿論 巨額임에 틀림업스나 篤志家의 誠意만잇다면 全朝鮮的인 後援을 기대리지 안코라도 地元資産家의 義捐에 依해서만도 이루지못할것이 아니니 今年에는 歷史와 傳統을 가진 『海獄』을 支持하야 『海獄』로 하여금 一層光輝잇는 압날을 바라보며 크게 呼吸을 하게하자 (海州支局 一記者)

群山의生命線은 錦江鐵橋의架設

都市的、經濟的으로모다有利 이것이群山의緊急事

【群山】 群山은 湖南의 穀倉인 同時에 貿易港으로서 穀物만도 年二百萬石以上을 呑吐하는 穀港인바 一九三一年八月에 京南鐵道가 天安에서 群山對岸인 長項까지 一路開通하자 處女地이엿든 長項은 一躍世間에 그의일홈을 떨치게되얏다。

그리하야 長項 群山間 또는 華陽(長項隣接地) 群山間의 交通은 鐵道開通前에 比하야 實로 倍加하야 一日間平均 三千五百餘旅客과 七十餘萬噸의 貨物이 去來하고잇스나

交通網 으로서는 겨우 京南鐵道에서 經營하고잇는 第一第二의 發動船인 京南丸이 잇슬뿐이다。

그리하야 入錢의 料金을 밧고 晝夜를 通하야 十數回를 往來하야 겨우겨우 時急은 免하고 잇는形便이다 그러나 錦江의 特長이라 할는지는 모르나 錦江은 潮水干滿의 差가 二十六尺이라는 놀라운差를 가지고잇기 때문에 干潮될 時에는 船舶의 連絡이 圓滑치못할뿐아니라 結氷期에는 上流의 錦江溪谷에서의 流氷等으로 因하야 船舶交通은 實로 危險千萬의 感이 不無하다。

그리고 前記한바와가티 現在에는 每日七十萬餘噸의 貨物이 去來하고잇스나 群山에 잇서서 目睫間에 切迫한 第二期築港이 完成될時에는 貨物은

百萬噸 은 넉넉히 突破할것이다。그런데 錦江鐵橋가 架設된다면 그의 多部分은 群山港에서 集散하게될것이다。웨—그러냐하면 現在 長項에서는 荷役費가 米百石에 十三圓三十錢(一噸에 八十錢)인것이 鐵橋가 架設된다면 荷役費는 依然半額으로 低下할것으로 이것만할지라도 年三十萬圓은 利得일것이오 旅客의 便宜는 無論 群山長項兩市街의 都市的施設로나 經濟的으로 亨得케되는 利益이야말로 贅言을 不要할것이다 (群山支局 一記者)

弊風惡習의 早婚排擊

【固城】 宇宙間萬物이 時期따라 生産發育 成熟할것은 大自然的法則이니 새삼스러이 再論할必要도업다 生産 發育 成熟의 標準時期가 確立될때에 結婚의 時期도 確立되엿다 大自然的法則下에 確立된時期를 忘却하고 子女結婚問題에 잇서서 妄動的行動을 敢行하는 分子가 얼마나 만흔지 그 數量을 들기가 매우어려운形便이다 個中그尤甚한例를 들면 十一歲十二歲된 幼兒를 結婚시키는 分子가 頗多하며 十三歲부터 十八九歲까지 結婚시키는것은 普通行事이니 이얼마나 慘憺한일인가 이時期에 結婚시키는것을 最大榮光 或은 자랑하는分子를 對하게될때에 筆者는 痛嘆을이기지못하야 貴重한 紙面을빌어 우리固城民衆에게 한말슴忠告를 아니드릴수업다 早婚은 健全한精神 健康한體質을 抹殺시기는 한惡風이다 二十歲以內에 結婚시기는것을 比較하면 陽[illegible] 生成하는 花草우에 솟아리는것과 조곰도 다름업는 이다 生産 發育時期를 經치안코 成熟되는例는 動植物을 莫論하고 업는法則이다 一歲부터 二十歲까지는 發育過程에잇다 그러면 二十一歲부터 三十歲以內에 結婚하는것이 가장適合한 時期일가 한나 一年間 結實을짓는 植物일지라도 저의過程의時期를 밟지안코 成熟되면 充實한結實을 엇지못하는것은 우리가 經驗하며 體驗히보아 잘아는바가 아닌가? 況 萬物의 靈長인 사람으로서 그過程을 그릇 밟고야 完全을 求한다는것이 盲目的이며 緣木求魚의格이 아니겟느냐 早婚關係로因하야 直接間接으로 惡影響을 끼치는事實이 우리社會에 얼마나 만흔가 諸君이여! 一一이 보고듯는바이 아닌가 二十歲以內의 少年이 夫婦的意義를 理解하지 못할것은 能히 判斷할수 잇는 일이다 獨立的 生計를 維持할만한 能力과 夫婦的意義를 充實히 理解할만한 時期에 結婚시기는것이 合理的結婚일것이다 二十歲以內의 少年이 子女를 둔다 할지라도 반드시 完全한 精神과 健全한 氣質을 타지못한다는것은 吾等의 先覺者가 이미 證明한바이니 文明한나라에는 이러한 例를 볼수업는일이다 이弊風을 어떤階級에서 助長하느냐하면 所謂兩班 中産階級으로부터 有産階級에서 流行되는例가 尤甚하다 諸君이여! 萬一에 自己子女를 참으로 사랑하며 貴重히 녀이거든 이惡風弊習의 根性을 하로라도速히 撤廢하기를 衷心으로 期待하는바이며 確固不拔의 覺悟와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固城支局 一記者)

事業의公私는不問 爲先頑夢부터覺醒

大邱富豪에對한新春要望 —이것이最先決問題—

【大邱】 十一萬의人口를 가진 大大邱가 急速히 解決하여야 할問題는 너무나 만히山積하엿다 師範設置問題、府營瓦斯問題、纖紡誘致問題、公設運動場問題、道路鋪裝問題等等의 解決을 要하고잇는바 더욱이 記者의 눈에 비친問題로서는 初等敎育機關의 增設、中等學校의 維持發展策、朝鮮人村의 下水道整理問題、失業者의 救濟問題等 十指가 오히려 不足할만치라다 以上 列記한것이 모다 重要한 問題라면 우리의 先決問題는 무엇일가?

◇

이모든問題가 卓上의 論戰으로 解決되는問題가 아니고 적어도 經濟的基礎우에 立脚하여 解決하여야할 性質을 갓첫다면 이모든 問題를 解決하는데 잇서서 大大邱의 建設이잇고 우리들의 살림도 發展이잇을것이다。

그러면 此等의 解決에 잇서서 根本問題는 무엇일가? 重言할것업시 經濟條件을 擔當할 資本家의 事業進出이 그것이라고 記者는 主張한다 大邱는 歷史的으로 地理的으로 富源으로 여러가지 事業이 發展되여야할 모든 有利한 條件을 가젓슴에 不拘하고 큰事業을 論한다면 金台原氏의 經營하는 南明學校와 金蔚山氏의 經營하는 復明學校가 잇슬뿐이요 그外에는 社會的性質을 띤것은 勿論이어니와 個人의 營利事業으로도 하나 볼만한것이 업다

◇

大邱는 大地主 鑛主 家屋主 高利貸金 成金等 富豪가 만키로 有名한곳이다

그러면 그네들은 그 財産을 무엇에 쓰고잇는가? 우리는 그네들의 全人格을 論斷하는것은 아니나 大邱의 事業相에 나타난것으로보아 그네들은 계집과 술을 사는것으로 일삼지 안는다면 그네들의 金庫에는 黃金이 녹(錆)이슬고 紙貨가 좀이 먹을것이 아닌가?

財物은 利用하는데 그 價値가 잇고 資本은 運用하는데서 偉大한 役割을 하는것이다 黃金도 金庫속에 너허두기만한다면 路邊의 砂石과 무엇이 달으랴?

◇

大邱의 富豪諸氏여! 우리는 氏들에게 非生産的인 文化事業이나 或은 救濟事業만을 하라는것은 아니다 生産的인 모든 事業에도 進出하라는것이다 例를 들면 工場을 設置하여 失業者를 收容한다면 이도한 社會的意義를 갓게되는것이 아닌가? 大邱의 富豪諸氏여! 封建的生活樣式은 녜중이다 資本主義的近代企業은 社會的連帶性을 더욱 密接케하나니 氏들이 事業을 하는데서 全大邱사람의 살길이 잇고 全大邱사람의 生活動에 依하야 氏들의 事業도 發展할것이 아닌가?

大衆의存在를 無視하고 富豪의 存在가 잇슬수는 업다 大邱地方大衆의 存亡은 곳大邱地方富豪의 存亡에 關한 問題이니 氏들이 단잠을 자고잇는것은 氏들 自身의 自滅을 意味한다는것을 깨다르라。

◇

보라 大邱가 他都市에 比하여 얼마나 文化的으로 落伍되지 안햇는가 이모든것이 氏들의 責任이라 아니할수업다。

賢明한 富豪諸氏여! 氏들 自身을 爲하여서나 大邱地方을 爲하여서나 積極的으로 모든 事業에 進出하여 貪金奴니 守錢奴니 하는 醜名을 벗고 그대들의 責任을 다하기 바라는바이다 (끗) (大邱支局 一記者)

◇南農 尹櫻氏試筆

草溪地方宿望 公衆集合所를 一致해建設하자

【草溪】 어떤地方을 勿論하고 그地方에 對한急速히 解決치안하면 안될 所謂當面問題가 有할것이다 우리 草溪地方에는 各種各樣으로 時急을 要하는 當面問題가 하나 둘이 안이다 그러나 그中에서도 第一緊急한 問題는 公衆集合所 設置問題이다 都市에는 公會堂이잇서서 一般住民의 大小集合에 만흔利用이되고잇는 줄이야 筆者가 말치안트래도 一般이잘 알고잇는바이다 우리草溪地方에는 公衆集合所가업서서 조고만한 講習會 講演會等을 開催하라하여도 場所가 업서서 延期에 延期를거듭하여 가다가 畢竟에는 開催치못한例가 한두番이안이다 從來에는 當地普校講堂을 빌어大小集合을하여왓스나 近來에와서는 特殊한團體나 官公署가튼데서 별려會合을 하게되는것이오 一般住民들은 容易히利用할수업다 公衆集合에 맛당한 場所가업는地方은 文化施設과 住民修養上 큰損失이될줄이야 다시말할必要도업다 草溪一面에는 十一個里가잇다 其中에서 草溪里를除한十個里에는 大概公衆集合所가有함에 不拘하고 此面에서도 第一重要한 草溪里에限하야만 集合所가 無함은 어찌羞恥라고안이하리요 有志諸氏여! 우선草家라도 조흐니 힘에힘을모으고藏力을다하면 이만한일이야 안이 될리가 업슨즉 하로밧비 實設하야實現을 보게하자 (草溪支局 一記者)

大衆的輿論統一 機關設置의急務

이것이新春의첫要望

【咸興】 集團的社會生活의 必然的産物의 하나로는 그集團에서 일어나는 輿論이다 集團生活에 어떠한 威脅이 닥처온다던지 或은 그集團에 어떤利益을 차지하여야 할境遇에는 반드시 그集團에서 그威脅을 除去할 必要方法 利益은 바드랴는 熱望의 소리가 놉게이러난다 이것이 輿論이매 이輿論을 가장 圓滿하게 統一化시기며 正當化시기는 集團은 어느때던지 集團으로서의 勝利를 엇게되다 四萬餘朝鮮人口를 가진 咸興이란 큰集團에는 時時處處에 各種各樣의 輿論이 發生하고 잇다 朝鮮人商權의 威脅또는 擁護의소리 朝鮮人獨有의 利益或은 侵害等等! 果然輿論의數로는 第一位를 占한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輿論이 하나도 四萬人口의 입에서 합게한때에 부르지게되는 때가 업는것을 筆者는 記憶하고잇다 日是日非로 有始有終의 美를어든것을 듯지못하엿다 이 어찌일가? 結局은 輿論을統一할만한指導的 機關이 업다는데 歸一될것이다 數年前에는 그래도 某某表現團體가 存在하여 表面으로나마 輿論의統一에애써와다고할수잇다 그것조차 업서진 오늘날에와서는 咸興의 輿論은 마치 임자업는배와가튼 狀態를 늣기게되다 어찌寒心하지안흘수 것인가 더욱이 現在또는 未來의咸興은 우리의生活上에 一大變革은 必然케하는 重大時機에 直面하고잇는、咸興이다 가장우리의生은 安全且有利하게打開시킬이때이다 輿論의統一正常化시키는 무엇이 直接間接으로 咸興의 存亡을 左右할때가안이냐? 咸興의 有志諸氏여! 팔을뽑내여 蹶起하라 그리고가장굿세인 勝利의 集團으로 享樂하기爲하여 輿論統一機關結成에 邁進하라—

江華의當面問題

中學、運動場、公會堂等 "힘"을모아期成할것

【江華】 우리의 當面問題에잇서서、그 어느것이 가장 火急하냐고 한다면、急한것이 한둘이 안이매、그어느것을 골나주워야 果然 順序을 따저진것인가?는 가장 難問題이다 그는말치안트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急한當面問題가 數를 헤이기 어려운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單純히 말하자면 時代에 늣저진말일지는 몰으나 情、熱를 가추운 일軍이 거저 우리에게 잇서야만 하겟다는것이 이글을 쓰는 筆者의 생각이다。 그러면 江華란 地理上으로보아『섬』이고 人口에잇서서 八萬內外이다 歷史上으로보아 朝鮮의 가장자랑을 자아낼만한事實도 이곳서發祥하얏고 눈물겨운 페이지도 이곳서 發生되엿다 또한 西歐의 文化를 第一먼저 맛본곳도 이곳이오 大院君의 鎖港丸이나 砲壘도 이곳에 잇섯스며 佛蘭西의 軍艦을 깨치운곳도 이곳이다 또現在에 잇서 보드래도 全朝鮮을 通하야 經濟的으로 獨立된곳이 이곳이고 副業을 通하야 全朝鮮의 어느곳보다도 나으며 生活에잇서서 三日間을繼續하야 飢寒에 우는 겨래 가업는곳도 이곳일나。 이만 하면 第三者된 누구나 말하기를『江華만은』하고 滿足할것이라고 할것이다만은 其反面 에잇서서는 그러치도못한것입다 지나간一年을 回顧컨대 果然 文字 그대로 多端하얏던것이다 中學問題도 잇섯고 公設運動場 公會堂 問題等이 일어낫섯든것이다 何如間 이問題가 모-다 時急히 要하는배이다。 만흔 民衆의 誠意가 적음인가? 또는 일軍들의 不誠意한이 原因이엿든가? 左右를 莫論하고 그하야도 成果를 보지못하고 한해를 또보내고보니 江華의人事의面目이 安在乎?할도 無理가 업슬것이다 江華의 富力으로보아 또는 일軍으로보아 이마한일쯤은 되고도 남을『精神』이 잇것만 남보기에 너무 북그러움이 만타! 江華中學期成會도 어서促進하자 江華의繁榮會도 남의貴重한財産을 마다거던? 좀더 새精神과

새計畫

을 세우고 公設運動場 公會堂을 만들자! 우리는 過去의 歷史를 뒤집어 볼때가 안이고 지난일에 얼골을 붉힐 時期가 안이다 지난해의 일은 그대로 막음을하고 新年의 새해빗과 한가지로 새勇氣와 새로운 計畫을 세워서 나아가자 그리하야 大衆의期待에 어그러짐업는 公約을하자! 化學的으로人體를 分析하야감을 친다면 十圓어치의 化學原料밧게는 못된다니 그다지 악기지안어도 還元되는 結果에잇서서는 同一할것이다。우리의힘을 모으자 가지고갈것 안임에야 좀더 우리社會를 潤澤하게 만드는곳에쓰자! 그리하야 今年의 우리의 時急한問題를 解決하자 다만 이한해는힘을 서로서로 모으자』 (江華支局 一記者)

商業發展의癌 無理競爭排擊

【郭山】 郭山은 各種商業가 만치만 特히 米穀商에 限하여는 平北에 들려서 多盛을 占하게되는것은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다 大規模로되는 米工場이 六個所이며 小規模로 된 白米工場은 그數를 알수업시 만이잇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米穀商을 經營하는 商人이면 一二年을 지나지 못하여 失敗를 當하고 經營主가 박귀게 되는中 그亦失敗에 도라가서 轉[illegible]이 無變하다 甚한때에는 經營主가 一個月內에 變한다 이것은 郭山에서 一大센세이순이되어잇다 그것은 무슨原因인가? 여러가지 理由가 만켓지만 第一로는 農村의 疲弊로부터 米穀商에게 適當한 現價로 賣渡되야가는 穀物을 乙商은 暗暗裏에 現時勢以上을 支拂하고 該穀物을 奪取하는等 丙商亦高價買收를 하는 鬪爭을 演出하는것 第二로는 商業上信用本位를 遵守치 못하야 農村에서 商人을 信用치 안는것 第三으로는 商人對商人間에 營業上援助가 업는것等 以上의 主要原因으로 郭山商界의 風潮는 哀狀하게도 傳統的習性을 自來로 繼續하야온다 何必米穀商뿐안이라! 生活을 目的하는 商人들이어! 自覺할 必要를 늣기지안는가? 꾸준이 自己商業的本位로하는것이 當然하거늘 營業資金을 濫用하면서 無理하게 競爭할 必要는 무엇때문인가? (郭山支局 一記者)

新春의光明을엇고저 電燈架設을促進

이것도陜川緊急要望

【陜川】 陜川은 十七個面과 十三萬의 人口를 가진 적지안흔 郡으로서 初等敎育機關으로 一面一校가 完成되지오래며 (그러나 六學年制校는 不過三個校일뿐이다) 高等普通學校가 三個校나 設立되얏고 農業補習學校 一校와 其他 一般施設에 잇서서 別노히 遜色이 업다고하겟다 그리고 市場移轉과 陜川堤防도 完成되얏스며 三十年計劃의 沙防事業도 進行中에 잇다 市內電話架設도 去年으로 끗낫스나 그 모든것으로 完全 또는 完成이라고 하기에는 아즉도 멀다는 感이 不無하다 또는 地方에 如何한問題가 잇슬때에 서로會合하야 議論할만한 機關 하나를못가진것이 甚히遺憾이며 羞恥이다。 畸形的發展을 하고잇는 陜川에 電燈架設이 업슴이 크나큰遜色일것이다。 일즉부터 官民有志들의 努力하여 바이지만은 大邱某電氣會社에서도 意向이 잇다고 듯으니 新春에는 더욱 具體的活動이 잇서서 美觀上으로나 産業發展上 電氣의 利用이 하로밧비 實現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陜川支局 一記者)

000025

開城

開城府廳職員一同

朴尙裕 開城府

開城金融會

大阪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代理店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スタンダードヴアキユーム石油會社代理店
開城石油販賣組合 開城府南本町一九一 電話三三七番

穀物肥料貿易委托業 同興泰 開城府南本町一九一 電話三三七番

三井物産株式會社燒酎一手販賣店 三光商會 開城府西本町一四二 電話三四六番
代表者 金奎晃
石油部主任 古谷石松
穀物部主任 裵安玉
燒酎部主任 裵濟弘

合名會社 春圃社 開城府北本町

開城券番 開城府西本町

開豊農園 李允秀

中華料理 會昇館 開城府大和町 電話五七番

開城蔘業組合

朴守源 開城府

開城府大和町 家具와花環 建美社 金龜吉

開城府 金正浩

開城印刷株式會社

松都殖産株式會社

專賣局開城出張所

松都高等普通學校

開城電氣株式會社

開城府大和町 中華料理 松月館 電話四四番

開城人蔘同業組合

同仁醫院 開城府南本町八八番地

開城自動車營業所

X光線特設 入院室完備 丁字醫院 開城府北本町 崔昌順

開城商工會議所

開城府 禹斗亨

開城府北本町 朱德鍾

開城府北本町 朴載珪

開城府北本町 中華料理 德昌泰

開城府西本町 中華料理 大興園 電話五二三番

朝鮮開城大和町 松京屋洋服店 電話二五一番 振替京城一七四〇九番

開城府南山町 金基永

開城府南山町 松京釀造場 電話二一四番

李鉉卿

優勝팀언파레드

乙亥年스포-츠日記

스포-츠의 躍進邁新은 해마다 가름할 過程을 거듭하는것 같드나 거기에는 남모르는 사이에 世界的水準을 자랑하기에 足한 눈부시는 躍進을하고잇슴을 볼수잇다 도라보아 지난 一年間은 幾多의 劃期的記錄을남긴해이다 더욱히 再昨甲戌年의 우리스포-츠界는 神聖하여야할 『스포-츠맨쉽』에 씻지못할汚點을 끼친해이엇든만큼 우리는 『運動精神』을 涵養하라는 此正의소래를 놉히 웨치며 諸家의高見을 蒐載하여 敎訓삼은 記憶이 새롭거니와 지난 乙亥年은 運動精神에 잇서서도 가장明朗한해이엿슴을 想起하야 우리는 欣快의微笑를 不禁하는바이다 그러고 우리運動界와 生長을같이해온 民族體育의 總本營인 朝鮮體育會가 創立十六週年을마지하야 歷史的綜合競技大會를 訓練院頭에서열어 破記錄的盛況을일우은것은 乙亥年中에 最大盛事인特記할바이다 새해를마저 묵은해이야기를 되푸리함은 將來를 위하야거울삼음에 갑시잇슬것이니 이제지난一年동안 京城을中心으로열린 各種大會에서 光榮을얻은 優勝팀을紙上行進을 하고저하는바이다

陸上界

씨-슨의 序幕을告하는 京仁驛傳競走는 三月三日에舉行되여 傳統的興味를 자랑하는 陸上王國 養正이 四時間五九分一九秒로 레코-드를끈엇다 四月二十七日에열린 朝鮮陸聯主催第一回마라손大會에는 養正의孫基禎君이 二時間二五分一四秒란前古未聞의 大記錄을作成하엿스나 이는 距離測定이 精密치못하야 參考記錄으로되고마럿다 그翌日에는 第一回朝鮮專門校對抗驛傳競走를 水原→京城間코-스에서 열리어 普成專門軍이 二時間三十二分五秒의 最初記錄으로優勝하엿다 그리고 五月十八日에開催된 朝鮮體育會主催의 第三回풀마라손大會에는 亦是孫君이二時間二四分二八秒의 驚異的記錄을지엇스나 코-스測定에 誤算으로 이것마자 參考記錄으로되엿다 六月二十三日에열린 第四回京城府內男子中等校學年別對抗에는 常勝軍養正이 制霸하엿다 七月에드러 東京서열린 十哩短縮마라손競走에는 南昇龍君(明大)이 五五分三六秒二로斷然一着하야 올림픽候補選手로서의堂堂한威風을자랑하엿다 七月二十八日에도 第二回全朝鮮中等校陸上對抗(養正優勝)等이열리어 前半期의京城運動場은 連日과가티殷盛을呈하엿다

이리하야養正高普는 朝鮮內에서뿐만아니라 멀리玄海灘건너東京에서 八月二十四日에열린 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陸上競技大會에出場하야 그곳의强豪二百三校七百九十餘名을壓倒的으로 제치고 連二年日本中等陸上界를 征服하야 젊은朝鮮의氣象을 널리宣揚하엿다 그뿐만이라 各種競技에나아간 選手들의個別的實力과體質이 그곳選手에比하야 卓越한데는 그들로하여금 놀라게하엿다 이大會에서活躍한選手는 養正高普軍外에도 徽文高普의洪永燾君、平壤高普의再金善君、京師의黃大峰君等이 優秀한成績을 나타내이엿다

◇ 그리고 九月廿四日에열린延專主催의中等陸上對抗은 지난해로서 第十三回란가장長久한歷史를 가지고半島아스리-트를 길러내는 인大會인데 여기서도亦是 養正軍이連十年優勝하엿다 以上外에도 綜合競技、神宮、臺灣遠征等이잇섯다

그리고 북대를울려서 女子競技界를도라보건대 往年의『스프린터-』安金女、姜福信孃이 隱退한後로는 半島女子陸上界의 雙壁平壤女高普와 大邱女高普의活躍조차 微微하야진듯감을 주고잇다 그러나 個人的으로 沙里院高女의 李秋子孃은投槍에 京師의黃婉周孃은 投圓盤에 各各 朝鮮最高記錄을 作成하야 크게氣焰을吐하엿스며 女流陸上界의第二陣을 培養코저 同德女高가主催한 普校女子陸上競技大會는 十八個校가 參加하야 空前의盛況을이루엇스니 閑寂하든 女子競技界에 活氣를띄우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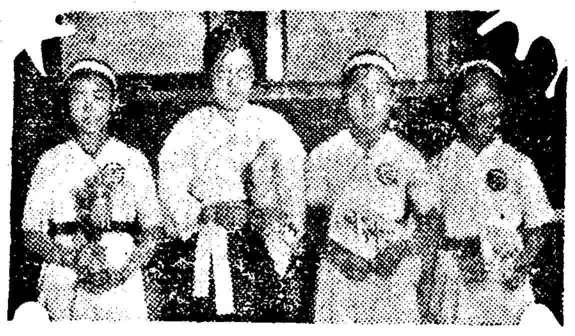
女子籠球에優勝한好壽敎女高普軍

籠球界

지난해동안의 各種大會를 通하야우리選手들의 戰況을回顧하면 먼저一月八日부터 同十日까지의三日間東京에서열린 全日本綜合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로 延專과 中東이出戰하야 延專은 群馬縣代表인 勢多俱樂部를 百二十三對十五의 壓倒的스코어로 大勝하고 紫俱樂部의 業體으로 勇躍準決勝에드러가 日本의霸者 東京帝大와對戰하야 七十三對三十六으로 延專이 敗退하엿스나 그뒤에 바로東大코-트에서 열린 對抗戰에 延專이 東大를四十三對四十二의 熱戰끄테 前日의敗를 雪債하엿다 그리고 中東은 第一回戰에 長岡팀을 四十二對四十의 스코어로이겻고 第二回戰에는 東京代表學士俱樂部에게 四十六對四十一로惜敗하니 兩軍모다 全日本制霸의 欲望은 섭섭하게 水泡에도라갓스나 稀覯치못할 우리의 實力을보이엇다 또한四月九日에東京帝大팀을 마저 京城OB(五八對四二)延專(五〇對二一)普專(四九對二九)全京城(四三對三〇)等과 平壤팀(四八對三〇)이모다 時運不利하야 全敗의苦盃를드렷다 이는朝鮮팀들의練習不足이 무엇보담도 東大팀으로하야곰 橫行闊步케한 큰原因이엿든것이다 同月二十三日에 來征한 滿洲人팀과 京城軍의對戰은 五十四對五十一로 京城팀이亦是敗退하엿다 그後七月八日에는 東大에버금가는 文理科大學팀을 마지하야 第一戰에 普專이四十二對三十으로 물러서고其翌日인 九日에 京城OB와對戰하야 三十五對三十一로 文理大팀이 敗戰한뒤에니어서延專과平壤崇商軍의 强襲을바터 四戰一勝三敗의 戰績을남기고 도라갓다 以上의 戰績으로보아지난해는 對外的으로 極히 不振하면서도 오직 實力涵養에精進한해이엇다

對內的競技의 年中行事로는 一月十八日에 第一回京平中等籠球對抗戰이 열리어 中東과崇實이 對戰하야 一勝一敗로마치고 同二十八日에는 崇專YMCA體育部의 主催로 京城高普籠球團招聘戰이잇서 高普팀은四戰一勝三敗의 戰績을남기고 歸京하엿다 朝鮮籠球協會와本社後援의第五回中等及俱樂部聯盟戰은 五月八日부터 開催되여 普專、中等、醫學이 各各首位를차지하엿고 五十七日에는朝鮮體育會와YMCA共同主催의 第五回全朝鮮選手權大會가열리어同決勝戰에 延專과 全中東이對戰하야 四十二對四十一로 全中東軍惜敗하엿나 그리고延專主催의 第五回全朝鮮中等大會에는養正高普가 制霸하엿다 十一月八日부터 열린中央基青主催의리-그戰은 리-그戰開始以來 破記錄的 混戰을이루어 中學第一部에서는 徽文、中東、養正이伯仲之勢로 延長리-그에드러가서도亦是同率로되여 首位를 決定치못하엿다 第二部에는 京貿이全勝하야 第一部로 昇進하엿고靑年部에는 延專이首位를 占하엿다 그리고 女子籠球界를 도라보면 全般的으로 例年에 比하야 括目할 進步를보이고잇스니 이는 十月六日에열린 全朝鮮大會 決勝戰에 進明女高는 宿敵第一高女를 十八對十四로 一蹴하야 同校는 勿論이요 우리女流籠球界의 實力向上을 如實히 證明하엿다 그後十月十九日에行한 神競女子籠球準決勝戰에 進明은 淑明에게 十五對十一로惜敗하야 前日에 進明에게 敗한 第一高女에게 二十六對十四로 淑明이 敗退하는等 實로變態無常한 熱戰을 되푸리하엿다

그리고 씨-슨의 終幕을華麗히 裝飾한 梨專主催의 女子中等大會는 十一月二十三日에 새로히지은 梨專體育舘에서 女流籠球界의 精彩들이 一堂에모히어 熱戰또熱戰끄테 最後決勝戰에 好壽敦가 梨花女高를 二十三對十八로 이겨榮冠의 霸權을 掌握하엿다



◇…女子卓球에優勝한同德女高 (左로둘째는金聯의朴春子孃)

野球界

朝鮮運動競技史上에 잇서그燦然한黃金時代를 잃허버린 野球界는다른運動에比하야 더욱 萎退하야가는 傾向이잇스니 그實例로는 過去一年間 朝鮮內에서 舉行된 大會開催數가 前年보다도 減少된것과 이에原動力이 될만한 各個人이 이競技에 嗜好心을 가지지안는데서 最大原因이 잇다 第二回大學、高專 野球聯盟戰 第一部에朝鮮學校로 오즉延專이出場하야城東部 閉한끄테城大軍을十四對五의大差로擊破하야 第一部에서榮譽의優勝權을 掌握한後 同大會第二部優勝校인 高商과 對戰하야 五A對一로 延專軍惜敗하엿다 春季京城實業野球리-그 決勝戰은 殖銀對京電相對로열리어 二A對零으로 殖銀이優勝하엿는데 이聯盟戰의打擊賞은 京城府廳팀捕手崔冲乙君이 獲得하야 個人的技術을 發揮한바잇섯다 그리고學園野球界의 一大盛事인 延專對普專 定期戰이 六月十三日에 第一回戰이열린바 五A對零으로 延專軍이 앗갑게도 惜敗하엿스나 雪辱戰인 第二回戰은 延專의 猛打機出로 七對六으로 이겨 延專霸然氣憤하야 氣勢를올리다음 同決勝戰은 滿都軍의 好望中 六月十九日에 開始되여 結局九對七로 延專軍이優勝하니 이것으로서 以來四씨-즌을이겨서 同勝率을 保有하고잇게되엿다 그다음 秋期戰에 드러가 兩校實力은 크다란 興味를 도두면서 最後勝敗를 가릴對戰이 十月五日에 舉行되엿스나 兩校實力比等하야 結局四對四로 맛처버렷다 其外에도 延專主催의 第五回中等野球大會가 六月二十四日부터 郊外延專球場에서 열리어 同決勝戰에 徽文對中央軍이 對戰한바 十五對二로 徽文軍이 優勝하엿스며 東京留學生들이 夏季休暇를 利用하야 故國訪問野球團을 組織한다음 一行十一名은 七月二日에 入京한後 同月五日에 徽文高普軍과 第一回戰을 行하야 十二A對一로 優勝한後 第二回戰은 全徽文軍과 對戰하야 七對三으로 留學生軍이 敗退하엿다 東京에서열린 都市對抗野球大會에 京城代表팀이 出戰하야 두번채나 六A對五로惜敗한일이잇서 비록應援選手가 大部分日本內地人이엇섯스나 李榮敏君의 存在가만앗든터이라 그곳에 印처노코도라왓다

◇…中等씨름界霸者 普成高普

專門蹴球의兩雄 …延專과崇專…

蹴球界

지난一年은 蹴球黃金期라고불러서 過言이 아닐것이다 四月에는中國의 强豪東華足球隊를마저서 三戰에 京城과平壤에서 一勝一敗로 平蹴과 京蹴에게 各히 一敗를당하고 學生軍만을 殺辛히이기고 도라간것을 爲始하야 北滿洲遠征(八戰七勝一無勝負)崇實의 日本內地遠征(四戰三勝一敗) 京城蹴專의 高專大會制覇等 對內的競技로 重要한 멧가지를 추려列擧하면 綜合競技中白眉의 一戰!普專對延專戰은 延專이臥薪嘗膽四年만에 强敵普專을 익여서意氣軒昂하야 新春劈頭에 上海遠征의 壯途에 오르게 되엿다 中學部에는 五月六日부터 열린 京城中等聯盟戰에는 徽文高普 普專主催中等蹴球에는 儆新學校 綜合競技中等蹴球에는 徽文高普 城大主催中等蹴球에는 普成農林 神競中等蹴球에는 培材高普가 各히優勝하야 群雄의蹶起를 如實히證明하엿다 그리고 關北의雄 淸津軍이 中央에進出하야 最初의覇權을掌握한것도記憶할바이다 그밧게 러비蹴球에잇서서 飛躍的進展을보여준것은 中等校로서 培材、養正、京師、新義州高普等의 눈부시는活躍으로 러비朝鮮의압날을위하야 크게氣勢를도두엇다 그뿐만이라 專門러비의覇者 普專은 宿敵水原高農을連三年鑒退하고 오는 三日부터 大阪에서 强敵들을 相對하야 全日本制覇를 目標로 奮戰力鬪할것이다 새해에 課題로 되여잇는 아式、라式을 通하야 蹴球의 世界올림픽進出、延專의 上海遠征、全日本中等、專門러비制覇에 커다란스로간은 우리蹴球人이가지는期待와 囑望이 以上멧가지에 답붓쓸리고잇다。

庭球界

一九三五年度의우리庭球界는 다른運動競技에 比하야長足的發展을보이엇스니 大小大會를 通하야 朝鮮人이 獨步的强味를보이어 모조리 優勝한데여서 더욱 痛快한바가만엇다 前年球界戰績의 一年間의 動向을사펴보면 四月二十一日에 朝鮮스포-츠社 主催 第二回中央庭球大會가 열려 硬式의 洪永武、朴龍壽組가 優勝하엿고 朝鮮殖産銀行庭球聯盟主催 第三回 全朝鮮大學、專門校庭球大會에는 京城醫專 孫泳洙組가優勝하엿다 同大會中等個人庭球大會에서는 徽文高普 裴裕學 金漢興組가 霸權을 把持하엿고 京城實業春季庭球리-그戰에는 朴兩善君을 主將으로한 殖銀軍이 七戰四勝의 全勝率로 遂勝하엿다 本社 後援의 第一回全朝鮮男子中等庭球大會가 同校『코-트』에서 열리엇섯는데 徽文高普軍이 始終奮戰끄테 榮譽의優勝旗를 차지하엿다 六月八九兩日에開催된 京城市內官立中等學校리그戰은 總得點九十二點으로 養正高普가優勝하엿고 第十三回 市內私立中等校庭球리그戰에는 徽文이猛威를 發揮하야 五戰五勝의 全勝率로 締冠을 獲得하야 氣勢를올니엇다 그리고 高商主催 第十四回 庭球大會에서는 中東軍이 漢束의 釜山第二商業을 擊退優勝하엿고 第十二回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는 七月十五日에 開催되엿는데 熊野御堂組가 連二年霸權을잡게되어 傳統的 强味를 자랑하엿스며 八月三日에는 全日本軟式庭球界의 鍊將들을 網羅한 選拔軍의 來征이잇서 其第一次戰으로 全京城軍과對戰 遠征은 全日本選拔軍은 全京城軍妙技續出로 어절수업서白旗를 들게되엿스며 第二回戰에서도 全京城軍再勝 其外에도京日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 女子中等及一般女子庭球에서는 京城女高普、京城女師兩校가 出戰組三十六組의 强敵을 壓倒的으로 擊退後各優勝하야 女子庭球의威風을 마음껏 發揮한바잇섯고 延專主催의 第六回中等庭球大會決勝戰은 十月五日 第二高普對中東戰으로 開始되여 結局四對三의 白熱戰끄테 中東軍連二年優勝하야 常勝中東軍의 威名을 자랑하엿다 其外에도中東、平農、開城好壽敦의朝鮮中等庭球界를 代表한 强陣이 東京서열린 明治神宮競技大會에出場하야 想像以上의 好成績을거두고 도라온것과 都市對抗戰에서는 全京城이 日本內地各都市의 强敵을始終壓倒하야 連二次擬傾制覇한것은 一大痛特할바이다 朝鮮軟式庭球聯盟專門部決勝에는 延專과普專이 對峙하야 普專軍이 勝捷하엿고 同中等戰에는 中東學校의 安芳善李基用組가 優勝하엿스며 同大會一般部男子戰에는 崔永生、鄭士連組가 朝鮮體育會綜合競技大會中學決勝에는 養正、專門部에는 延專이 普專을이겨 神宮大會때 惜敗를 雪辱하엿다

◇…昨年度 力技選手權保持者

上으로부터 全日本中等陸上의霸者養正高普 全日本府縣對抗庭球에優勝한 全京城팀 大阪서待機中인普專러비團一行 (朝鮮女子氷上界의花形 京保의鄭明淑孃 氷上選手權者 全朝鮮中等氷上의霸者 新義州高普軍)

恭賀新春

清津 合資會社 辛良極商店 電話 商店八三三 自宅六一三 番

咸鏡北道淸津府 各種原木 製材 裵貞基製材所 第一工場 朝鮮咸北線新站驛前 電話長九六九番 第二工場 朝鮮清津驛前浦項洞 自宅 會寧郡會寧邑大正通 電話三二一〇番

清津銀座通り 昭和木材合資會社 代表社員 羅秉祿 電話一〇二五番

清津府新岩洞 金基德

清津府曙町 諸機械 電業金物 鋼鉤金 昭和鐵工所 電話九二七番

清津府新岩洞 李昌仁

清津府幸町四丁目 諸機械 修繕熔接 火造鍛物 東海鐵工所 電話四三一番

清津府曙町四番地 合同運輸組 電話一〇六四番 代表者 崔浩俊

清津府新岩洞 合資會社 海東商會 金龍煥

清津府新岩洞 酒類製造業 盧冕煥

清津府新岩洞 昌北商會 金裕禎 電話三二八番

清津府新岩洞八四 裕德皮革商店 張柱龍

清津府新岩洞八五番地 清津皮革商會 電話八五二番 振替京城二三八〇六番

清津府新岩洞 北鮮蓄音器商會 電話九〇八番

清津府新岩洞入口 國際靴店 電話七四五番

清津警察署

清津府幸町 梁弼龍商店 電話一一三三番

清津府寶町 崔在勳 電話一二三二番

清津府新岩洞 永松醫院 院長 劉永明 電話三二九番

清津府入船町 (自)三共商會運送部 支店 會寧、龍井 電話九一一番

清津府曙町 株式會社 東一商會

清津府曙町 荷主運輸株式會社 清津支店 電話二二二番 清津局私書函第三號

清津府東海岸 李應實

清津府新岩洞 和洋製菓 果實石油 素麵製造 部敦賣商 光明堂 金奎玲

清津府新岩洞 石版專門 文化堂

清津府新岩洞 姜台璜

新幕

新幕金融組合職員一同

京義線新幕驛前 鐵道貨物 取扱運搬 穀物貿易 倉庫營業 中興運輸組 代表 李炳燦 電話二三番 振京一二六四七番

瑞興郡梅陽面餘簽里 面協議員 郭鐸鎭 同 金六濟

瑞興郡禾回面新幕里參番地 開城電氣株式會社 新幕支店

穀物貿易 始新商會 主 李炳燦

新幕朝鐵自動車部 主任 李聖瑚

瑞興郡梅陽面長 郭漢鍾

順天醫院

新幕學校教職員一同

新幕學 禾回面職員一同

新幕警察官駐在所

學校費組合會議員 面協議會議員 川瀨新三郎

金基俊

新幕郵便所職員一同

平山商會 主 姜普善

崔鎔直

鐵物貿易 高光祚 電話三〇番

新幕二百九十番地 鐵道御用 釜山農具 日鮮洋 同興裕鐵工廠 振替京城九七七九四番

朝鮮京義線新幕 丹生醸酎製造場 主 金東云 電話一七番

金顯海商店 電話二七番

瑞興郡 東部面事務所 職員一同

張相瑚

源盛義金記

曲學仲

面協議員 崔炳夏

東洋旅館

淸香園

金三濟

華盛旅館

司法書士 位田佐市

清元堂漢藥局 主 朴華實

朴東華

新幕材木商會 主 金日永

日光護謨商會 主 林光鉉

新幕旅屋 電話三一番

廣濟藥局

沈村

京義線沈村驛前 三星醫院 長 安永燮

鳳山郡舍人面蒜山里 吳千農園 吳錫表

鳳山郡舍人面蒜山里 岐陽學校職員一同

鳳山郡舍人面內松里 實業家 趙仁煥

京義線沈村驛前 三興商會 宋忠憲

京義線沈村驛前 實業家 李東富

京義線沈村驛前 穀物貿易 委托販賣 朱致鉉

京義線沈村 共商會 李承宙 尹昌俊 李公伯

鳳山郡舍人面柱東里 婦人理髮舘主 全昌旭

鳳山郡舍人面內松里 張驗

鳳山郡舍人面內松里 鄭錫

黃州郡青龍面油北里 實業家 李浩淳

朝鮮日報沈村分局 分局長 姜齊源 記者 李完永

南北에呼應躍進하는 우리運動界의現勢圖 ―一―

關西體育會中心 平壤運動界氣慨潑溂

選手培養과體育의民衆化에 各大會의功績은莫大

平壤特派員 金晩炯記

우리民族體育運動과 經濟의度를 緊密히하엿든 一九三五年도 우리의 眼界에서永久히 사라지고 새希望과 새意氣 새로운感慨를 가득히싣은 一九三六年을마저 大同江銀盤上에는 『윈터―스케잇스』로 潑剌한光景이 바야흐로 展開되여잇서 民族의 將來를約束하고잇는 男女學生들은겨울의獨占的 『스포―츠』 舞臺이『링크』우에 充溢하도록 登場하여 새技藝를 競演하고잇다 이리하여 압흐로 鍊光滑氷俱樂部를中心으로 京城白狗軍과의 京平對抗競技、全平壤男女市民氷上競技等이잇슴은 勿論、關西體育會主催의 第十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各男女中等學校等의 氷上競技가 續續主催되여 嚴冬의 大同江氷盤에 불꼿을날리는 熱戰이展開될것을想像케한다 이러한 期會를當할때에 우리로서는 關西地方의『스포―츠』方面에서지난 一年동안거러온 足跡을 다시금回顧하면서 차저온 今年의前程을意味잇게展望하려한다 우리의 立場에서 關西地方은말할것도업거니와 全朝鮮體育方面에잇서서 縱橫으로 潑剌한 活躍을하여 不朽의 功績을휘날리고잇는 우리의 團體인至於關西體育會의 存在를等閑視할수업스니 創立十二週年이란 長久한 歷史를가지엇다는點에 對해서도 그러하거니와 多方面의 活動을하여 斯界의 進步發達을增進하여 金正淵君과가튼 國際選手를 養成한것을 爲始하여 各方面에異常의 進展을圖謀하고잇다는 點으로보아서도 또한 그러할것이다

競技向上指導와 運動道發揮에盡力

各大會마다規模는一糸不亂 名選手도年年輩出

그러면 關西體育會로서 昨年中우리民衆에게 어떠한貢獻을하엿든가?를 다시금 뒤도라보려하는바이니 勿論經濟力이豊富치못하다고는하나 그러나 官營體育團體나 其他어느團體에比해서라도 遜色이업슬뿐아니라 斷然優勢를가지고 또한 多種의意味에서의 社會的支配力을 가지고 左衝右突의 活躍을한것만은否認키 어려운바이다 第十一回全朝鮮蹴球大會를 爲始하여 第五回全朝鮮씨름大會、第五回全朝鮮綜合體育大會、第六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 第五回全朝鮮男女卓球大會等의『스퀘어』를主催遂行햇슴은勿論 其他東京留學生蹴球遠征軍을 筆頭로하여 外來團體의 各種競技도 十數回나 主催또는後援햇고 崇專蹴球團遠征、崇仁商業籠球團遠征、平壤蹴球團遠征時에 物質的으로까지 後援하여 關西地方는 再言을 不要하고全般體育界를爲하여 重大한役割을 逐行한터이다

◇

關西體育會에서 主催하는 各種大會와 後援事業에 잇서서는 特히技術의向上과 大衆化에 오로지 盡力할뿐 안이라『스포―츠맨쉽』의 發揚에 用意하고 잇는關係로 昨年一年中을 通하야 主催또는 後援했든 諸般大會에서는 實로 他都市에서는 보기어려울마큼 秩序整然한 統制잇는場面만을 보히어서 對外關係로그러하거니와 우리 自身들로서도 自體自體하기에 조곰 붓그러움이업슬것이며 蹴球技術에 잇서서의 全朝鮮的은 말할것도업거니와 全東洋的 選手를 輩出하엿고 籠球技術에 잇서서는平壤에籠球競技가 輸入되지 日淺햇슴에 不拘하고 能히全日本中等校를 壓倒的『스코―어』로席捲하고 覇權을 掌握하는 崇商籠球團을 만드러 내엿다는 點과압서도 記錄한바와가티 氷上界에잇서서 國際的인 氷上選手 金正淵君을 爲始하여 幾多의 名選手를 産出하는等等 各種目競技에잇서서 그質과 量에 實로超『스피―드』的의 技術向上과 進展을 보기에 일응것은 오로지 關西體育會의 努力이 偉大하다고 할것이다

◇

그러고 指導를 바다 各自의 技術을 硏磨하는 選手自身들의 根氣잇는 行動과 指導級의 人物들과 應援者들의 眞正한態度와 拍子맛초아 압날의 希望을 加一層두텁게하고잇는터이다 이밧게 民衆保健『스포―츠』의 大衆化를 目標로 日光浴會와 水泳講習會를 開催하고『라듸오』體操 其他의 大衆運動에不少한 犧牲과 誠力을 傾注하고잇는터이다 이리하여 關西體育會에서는 今年을當하여서 보담以上의 施設을 하여 效果를收穫코저 발서부터 各項種目에對한 硏究를 開始한터이다

指導級에잇는 各學校、團體

關西地方의 昨年中各種『스포츠』界는 實로潑剌한 場面을보혓거니와 各般競技를主催하여 斯界에만흔 貢獻을한團體를 列擧해본다면 關西體育會에 數만흔大會를主催한것은 前述한바잇섯슴으로 略하기로하고 崇專主催의 全平壤籠球聯盟戰、全朝鮮中等學生庭球大會、全朝鮮少年蹴球大會가 人氣를集中햇고 平壤府主催의 西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籠球、庭球大會等도 特筆할價値가잇다 이밧게 各組合聯合會主催의 市民大運動會、商業組合主催의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洋服商組合主催의 慰安大運動會等을 列擧할것이다

◇―寫眞은 關西體育大會優勝팀(上으로부터 崇實學校籠球部 平壤女高普排球部 平壤高普排球部)

◇―海州體育會主催의 留學生蹴球招聘戰當時兩軍의 紀念撮影

今春卒業케될 平壤各校選手動態

◇……崇專軍 崇專蹴球의强味는이대까지나强味그대로 버티고잇서 昨春平壤에서 開催되엿든 關西體育會主催 第十一回全朝鮮蹴球大會에 連二年制覇한것을爲始하여 東京에 遠征해서도 五戰四勝一負의 好記錄을 보히엿다 그러나 이蹴球團의 主將으로가장 重堅이든 R―朴會煥(文科로上級校志望)R.F朴炯〔?〕(商科로就職決定)의 兩君을 일케되는崇專蹴球의 打擊이 잇즐적지안타고본다

◇……崇商軍 臥薪嘗膽十六年만에 期於코優勝하여 萬丈의氣焰을올린 崇仁商業籠球團의 强味는 世人의定評이잇는바이나 今春校門을뒤로 하고登場의 卒業을하는 選手는 ▲籠球部 主將崔善〔?〕(就職) ▲申淑鉉(延專商科入學) 石泰元(就職) ▲朴顯根(就職) ▲朴利杜(就職) 吳泳杰(就職)

★……北中軍에 遠征갓든 平壤蹴球團……★

外征內防에 戰績이爀爀

崇商、崇專、平蹴各團體

昨年中에잇서서 우리平壤地方스포―츠界로서 大書特書할慶事로서는 崇商籠球團이 明治神宮競技場에서 飛鳥가튼活躍을 하여 全日本中等校 籠球界를 完全히 征服 凱旋한것을『톱』으로 平壤蹴球團이 天津에 遠征하여四戰二勝一無勝負一敗의 好成績으로 崇專蹴球團이 東京에 遠征하여 五戰四勝一敗의 好記錄으로 終始햇다는것等은關西『스포츠』界를 爲하여萬丈의 氣焰을올리엇다고 할수잇스며 멀리上海에서 遠征해온 東華足球隊를『스코어』로擊破햇고 文理大蹴球軍을 亦是 崇商軍이 擊退햇든것도 快哉快哉를 連呼하게햇다 그리구光成高普 籠球軍이 東京에 遠征하여 準決勝에서惜敗를 햇다하나 中堅選手의負傷으로 起因함을發見할때에 同情을禁키어려웟든것이다

이밧게 女子高普陸上軍의 活躍、正義女高普庭、籠、排、卓球技術의 驚異的進展、平高普陸上崇商의 蹴球崇中의 陸上及蹴籠球의活躍等이 一彩를 放散하고잇다 이리하여 平壤을 中心한第一世들의 씩씩한스포츠技術은 實로長足의 進步를보게되여今昔의感을 깁게하고잇다

等六名이다

▲籠球部―朝鮮의자랑인崇實籠球團의 昨年中大活躍은 ▲八月中 全日本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 實業學校部優勝을 해로 ▲同月中 神宮競技大會朝鮮代表選手大會優勝 ▲十一月中 崇專主催全平壤籠球聯盟戰에優勝하여 京城籠球戰에 어데고 에서 ▲十月中 東京에서 開催되엿든 明治神宮競技大會에 全日本中等學校籠球團을 代表하여 朝鮮男兒의 氣勢를 떨쳤다 그러나 今春에는 縱橫으로大活躍을하든 主將金萬鎬君을 爲始하여 花成蹊卒業

▲卓球部―

◇……光成高普軍 籠球로 陸上으로 籠球로關西地方은勿論 全國中等學校斯界의 重堅이되여잇는 光成高普에서는 今春을當하여 同校籠球와 氷上의至寶 李仁源君을 일허버리는것을시작하여 各部에서 主將以下 만흔 選手를일허 팀編成에 不少한打擊이 잇슬模樣인바 各部別卒業生은 다음과갓다

▲籠球部―主將 李仁源 選手 中永麟 鄭田振 朴鷹龍(金吉鳳) ▲陸上部―主將 鄭錫淳 選手 白衛心 徐範鎬 金璟植 金昌錄 ▲籠球部―主將朴寅炯 選手 金程信 韓鴻壁 ▲卓球部―主將 李鍾三 選手 朴宗潤 韓德化 ▲野球部―主將 金燦洙 ▲排球部―主將 韓應福 選手 金應相 林淳穆 尹昌植 ▲庭球部―主將 朴松竹 選手 吳明淳 ▲氷上部―主將 李仁源 選手 韓景淑 ▲劍道部―主將 玉軍植 ▲選手 金泰晉 安華重 申任憲 尹應廷 李周行 崔正益

◇…正義女高普軍 恒常 꾸준한 活躍을하여와스나 優勝까지에는 及치못하고 決勝戰에서 惜敗를 거듭하여 오든바 今年度에 드러서는 實노 各部를 通하여 出場하는 時마다 優勝하여 萬丈의氣焰을 올려그存在를 世上에 휘날리고 잇섯는데 今春 制服을 벗고 上級學校或은 家庭으로 나서게된選手는

―◇庭球部― 張敏善孃(大探聞衛)

―◇卓球部― 金鳳根孃(主張)뿐 强打攻擊者로 今秋關西體育會主催 全朝鮮男女個人卓球大會에서 八方의 强豪를 破擊하고 優勝한同部의 三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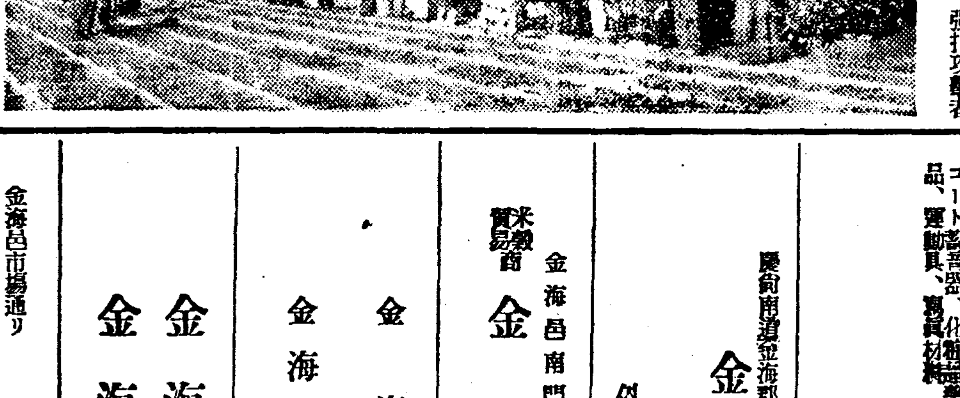
◇…崇中軍 籠球로 陸上競技로 大躍進을하고잇서 朝鮮中等學校中에서 牛耳를잡고잇는崇中에서도 今春 만흔選手를일허버리게되여팀編成에도 不少한打擊이 잇슬模樣으로 各部別卒業生狀況을보면 다음과갓다

―◇蹴球部―車淳玉 柳致一

―◇籠球部―金光善 吳重烈

―◇陸上競技部―陸上部의主將으로 百米走幅跳、三段跳에權威를가지고잇는 朴永俊君을爲始하여 金信玉 金聖鶴 裵英植 李道榮 李景龍等

―◇庭球部―盧炳基



(關西體育大會入場式光景)

黃海蹴球聯盟의 再出發이新課題

海州體育會의括目할活動記

海州支局長 安德根記

一九三五年도 이제막을닷치고希望에가득찬새해는밝엇다 이때를當하야 黃海地方스포―츠界에서過去一年동안 經過한足跡을 回顧하면서 새해의拜賀를 展望하고저한다 우리가 黃海스포―츠界를 이야기할때 黃海스포―츠界는 昨年中縱橫으로 가장潑剌한活動을展開한 海州體育會를 想치안흘수업는것이니 海州體育은昨年中 海州를中心으로한 黃海스포―츠戰線에서 스포―츠朝鮮建設에 얼마나한 役割을敢行하엿든가? 社會有志의 前에업는 熱烈한後援으로 物質的괴로움을 그다지모르고 道內에는 體育團體보다도 예僭以上의 社會的支配力을 가지고 獨步的活動을 하엿든것이니 蹴球、庭球、野球、陸上競技、籠球、卓球等 各分野에亘한 十數回의 大會開催와 他地方遠征等의 刮目할 活動이그것이다

◇

海州體育會는 只今으로부터三年前인 一九三三年七月頃 斯界의 金相游、吳龍煥氏等의發起로呱呱의 첫소리를 올린 歷史짜른體育團體이나 創立以來 同會는 理解깁고 生氣잇는 幹部諸氏의 發剌한活動으로꾸준한活動을 하여왓거니와 昨年中에는一層拍車를 加하야 驚異的活動을하엿스니 그主要한 行事中主催한것을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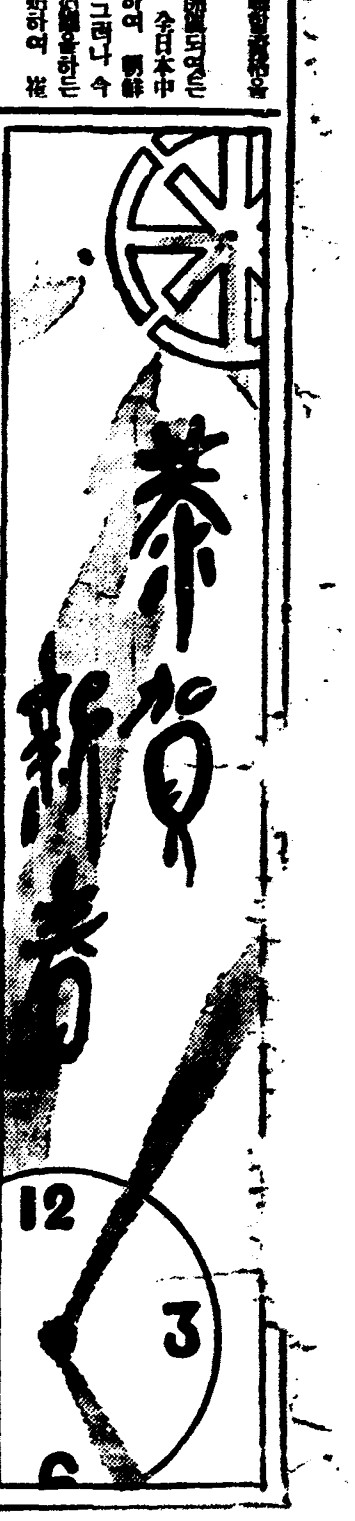
▲七月十四日 東京留學生野球團招聘對抗野球戰開催
▲七月十八日 東京留學生蹴球團招聘對抗蹴球戰開催
▲七月十九日 普專巡廻庭球團招聘庭球戰開催
▲七月二十八日黃海籠球大會開催
▲八月十一日 全朝鮮個人庭球大會開催
▲八月十六日、海州學友會對抗蹴球戰開催
▲九月八日 第一回黃海卓球大會開催
▲九月十一日 第一回海州表野球

遠征한것을들면大概다음과갓다

▲六月九日 馬山市民主催의 全鮮對海州陸上競技大會에出戰하야 五十五點對卅九點으로勝利
▲七月六日 開城高麗靑年會主催의 全朝鮮個人庭球大會에出戰하야 惜敗
▲八月六日 沙里院體育會主催의 西鮮籠球大會에 出戰하야 優勝權獲得
▲八月四日 長淵市民主催의 黃海庭球大會에出戰하야 榮冠을
▲八月十四日 信川에서 開催되든 黃海蹴球聯盟戰에 參加하엿다가 聯盟에서 脫退
▲九月八日 開城對海州의 對抗陸上競技大會에 參加하야勝捷等이다

◇

海州體育會에서 主催하엿든 大會에잇서서 量的으로서도 多大할뿐만아니라 그質에잇서도 優秀하엿든것이니 大會에잇서서 秩序整然하야 一絲不亂의模範을示하야 對外關係로는 勿論이려니와 同會自體로서도 自衛을맛기지안으리만큼 質的으로 刮目할發展을 하엿든것이다 그런데 海州體育會로는 勿論、黃海스포츠界全體로서 가장遺憾되는 事實이잇섯는바 그는 黃海道에잇서 道的으로 結成되 오직하나의 體育團體로서 黃海道體育(蹴球)運動의 中樞機關으로볼수잇는 黃海蹴球聯盟이 그細胞組織인信川體育會의 當番으로 昨年八月十五日부터 信川에서 열닐때 蹴球聯盟戰開催候補地 決定問題를 中心으로『海州體育會』에서 蹴球聯盟戰에의 出戰撤回와 아울너 聯盟에서 脫退를 宣言하야 黃海스포츠界에 一大波紋을 이르킨것이다 그러나이不祥事는 這間一部의 誤謬를犯한데 依據햇든것으로서 이不祥事를 모멘트로하야 當該團體와 聯盟도 正當한良心的인自己批判과 光輝잇는大衆的 批判을 기다리스포츠朝鮮의 精神的意義와 運動道德의 正義를再認識하는同時에 一切의 過誤를淸算하여슬것이라 새해에잇서서의 黃海道를 中心으로한 스포츠活動은 一層飛躍하리라고展望된다



金海

長有面長 徐度坤
鳴洛面長 李鍾穆
菉山面長 李雨英
上東面長 曺永煥
生林面長 裵璡煥
酒村面長 孫萬壽

金海邑議員 朴源達(本名龍出) 金命介 孔泰煥 河奉化

鳴洛面協議員 文渭悅 裵鍾澤 金成鶴

大渚水利組合
大渚金融組合

金海邑長 牛島熊記
副邑長 文呂逢

000026

ビクターレコード特約店、ポリトールレコード特約店、オーケーレコード特約店、テイチクレコード特約店
書籍、雜誌文房具、紙物 日用雜貨什品、樂器、レコード蓄音器、化粧品藥品、運動具、寫眞材料
文化堂 主 許湜 慶南金海郡金海邑 電話三〇番 振替釜山二六三三番

慶尙南道金海郡金海邑 金海運輸株式會社 社長 李康濬 電話二四番 外職員一同

米穀貿易商 金今植商店 金海邑南門外

金海酒造組合 組合長 李晉泰 理事 李正圭
金海酒造株式會社 職員一同

金海水利組合
金海金融組合

朝鮮慶南金海邑 慶南自動車株式會社 金海營業所 電話五番

金海邑市場通リ 馬山洋服店 宋鍋洙 曺永基

金海邑東上洞 東拓駐在所 吉富嘉夫

長有面柳下里 學校評議員 崔鉉翊

慶南金海邑內 金海醫院 李柄一 電話一四番

金海邑北內洞九番地 嶺誌發選出版事務所 著作兼發行者 李鉉式

慶南金海邑內 金海劇場 主 金武日 管理人 金守烈

金海邑市場通 藥酒燒酒製造 郡評議員 主 李佑根 外交人 李宗奭

金海郡菉山面九朗里 面協議員 曺長守
穀物商 宋聖煥
金海郡菉山面美音里 酒造業 精米業 面協議員 安承太
金海 香月料理屋 藝妓 玉子 小一 君子 一子 夜子 私子
鳴洛面竹林里 市原助治
金海邑內 活版石版製本 金海印刷所 主 河奉吉 電話金海一九番
金海邑花木里 學校評議員 李康濟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金海特約店 主 金興龍 配達書記 韓文柱 代理 金成球

慶尙南道金海郡生林面 面協議員 盧在緖
金海郡菉山面松亭里 面協議員 尾崎菊次 面協議員 金千種
金海鳴洛竹林里 朝鮮酒釀造場 宮本崇一
長有金融組合 理事 栗林光雄 外職員一同
金海郡長有面協議員 河奉珠 李承秀

全義
慶南全義 全義穀物商組合
京釜線全義驛前 張志雄
京釜線全義驛前 全光醫院
燕岐郡全東面 職員一同

鳴洛學校評議 金性學
金海砂防事業所 上原修藏
朝鮮金海中華商會
金海郡菉山面美音里 精米所 金基煥
金海郡菉山面生谷里 洛東精米所 主 黃命甲
面協議員 張炳毅 喪中欠禮
穀物檢査所金海出張所 村井满治
長有面官洞 面協議員 田中喜作
金海邑內 和洋雜貨 諸紙文具 金載九商店 電話二五番 振替釜山一一五四番
金海長有市場通 永光堂藥房 許水洪
金海上東面大甘里 面協議員 丁圭復
慶南金海邑內 司法書士 金殷俊
金海郡生林面 防水楔職員一同
大渚面大地里 邑協議員 司法書士 金演合
慶南金海 長有和信連鎖店 主 許水泳
慶南金海長有市場通 布木商 曺快錫
金海中央産業組合 電話十二番
藥山松亭里 金永俊
金海郡菉山面美音里 甲斐寅雄
金海郡上東面大甘里 大甘舘主 申賢伊
京釜線全義驛前 米穀商 黃在淵
京釜線全義驛前 蓬萊釀造場 主 朴鳳來
燕岐郡全義面高登里 李範洪
京釜線全義驛前 金永五